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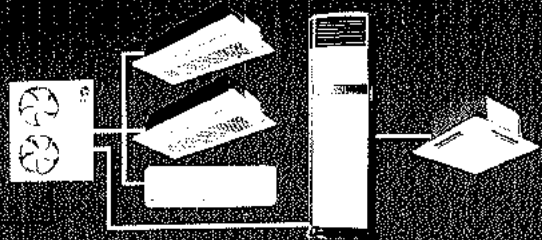
건축사

2001 **06** vol.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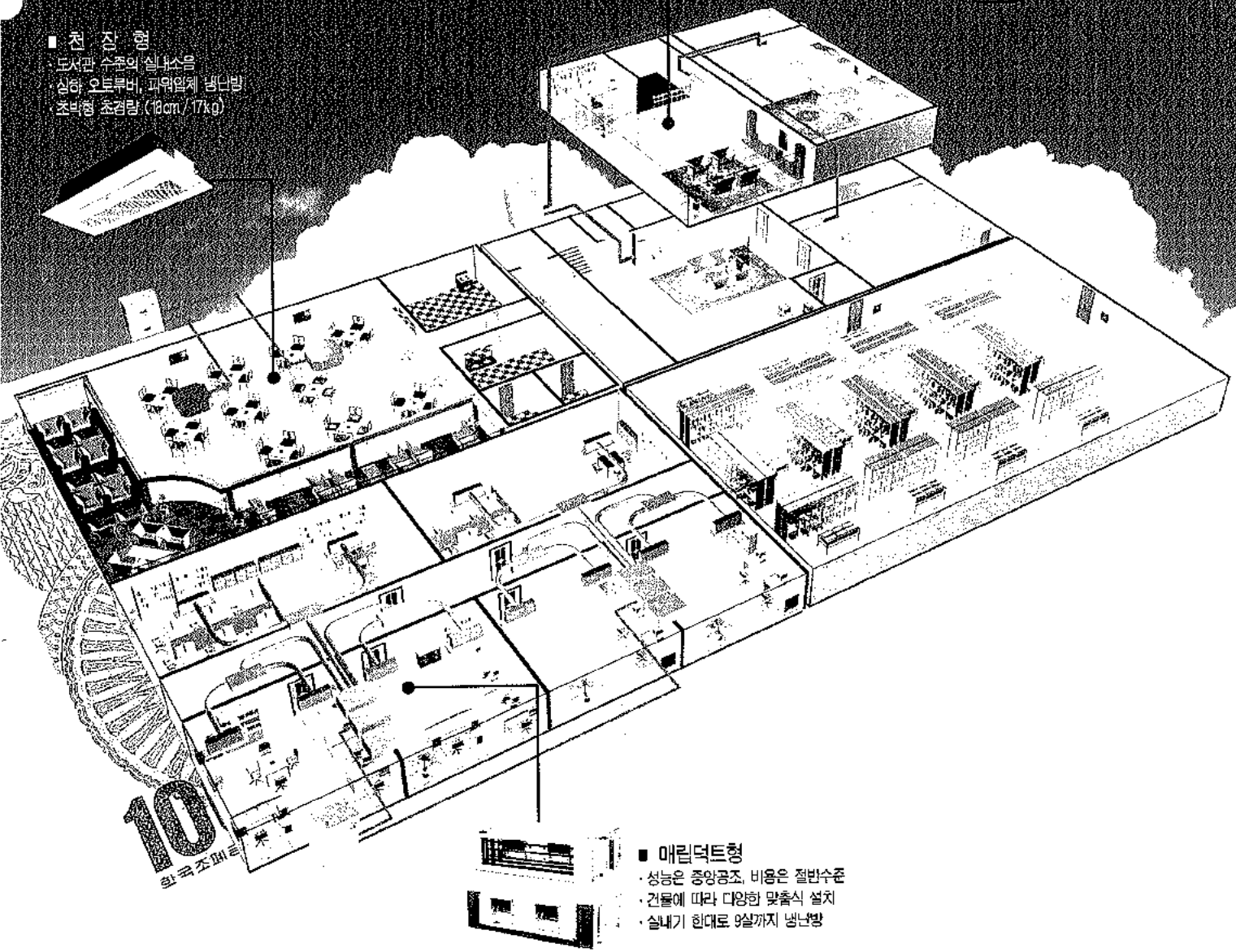
- 칼럼 _____ 살며 생각하며
- 회원작품 _____ 한국경남태양유전 외
- 건축기행 _____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4)
- 해외건축 _____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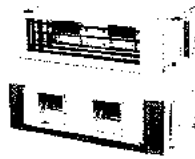
■ 프리조인트 멀티형
· 저렴한 설치비용, 놀라운 냉방기능
· 실외기 1대에 실내기가 여러개까지
· 쾌적한 절전냉방에 편리한 중앙제어



■ 천진형
· 도서관 수준의 실내소음
· 심하 오토루버, 파워업체 냉난방
· 조비형 초경량 (18cm/17kg)



■ 매립덕트형
· 성능은 중앙공조, 비용은 절반수준
· 건물에 따라 다양한 맞춤식 설치
· 실내기 한대로 9실까지 냉난방



중앙공조의 절반비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실속있는 건축주의 선택



■ 교회



■ 몰스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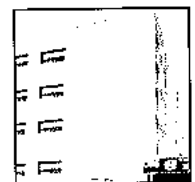
■ 관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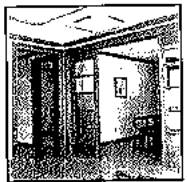
■ 오피스/리모델링 빌딩

LG시스템에어컨

아직도 냉난방설비는 중앙공조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공조환경을 위한 새로운 제안 -
LG시스템에어컨! 최적의 냉난방 설비를 중앙공조의 절반 가격에 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형 에어컨입니다.
강력한 파워냉난방, 손쉬운 설치시공 그리고 LG의 신뢰까지...
LG시스템에어컨으로 하시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 병원



■ 고급빌라·주상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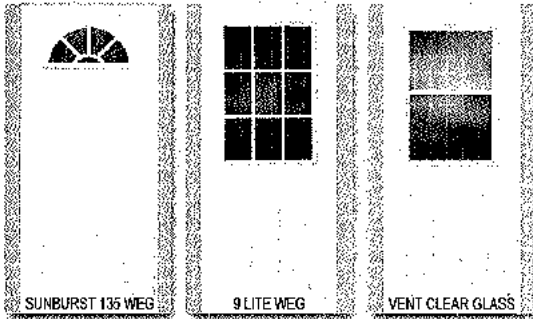


■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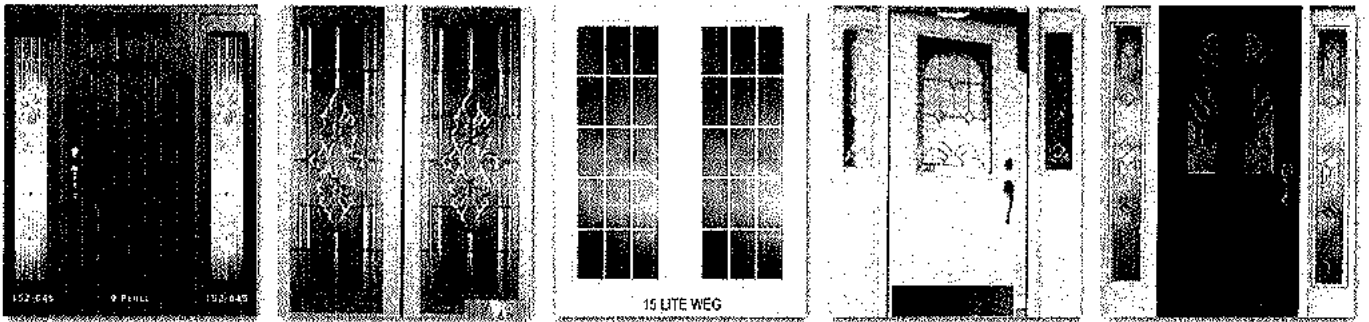
■ 사무실

(주)홈우드 의 자재시리즈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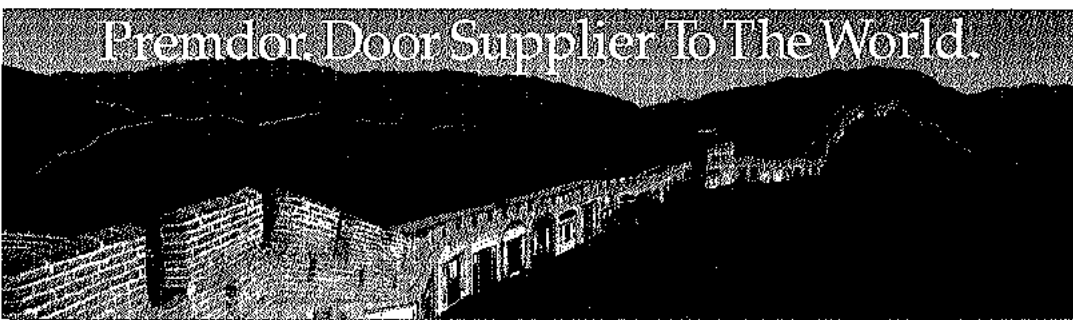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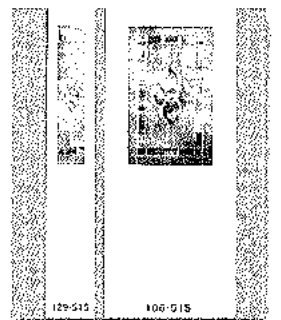
화이버글라스 & 스틸 현관문

HOME 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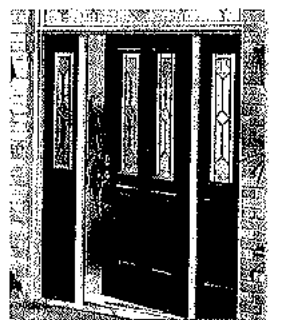


세계적 명성의 도어 전문업체

PREMDOR® 와 함께 합니다.



Premdor Door Supplier To The World.



Products

구조재 / 오일스테인 / 판상재 / 시스템 창호 / 스키퍼라이트 / 글루, 실라콘 / 사이딩 / 문틀, 목창 /
 도어 / 창글 / 빗물받이 시스템 / 타야백 / 인슐레이션 / 석고보드 / 렌트&후버셔터 / 스트롱타이 /
 공구 / 욕실용 자재 / 인테리어 / 가든 시스템 / 계단 / 접성목 / 후로링 / 풀딩 / 특수목 / 책자, 비디오

대표전화 : **031-766-5885** FAX : 031-766-5002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46

<http://www.homewood.co.kr>

E-mail : homewood@homewood.co.kr

꼭 필요한 건축자재를
 최상의 조건으로 만나실 수 있는 곳
 주택자재 전문기업



(주)홈우드



ISO 9002



UL마크



한국인증

국내 최초 난연성 인테리어 산스재

실험신단 등록 제 0218826호

특허출원 제 2000-30887호

특허출원 제 2000-20453호

실험신단 출원 제 2000-361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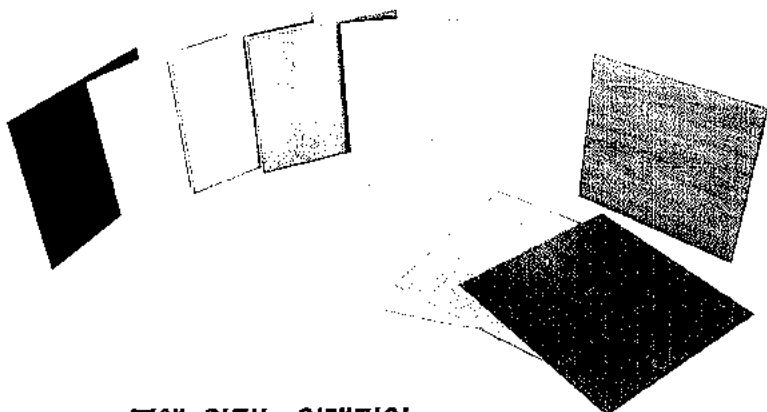
안타민

난연 1·2등급 / 방염성능 검증
소방시설 완비증명

이젠 소방법이 건축법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난연·방염재 사용 의무화!”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공포 : 2001. 3. 20 / 시행 : 2001. 5. 20
소방법 제11조, 동시행령 제11조

500여종의 다양한 무늬와 칼라로 무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창출하십시오

**불에 안타는 인테리어****건축내장 마감재 - 안타민**

★규격 : 4×8ft×0.6T(13.1T)

| Antamine의 적용분야 |

- 관광호텔, 콘도, 여관의 일반 숙박시설
- 아파트, 기숙사, 단독 및 공동주택
- PC방, 호프집, 노래방의 위락시설
- 집회, 공연, 음식점의 문화·접객시설
- 종합병원, 학교의 의료·교육연구시설
- 공항, 항만, 여객터미널의 판매·영업시설
- 아동·노인의 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발전소, 방송국, 촬영소의 공공용시설
- 사무실,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 생활권, 자연권의 수련시설
- 기타 다중이용시설

★건축용도 : 벽체, 천장, 바닥면의 실내마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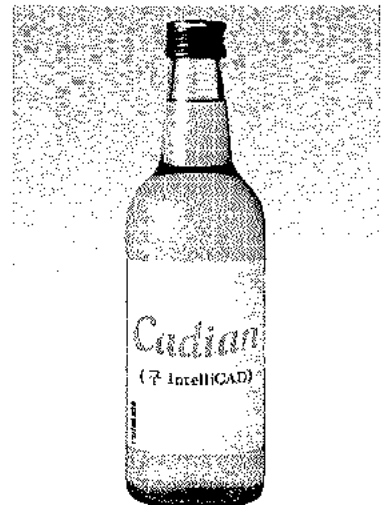
주식회사 서한메라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 (남동공단 165B-6L) TEL : 82-32-815-1674~7 FAX : 82-32-814-4155

<http://www.antamine.com>

세상에 술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드십시오



세상에 CAD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선호하는

대부분의 CAD엔진에서 모두 가동되는 건축 프로그램은
피라미드 밖에 없습니다.

제 품 명	지 원 버 전	가 격(VAT 별도)	비 고
Pyramid 2000	AutoCAD R14/2000i/ADT	800,000	AutoCAD 별도구입
Pyramid LT	AutoCAD LT 2000/2000i	400,000	AutoCAD LT 별도구입
Cadian Pyramid	Cadian 2002(구 IntelliCAD)	600,000	Cadian 엔진 포함가

Pyramid LT 출시 기념 특별 이벤트!

피라미드 정품 100Copy선착순 무상 증정 자세한 내용은 (주)부림캐드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

www.purim.co.kr 을 참조하세요.

전국 협력업체 모집중



(주)부림캐드네트워크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6-5 한스타워5층

전 화 02-851-2638 팩 스 02-853-2637

Homepage www.purim.co.kr E-mail purim@purim.co.kr

공식 지정 랩호스팅 업체



(주)이람소프트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2가 29-32 승진빌딩2층

전 화 02-677-5250 팩 스 02-677-8865

Homepage www.iram.co.kr E-mail ympark@iram.co.kr

소음 없는 세상 - 소리자비



소리자비 - 바닥재, 벽재, 배수관

신개념의 차음재, 일본기술제휴
국내생산임박!!



주식회사 소리자비

www.sorizabi.com

소음이 줄어야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TEL (02) 577-6370 FAX (02) 577-636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42 신한빌딩 7층

이름을 건 서비스! Autodesk Systems Center

(주)라인테크시스템
www.linetek.co.kr
02-569-1814
030-091-1000
ASC Autodesk Systems Center

- 건축/건설 3차원 설계분야의 S/W관련 Help Desk운영과
S/W활용 교육 지원 및 세미나, 건설 정보화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주)캐드콤시스템
www.cadcomsys.com
02-3465-1949
053-652-1898
030-527-0720
ASC Autodesk Systems Center

- AEC 토탈 솔루션 지원센터로 24시간 On-Off line을 통한
실시간 고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코스팩정보
www.cospac.co.kr
02-584-6480
030-900-6480
(주. 건개브)
ASC Autodesk Systems Center

- 건설/건축분야 전산화 컨설팅과 공인교육센터 (ATC)를
통한 교육서비스, 현장 방문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씨.아이.엠 (주)
www.koim.co.kr
02-515-3167
030-511-9775
ASC Autodesk Systems Center

- CAD/건축관련 전문 솔루션 제공과 홈페이지를 통한
1:1 상담 서비스 등 차별화된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Autodesk Systems Center는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최고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쉬지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와 전문협력사들은 2001년을 고객서비스원년으로 삼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단순한 제품공급원의 역할에서 벗어나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컨설팅에서 전문 솔루션 제공, 교육, 기술지원, 시스템 통합까지
ASC(Autodesk Systems Center)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객의 성공을 위해
오토데스크와 ASC가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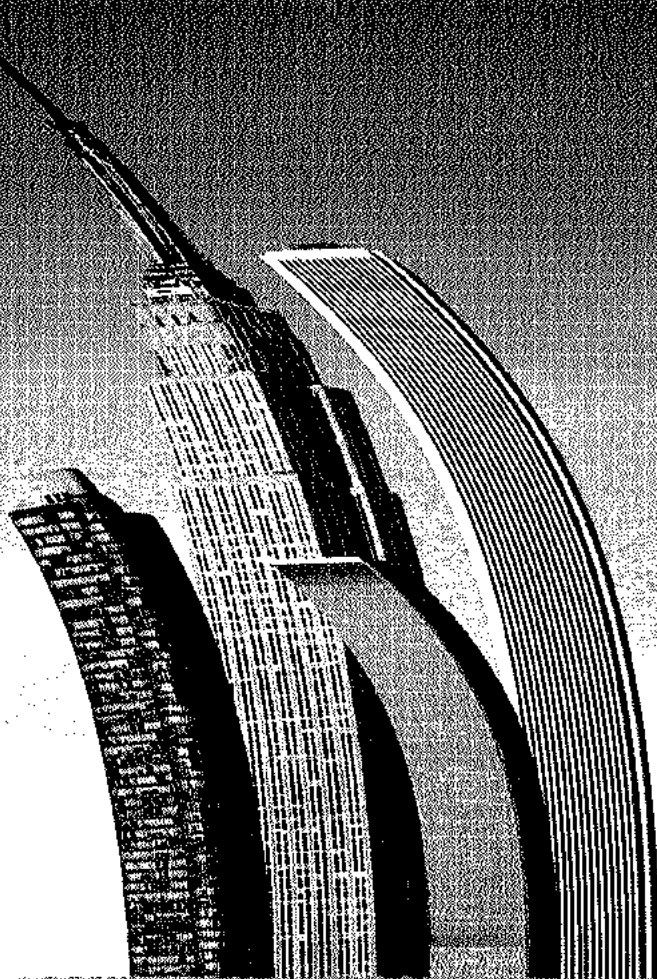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객지원전용 080 무료전화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가까이에서 편안한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R3로

끌리는 이유!

**오토데스크 ADT는
작업을 줄이고 디자인을 위한 시간은 늘려
건축디자인 전과정을 50%까지
단축시켜줍니다**

자료조사부터 공급자와의 의사교환,
지체와 재고의 파악... 언제까지 잔업 처리에
시간 낭비하시겠습니까?
건축가의 생산성 증진, 도면의 정밀도와
조정 기능 향상으로 디자인에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다줄
Architectural Desktop R3가 나왔습니다.
이제, 초기설계에서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디자인의 전과정을 앞서 나가십시오.



건축 전문 디자인의 경쟁력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R3



획기적 생산성 향상

벽, 구조 구성원, 창, 객체와 복합창, 커튼월, 난간, 객체, 지붕 슬래브 등 새롭게 향상된 건축 객체에 의한 설계시간 단축

건축전문가를 위한 최적화된 설계환경

새로운 유형과 도면층 관리, 최소화 버튼기능 등 향상된 인터페이스, 능률적인 명령 및 직관적 도움말 시스템

도면의 정밀도와 조정기능 향상

2D 및 3D 입면도와 단면도는 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물량정보, 연관 치수기입, 상세 루틴 등 건축문서가 더욱 정확하게 조정

- Autodesk PointA (<http://pointa03.autodesk.com>) : 오토데스크 고객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문의,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 Buzzsaw (www.buzzsawkorea.com) : 건축, 건설, 인테리어, 산업디자인 : 1위 B2B 사이트

Autodesk Systems Center

(Design 기반 디자인 데이터 전문 솔루션 제공, 교육, 기술지원, 컨설팅,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문 협력업체)

(주)라인테크 시스템 02)569-1814 (주)케도컴시스템 053)652-1898 (주)스팩정보 02)584-6480 한국세아이.엔씨 02)515-3167

autodesk

(주)오토데스크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우빌딩 17층
TEL: 527-0790 FAX: 527-0799 www.autodesk.co.kr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국내 100대 금융기관 중 대출액 1위이며 자산 50조 1507억 (2000년 9월말 기준)과
지급여력 비율 1,732%인 삼성생명 정책 5부 Seed Bank의 정책지원팀 팀장 양승영입니다.
자금시장의 경색과 금융시장의 급속한 구조개혁으로 운전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문전박대 당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창업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이용하시고,
고객께서 의뢰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500만원~1억원

예상금리 / 연 8%~14.5%

기 간 / 1년~5년 (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경락대금 : 90%까지 대출가능

■ 담보대출, 창업자금대출 특별상담

■ APT소유자, 구입예정자 : 7.5%~9.1%(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7.5%

■ 스피드 학자금 대출

삼성생명대출특선!!



최고액 대출

삼성생명

Seed Bank

최저의 금리

신속한 처리

상담민

02-545-8853~4

삼성생명 정책5부

담당 :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건축설계자가 원해왔던 低 가격과 高 기능!
이젠,
Archifree2000 이
책임지겠습니다.

Archifree2000은
AutoCAD LT 기반의 건축 설계용 3rd Party 프로그램입니다.



비용절감! -75%
생산성은? *2배

2D 건축설계의 완벽제안

ARCHIFREE2000의 판권 제한

AutoCAD LT 2000 + Archifree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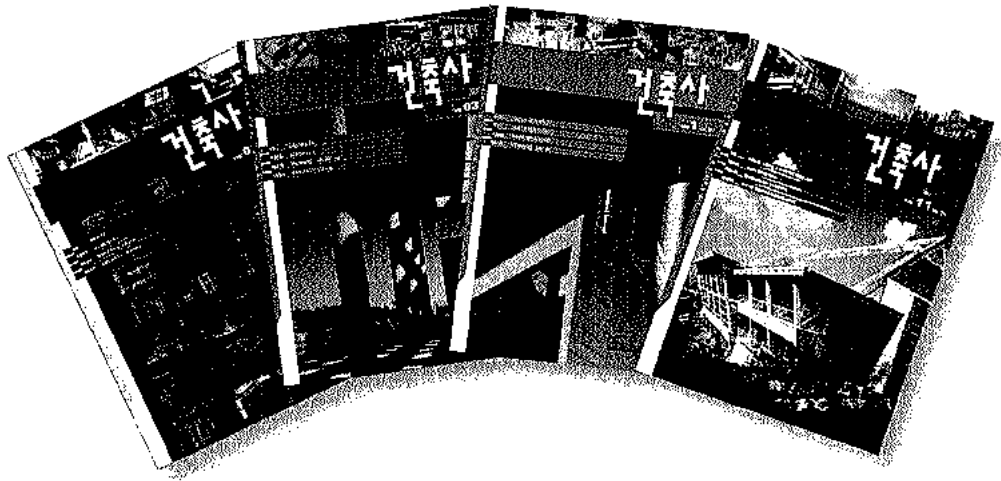
- Style기반의 건축 설계
- 1200여개의 건축 심플
- 층영에서 관리하는 도판층
- 데이터저장 블록
- AutoLisp 사용
- 파지, 문적, 유속표 자동 작성

[협력업체] 서울: (주)모엠아이 02-3462-3111 뉴리컴 02-557-3664 인포캐드 02-597-0337 LED정보기술 02-705-0911
광주: 대와시스템 062-223-0006 GDS 062-522-6167 부산: 부산캐드시스 051-293-6895 석영정보기술 051-517-1668
포항: 에광캐드 054-277-4404 리딩 인포텍 054-472-5661 대구: 한국 데이터 시스템 053-561-1251 국제정보기술 053-604-2944
강원: 두원전산 033-266-4026 전북: 미르 063-277-2171

한국 씨.아이.엠 (주)
www.kcim.co.kr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BL 3층
tel. 080-511-9775(고객지원) Tel. 02-515-3167 (대표) Fax. 02-515-3169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의 광고는 국내 최초의 건축·건설 전문기획사인 (주)한마당21이 대행합니다.



〈단위:만원〉

광고 단가표

표지 4면	표지 2면	표지2 대면	표지3면	내지
250	120	120	100	70

월간「건축사」誌는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가 직접 발행
- 전국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 (약 50,000명)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건축사 약 8,000명)
- 건축관련 단체(협회등) 및 대학교
- 건축관련 정부기관·연구소
- 건축관련회사(건설회사, 자재회사, 정보통신회사 등)



광고문의 _____

전화 : 02-702-1871~2

팩스 : 02-702-1873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빌딩 1503호 (주)한마당 21

스카이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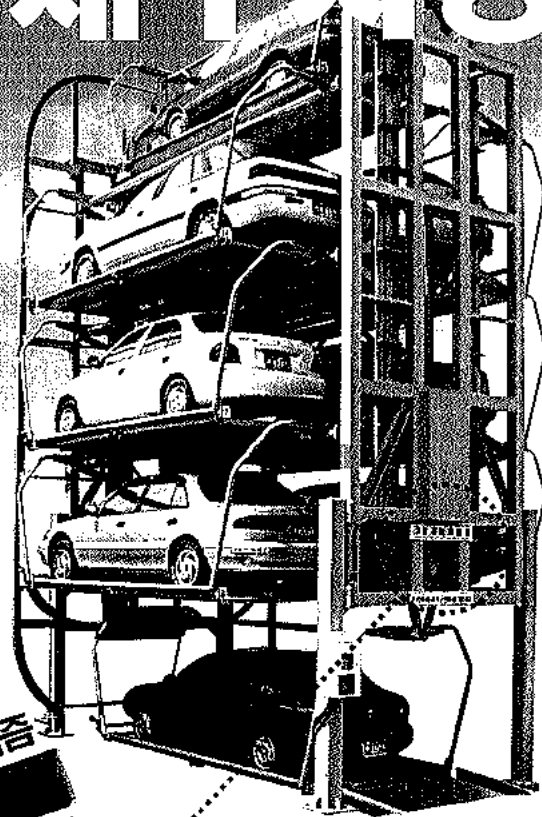
미니로타리식

SKY PARK

입체주차장치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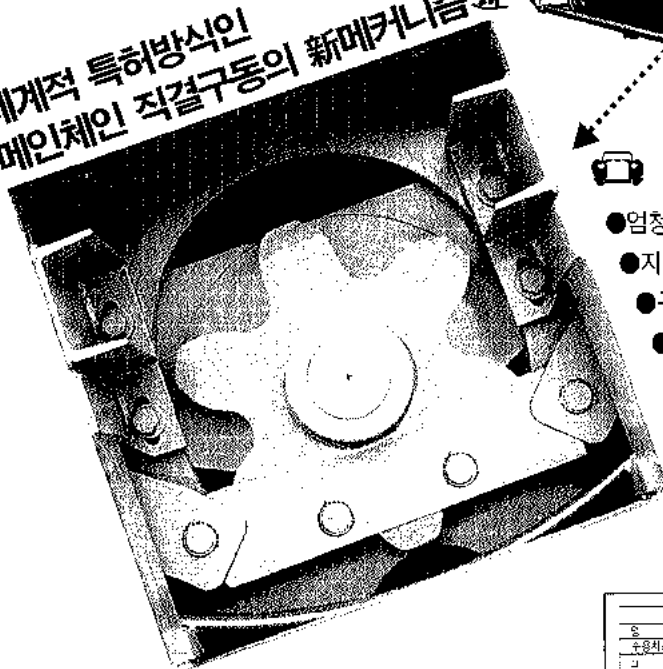


適者生存의 無限競爭時代
"자신 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소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직결구동의 新메커니즘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www.car-park.co.kr)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 (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 **자매품** Pit을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신제품** 지상설치 텐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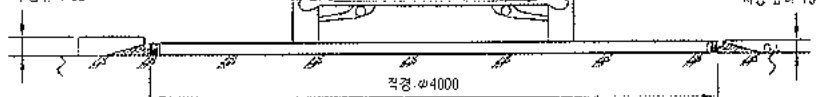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 델 명	수용 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 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구분	지상	지하
구조	지상설치	지하설치
폭	4.57m	4.57m
길이	6.09m	6.09m
높이	75mm	75mm

구동높이: 95



지상 높이: 75

적용: 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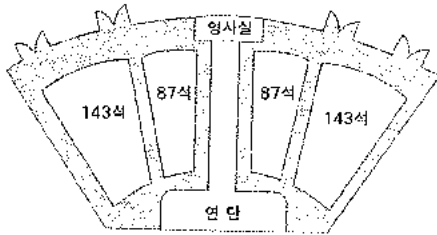
since 1989

아주 특별한 주차회사
창공駐車産業
www.car-park.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271번지
TEL : (053)956-8838(대) FAX : (053)984-1998
P·P : 011-507-8838
E-mail : cgp210@kornet.net
서울A/S센터 : (02)790-2723 부산A/S센터 : (051)784-6721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대강당



대강당(460석)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음악/영사실/무대/무대영사막/흑판/OHP/VPM/SP

1. 사용료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좌석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330,000	66,000

-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09:00~18:00,
동절기(11월~2월)/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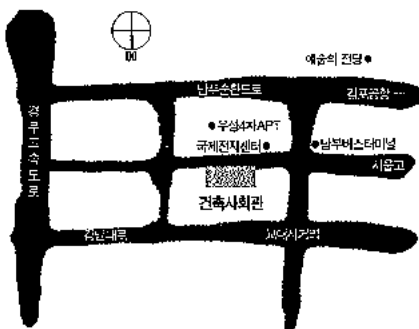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 예식행사 : 90,000원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 × (세로) 90cm

약도



대관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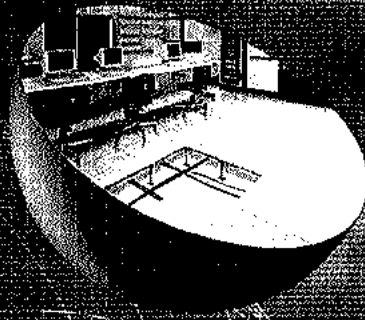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X : 581 - 5711~4

FAX : 586 - 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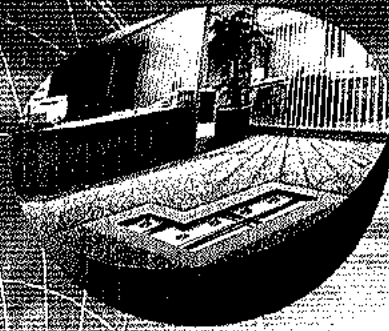
상업용 바닥재도 역시 LG입니다.

만족의 순간 뒤에는
항상 앞선 기술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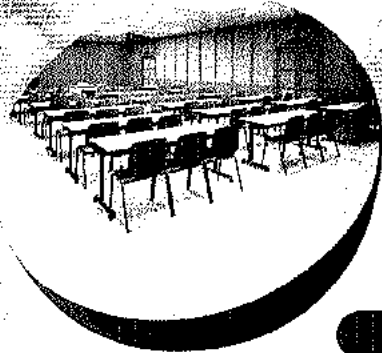
전산실 · 통신시설

- TD FLOOR (무기질)
- LG VIP 전도성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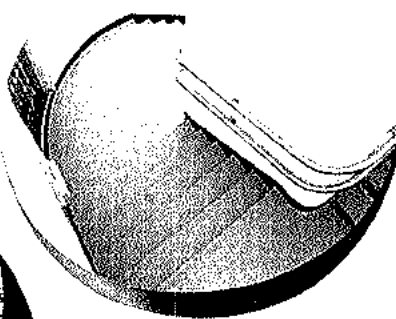
인텔리전트 B/D

- TD FLOOR (무기질)
- LG 카펫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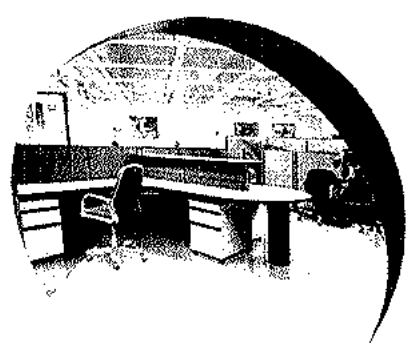
교육시설용

- LG 소프트루
- LG VIP마블



계단용

- LG 소프트루 계단용
- LG 디렉스 타일



판매시설용

- LG VIP타일 마블
- LG 갤러트 타일

인테리어 타일

- LG 갤러트 타일
- LG 디렉스 타일
- LG 카펫 타일

LG화학 기능성바닥재 : ■ LG VIP 타일 ■ LG VIP 전도성 타일 ■ LG 갤러트 타일 ■ LG 카펫타일 ■ LG 소프트루 ■ LG 디렉스 타일 ■ LG TD FLOOR

LG화학 본사 및 영업점
■ 본사 : • 기능성재 PMU : (02)3773-3230~33, 3240 • 특판팀 : (02)3773-3270~71 / 3284~7 • 기술영업 : (02)3773-3291~3 ■ 강서 (02)671-3922~4 ■ 강남 (02)542-5004, 542-5651~2 ■ 강북 (02)545-6514, 542-6496~7 ■ 인양 (031)384-3118 • 수원 (031)382-9724~5 • 성남 (031)388-3650, 385-8782 ■ 인천 (032)431-2296~7 • 부천 (031)435-8138~9 ■ 부산 (051)801-2520~9 ■ 창원 (055)270-7720~6 • 진주 (055)758-3990~4 • 울산 (052)259-7850~2 ■ 대전 (042)630-5631~5 • 천안 (041)583-5561~2 • 청주 (043)276-8541~3 ■ 대구 (053)960-2230~6 • 포항 (054)281-9688 ■ 광주 (062)360-3670~5 • 전주 (063)250-4350~2 • 순창 (061)743-4430~2 ■ 김흥 (033)653-8821~6 • 원주 (033)748-0645 ■ 제주 (064)742-8780~4 ■ C/S 080-022-1230 ■ LG테크빌공동전시점(서울) : 외건축장식자재종합전시장 (02)3489-7389~90

차례 2001 6 386호



한국경남태양유전(허정도 작)



발행인: 우남용
 편집위원: 위원장 / 박영식
 위 원 / 김석환, 김수경, 목대상, 최동규
 편집취재: 홍보·편집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종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 (주)한마당21 (02)702-1871~2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칼럼	살며 생각하며	조인숙	18
회원작품	한국경남태양유전	허정도	22
	신령성당	김무권	30
	정천농협	추원호	36
현상설계	고흥군 실내체육관		38
	영주우체국		42
	서산우체국		46
	서울시립대학교, 환경디자인관 및 국제교류센터		50
	구로송무사무소		56
건축기행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4)	김석환	62
기고	북한 도시개발에 관한 제안	김학철	70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완)	한동수	74
해외잡지동향			80
건축만평		유원재	86
건축마당	협회소식		87
	건축계소식		89
	신기술 신자재		96

Column

Thinking with living	Cho In-Souk	18
----------------------	-------------	----

Works

Korea Kyongnam Taiyo Yuden Co., LTD.	Heo Jeong-Do	22
Silryeong Catholic Church	Kim Mu-Kwon	30
Jeongcheon Nonghyup	Choo Won-Ho	36

Competition

Goheung-gun Gymnasium		38
Yeongju Post Office		42
Seosan Post Office		46
Environment Design &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The University of Seoul		50
Guro Crew Office		56

Architecture Travel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Kim Suk-Hwan	62
---	--------------	----

Feature

A Proposal for Urban Development of North Korea	Kim Hak-Cheol	70
---	---------------	----

Overseas Architecture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Han Dong-Soo	74
--	--------------	----

Overseas Journal

		80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87
Archi-Net		89
new materials		9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답신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5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61-6989 · 관악구건축사회/86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8-5781 · 도봉구건축사회/054-125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8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5-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양양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0-2698 · 이정부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5-0140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삼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5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8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목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태백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0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6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1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시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8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3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6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6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8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간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일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2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3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9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살며 생각하며

Thinking with living

조인숙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by Cho In-Souk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pens... into another room, another space, other happenings.
There are many doors to open and close in our lives.
- loving and leaving the good life by Helen Nearing*

최근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본다.

건축분야의 모(某)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행사를 통해 느낀 일이다. 규모가 작은 학회이다 보니 행사준비를 회원들이 서로 나누어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필자에게 배정되었던 일은 기념연회준비였다. 준비와 행사,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나서 새삼스럽게 사회와 도시, 건축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는 기금조성과 사회현상에 관하여, 둘째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셋째는 계획성과 즉흥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건축분야의 여학생들 및 그들의 앞날에 관하여 생각해봤다.

첫째 기금조성과 사회현상에 관하여: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정작 학술연구를 하는 집단은 명분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회원들의 대부분이 재직교수이니 학회살림이 뻘해서 행사비용 및 기념학술지 집필과 책자발간비용 마련을 위해 회원 몇몇이 나누어서 모금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 중에 몇 가지 주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는 도와주실 만한 선배들께 손을 벌리려니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려니 대다수의 학회회원들이 건축사사무소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학자들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회의 연구물이 설계자나 시공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었다. 소위말해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 기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것이었다.

우선 동문잡필자도 없고 회장단도 아니고 하니 동문에게는 손 벌리기가 어려웠었다. 학연도 지연도 아닌 동료 A사무소에 찾아갔었는데 뭐 좀 도와줄 듯 하더니 손익 계산을 해보고는 그 회사가 학회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수락했던 분들도 예상외로 소액을 보내셔서 건축분야의 불황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둘째, 여성에 대한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고정관념과 배려에 대하여:

몇 안 되는 상임이사 중 유일한 여성이라고 연회준비에 뽑혔다. 아저씨들의 고정관념 속에 '여성=파티'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이니까 각 학교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여학생까지 동원하여 철저한 준비를 했고 여학생들의 눈부신 활약과 남학생들의 보조로 당일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어렵게 모은 돈이라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연회는 출장파티를 포기하고 사무실에 있던 기존집기를 활용하여 조출했지 만 궁색하지 않게 끝냈다.

한편 학술회의 집필진 및 회의 사회자를 정할 때에는 여성 연구자나 학자는 아저씨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집필진을 정한 것은 내 담당이 아니라 보고만 있었지만 이사회에서 학술행사진행을 정할 때 겨우 한사람을 천거하여 사회자로 넣었는데 그 여교수가 여성자격으로 맡겨진 사실에 대해 그리고 그 추천을 여성이 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었 노라고 행사 후 농담반 진담반의 얘기를 해왔다. 대학의 건축과에 많은 여학생들이 다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너무 드물기에 대등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려고 사회자로 천거했던 것인데

깊은 뜻을 몰라준 것이다.

사실 우리 건축분야 풍토는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단어가 없다. 학교 안배는 하면서 성별 안배는 안 하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가 전통적으로 남성인 분야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 여성 하면 주거건축을 전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연회 담당을 맡기는 것은 한편으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고 다른 한편으로 영광스런 일이지만, 같은 연구자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각분야에 집어넣으려는 의지와 아량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는 계획성과 즉흥적인 추가지출에 대하여:

연회준비에서 아쉬웠던 점은 예산이하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한 것이 부족할 것 같았던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예정에 없이 케이크를 사다가 일회용 접시에 담아 사이사이 끼워 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원수가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전체 계획은 흐트러졌고 맛과 색과 비례와 조화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

이번 연회준비에서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일회용소모품을 안 쓰고, 한가지 주된 음식과 그 것에 맞는 마실 것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꽃 장식이었다. 먹을 것과 마실것과의 조화와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분명한 상차림이 목표였다. 그러나 예산에도 계획에도 없던 것이 어쩔 수 없이 마구 들어가게 된 것이다.

주택이 모자란다고 갑자기 주택을 더 짓고, 급하다보니 아무렇게나 지은, 생각 없는 건축물들로 도시가 망가졌듯이 상차림의 그림이 본의 아니게 망쳐진 것이다. 한 번 이질적인 것이 들어가자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었다.

건축에서는 공사비와 그 품질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설계와 내역을 만들어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고객이 큰 낭패를 보게된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던 그림을 몇 번 그려보고 가격을 뽑아 본 다음에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 하나가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건축사라는 직업의 속성인데 설계와 견적에 없는 품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좋은 것이 많은 줄 알아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절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실이 허락하질 않았다. 떡이 주식인데 그 옆에다 케이크를 놓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면에 네모난 창이 주된 요소인데 예를 들자면 설계 경험 없는 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벽면이 비었다고 동그란 창 몇 개 더 뚫는 것과 같았다. 즉흥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초과하면서 본의 아니게 전체계획을 흐트러지게 한 것이다. 신뢰가 안되어서 그랬을 것이다

제대로 된 도시는 시민의 수준과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 된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조그만 건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지 않나. 상차림같이 사소한 일에서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조화로운 도시와 건축을 학생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건축분야의 여학생들에 관하여:

요즘 대학원에 건축전공자 여학생들이 많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답사도 열심히 다니고 아주 적극적이다.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에는 주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여성이 해왔던 일은 사소한 일일수록 뒷전이다. 물론 사회는 변했고 여성의 역할도 달라졌다. 입시 공부하느라 인성교육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하

는지를 배운 적이 없다. 게다가 대학원쯤 다니면 전문분야의 주역으로 살아갈 길을 추구하느라 사회의 일원으로써, 여성으로써 사회봉사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수준 있는 사교라든가 친교라든가 하는 것을 겪어 볼 기회가 없어서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그래도 이번 행사에 동원되었던 건축과 석사 및 박사 학생들은 제법 우수했던 것 같다. 필자는 여학교시절 6년간 간부훈련 및 지도자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오즈음은 입시 때문에 부모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 학교는 60년대 당시 중 고등 학생들을 사회의 봉사자로서, 지도자로서 지낼 수 있도록 자질훈련을 시켰었던 것이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것이 대학졸업 후 지금까지 25년간의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공부를 많이 한 대학원 졸업한 여성을 만일 내 사무실에 채용하라면 아마 거절할 것이다. 물론 사무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사회선배로서의 도리로 한 두 사람쯤 함께 작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이 틀림없이 일을 잘 하리라 믿으나 지도교수와 제자의 관계가 한번 성립된 학위과정 출신자들은 지도교수 이외의 사람들은 다 하찮게 여기고, 설계분야에서 생명이 짊고 바람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라 함께 지내면서 부대끼기 싫어서이다.

오즈음 느끼는 것인데 어디에 첫발을 딛는가가 끝까지 가는 행보를 결정하는 것 같다. 대학원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은 결국 학계로 진출을 하게되고 설계분야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공부를 보충해도 대체로 설계분야를 지키게 되는 것 같다.

얼마 전 독일 대학의 해당학과 소개 홈페이지를 보다가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 학과를 졸업한 후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자기가 앞으로 생업으로 할 학문분야를 대학의 전공으로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이란 학문의 연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진학하는 곳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대학은 학문과는 거리가 멀어도 무조건 진학하며 점수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졸업을 한다. 건축분야만 해도 설계, 구조, 시공, 그리고 환경으로 나뉘질 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괄이 안 되어있다. 사실 전국관공서 및 각종기업체나 단체에까지 건축과 출신이 필요하나 그런 줄을 모르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전문화랑 등에서도 그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건축전공 학생들은 미래의 다다오 안도를 꿈꾸고 뽀얍하이스를 꿈꾸면서 현실과는 유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고교 및 전문대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일도 대학(원) 졸업자들이 하다보니 그들의 업무는 생명도 짧고 게다가 어설픈 지식이 장애물이 되어 사회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전체가 이러니 여학생 졸업자들은 취업에 있어서는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건축과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각 분야를 찾아내어 젊은 미래의 건축가들에게 희망을 좀 주어야 할 것 같다. ■

한국경남태양유전(韓國慶南太陽誘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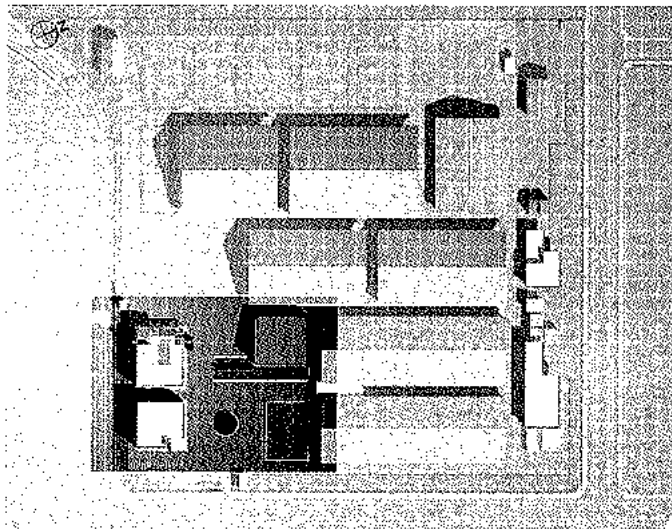
Korea Kyongnam Taiyo Yuden Co., LTD.

허정도 / 서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eo Jeong-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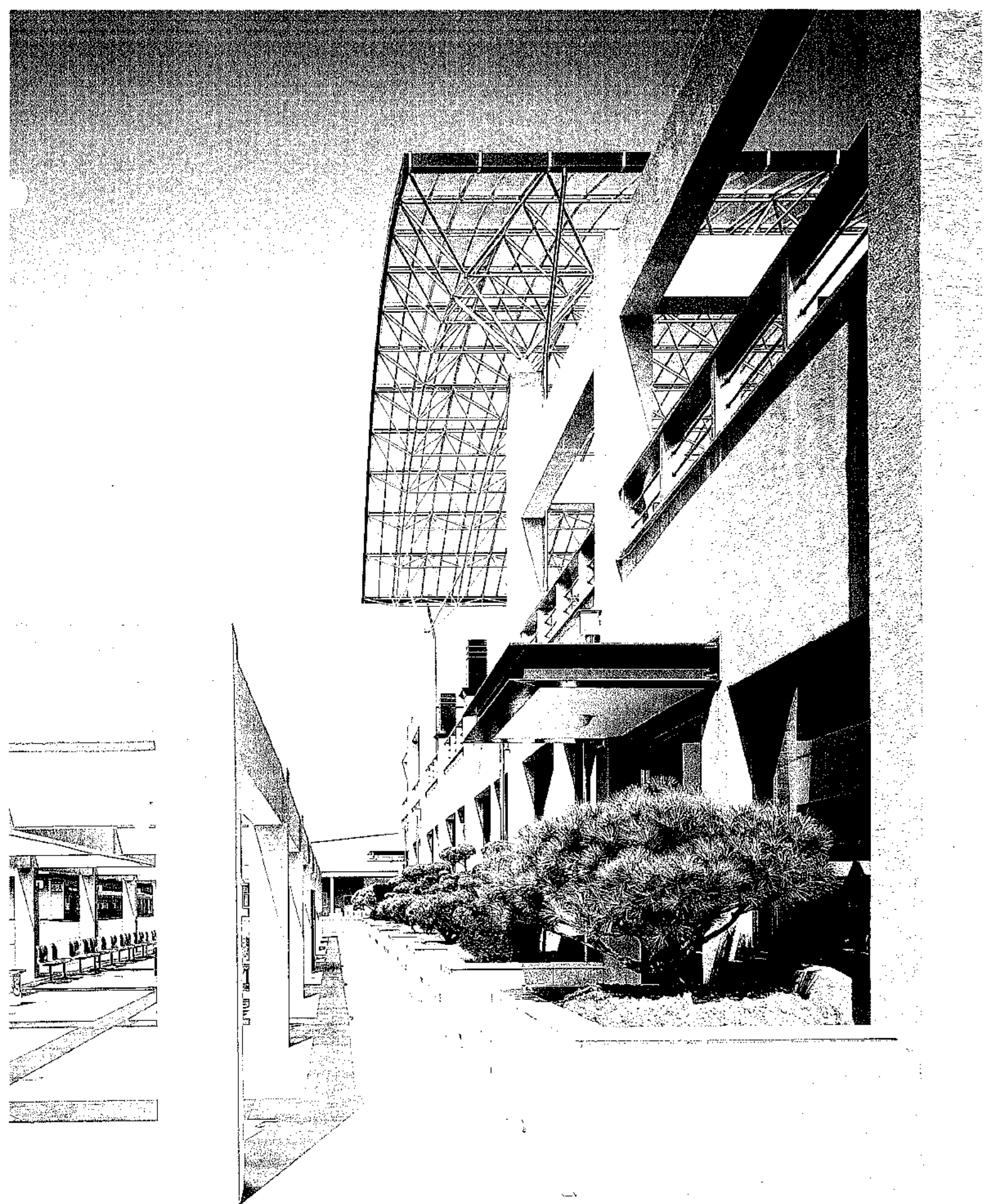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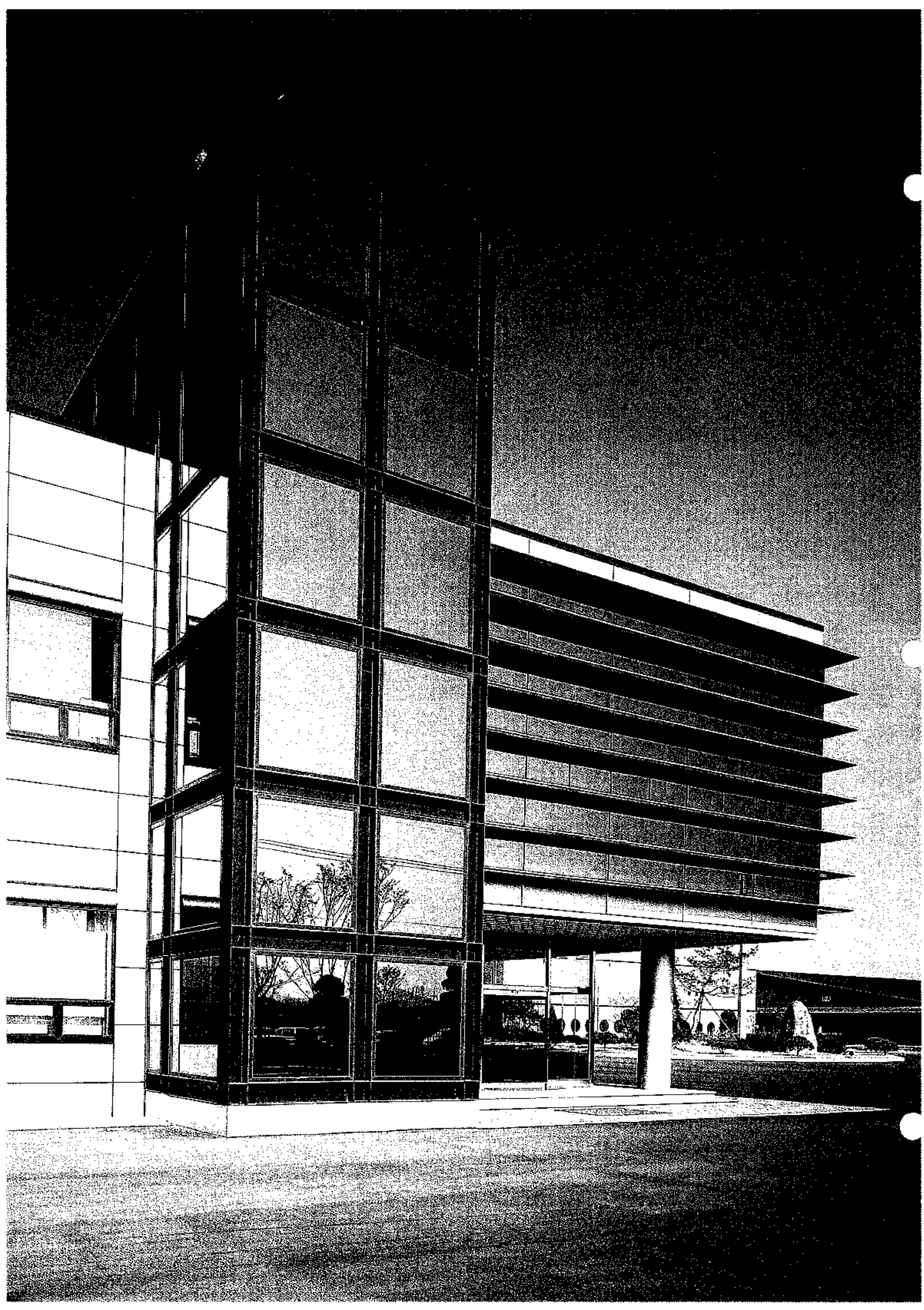
위 치	경남 사천시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 7블록
지역·지구	전용공업
대지면적	171,692.03㎡
건축면적	66,538.03㎡
연 면 적	65,424.83㎡
건 폐 율	38.75 %
용 적 륜	38.11 %
규 모	사무동, 식당동 - 지상 2층 / 공장동 - 지상 1층
구 조	사무동, 식당동 - 철근콘크리트조 / 공장동 - 경량철골조
외부마감	외벽재료 - 드라이비트, 지붕 - 아연도판접기
외장재료	폴리메탈패널, 아이소코트 / 공장동 - 폴리패널
설계담당	진한기, 전성룡, 정승민
사 진	이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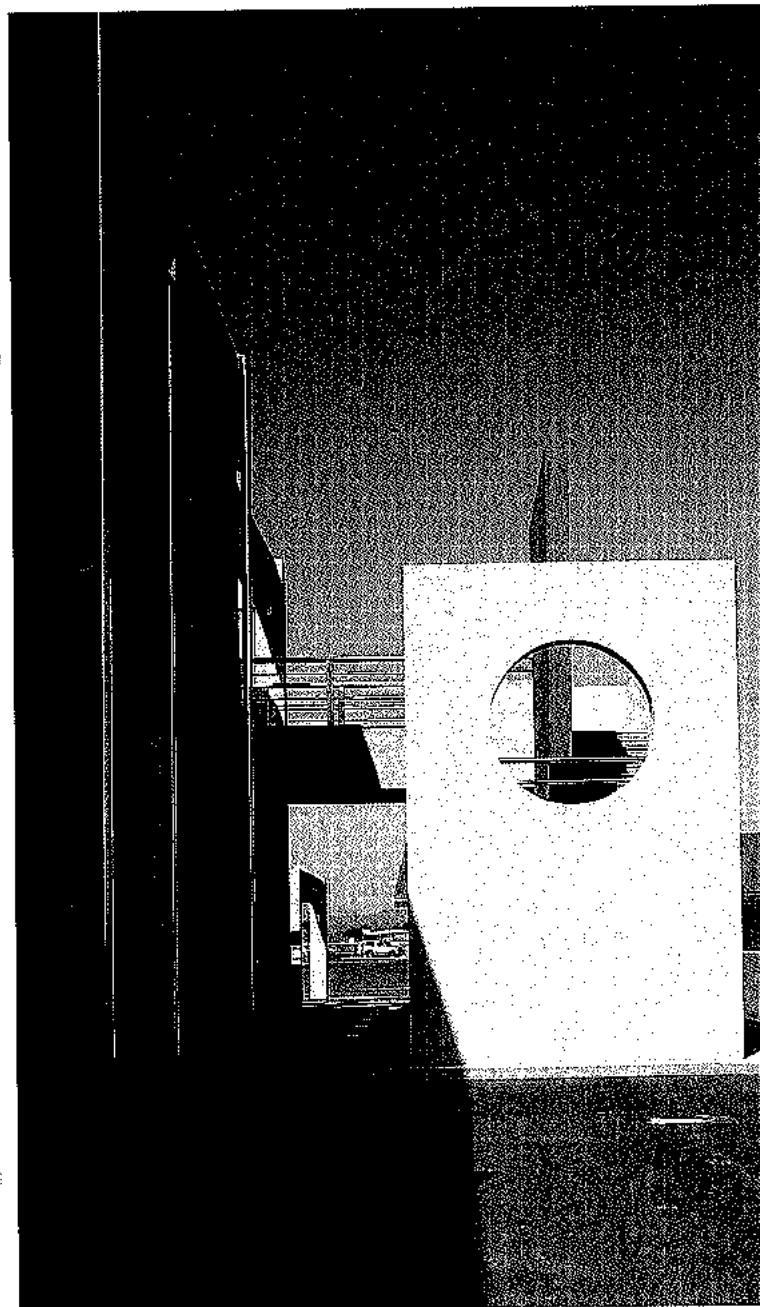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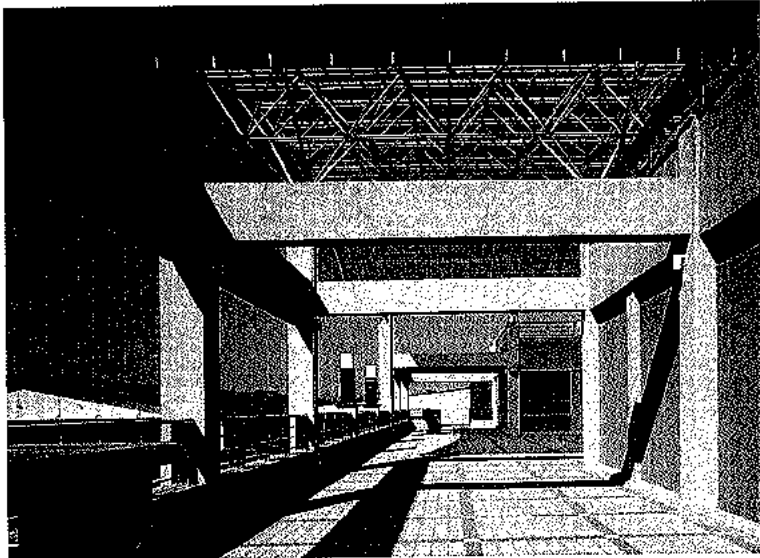


배치도









제작년 8월, 무더웠던 어느 날 오후.

KTY(Korea Taiyo Yuden)로부터 건축에 관한 협의 요청 전화를 받았다. KTY는 일본에 본사가 있는 한국 현지 법인으로 중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 현지 법인을 가진 일본기업이다. 한국에는 마산과 통영에 독립법인이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콘덴서(condenser)다. 우리 사무소와 KTY의 인연은 십 수년 전 크립톤 증설로 인한 설계 때문이었다. 첫 미팅은 일본 TY 본사에서 건너온 젊은 엔지니어의 신축 건물 내용 설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름이 다카하시라고 했다.

내용인즉, 적지 않은 규모의 전자공장을 짓는데 그 안에 특수한 시설을 갖춘 다양한 건물들과 여러 종류의 실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지을 공장의 위치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나는 TY의 건설 계획에 대한 몇 가지의 조건과 국내의 건설업체 사정, 그리고 건축 재료 시장 등에 관해 설명했다. 십 수일이 지난 후 다시 연락이 왔다. 또 처음과 비슷한 회의를 하고 헤어졌다. 며칠 후 다시 이런 회의를 했다. 그 뒤 몇 번을 반복해서 비슷한 회의를 했다. 대지의 위치도 모든 채, 설계자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채 계속 회의만 했다. 다시 십여 일이 지난 후, 현장을 보러가자는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땅을 보았다. S건설에서 조성한 경남 사천의 진사지방산업단지는 넓고 광활했다. KTY가 위치할 대지는 잘 닦여진 사각형 평지로 한 눈에 그 형상을 알 수 있었다. 오만 이천여 평의 좁지 않은 대지였다. 산업단지조성공사 현장사무소에 들러 지형 지물에 관한 도면을 비롯하여 설계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구했다.

9월 중순, 말레이시아 쿠칭(kuching)으로 날아갔다. 거기에는 TY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이 있다. 공장건물과 생산시스템을 낱알이 살펴보고 숨길 겨를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도중 태풍을 만나 도착 직전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회항하는 위험을 겪기도 했다. 쿠칭은 한번 기본 곳이라 둘러보고 싶은 곳도 있었지만 일정 탓에 그럴 틈이 없었다.

9월 하순,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설계를 맡기 위한 경쟁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TY의 내부 시장에 의해 공사를 1, 2차로 나누어 시행한다고 했다. 1차 설계는 공장 3동을 비롯하여 사무실, 복지관, 창고, 도금공장, 유틸리티 등 건물 13동, 합 12,000여 평의 적지 않은 규모였다. 계속되는 회의와 그 결과에 따른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워낙 바쁘게 움직였던 터라 힘든 줄도 몰랐다.

건축주의 주문

설계 시작 시점이 좀 늦었지만 공장 건물은 2000년 4월까지 반드시 완공해야 한다. 석 달간의 시험 가동 후 7월이 되면 제품이 생산되어야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건축주를 대신해 현장에서 공정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건축에 관한 모든 판단을 맡길 테니 반드시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나에 대한 KTY의 주문이었다. 설계자에게 건축주가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자연히 설계는 공기가 줄어드는 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기를 줄이기 위해 약간의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별 문제삼지 않았다.

工場

모든 건물들이 그렇지만 특히 공장건물은 기능이 우선한다. 공장



설계의 관건은 생산적 기능과 인간적 기능의 적절한 조화다. 그러나 이 작업 중, 생산과 관련하여 두 기능의 관계에 대한 깊은 연구는 없었다. 아니 시도해볼 틈도 없었다. 단지 KTY의 설계지침에 의해 내구성과 공사기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구조와 공법만을 생각했을 뿐이다. 이 공장은 각종 설비의 수준이 높아 천정 속에 복잡한 배관 배선시설이 있다 하여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천정 속에 들어갈 시설물공사와 천장 아래 실내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면 공사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건물의 지붕만 덮고 나면 바로 천정공사를 한 후, 천정판 위에서는 배관 배선공사를 하고 천정 아래에서는 내부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다시 말해 배관 배선공사를 내부비계 없이 천정판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방법으로 천정 공사비는 조금 더 들었지만 공사기간을 상당히 앞당겨 결과적으로 비용도 많이 절감하게 되었다. 이 외에 기초형식과 구조 및 마감방식 등 여러 곳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대부분의 건물이 그렇지만 특히 공장의 형태는 지붕 모양에서 결정 지워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TY에서 지붕은 차마가 있는 박공으로 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가장 하자가 적게 생긴다는 경험에 기초하여 내린 결정이라 못 바꾼다고 했다. 바꾸고 어쩌고 할 시간이 우선 없었다.

진입공간, 그리고 그 주변

이 공장은 24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을 택한다고 했다. 한 밤중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다. 오래 된 소설, 고리끼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둡고 스산한 공장 정문으로 향하는 야간 출근자를 묘사한 대목이 있었다. 한 밤중에 출근하는 사람들, 새벽녘에 퇴근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건축적 장치는 어떤 것인가? 라는 기본적 질문 앞에 섰다. 우선 밝고 정갈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했다. 다소 낭만적인 분위기의 야경이라면 더욱 좋겠고... 결론은 물이었다.

京都의 concert hall에서 만났던 이소자키의 물, 노란 강 자갈 위로 눈부시게 빛났던 그 맑은 물을 생각했다. 조명등에 반사되는 밤의 물은 낭만적 상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나의 생각들

은 직사각형의 반듯한 600여 평 수공간이 되어 건축주에게 제안되었다. 경험으로 미루어 단번에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고맙게 들어주었다. 설득하기 위해 준비해간 많은 어휘들은 쓸모 없게 되었다. KTY경영자의 건축에 대한 이해가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지를 아무 쓸데없는(?) 물로 채운 것이다. 진입공간은 물을 중심으로 넓게 개방시켰고 그 주변을 시설물들이 위요(圍繞)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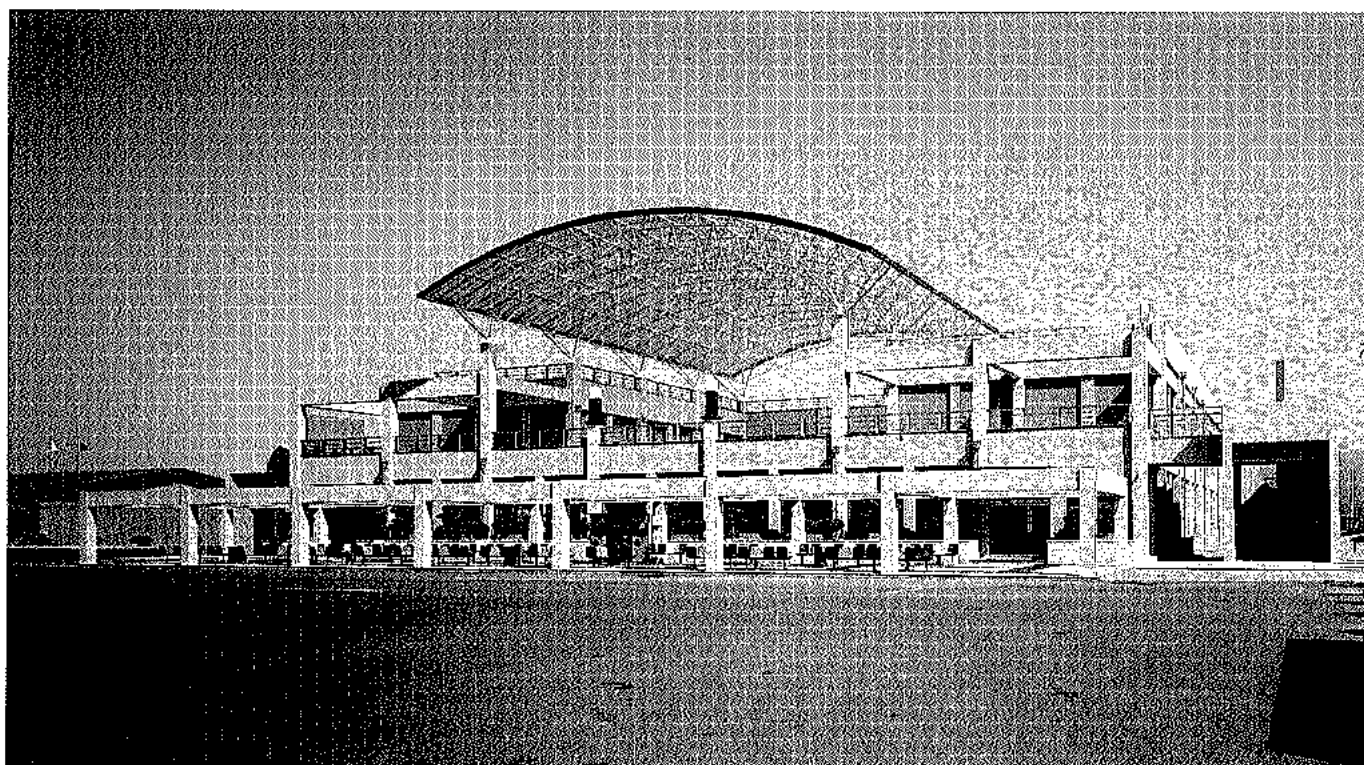
工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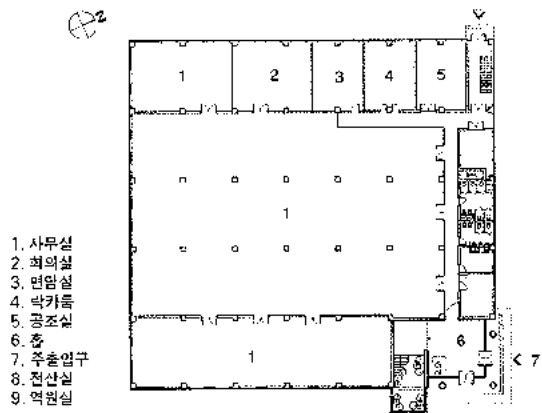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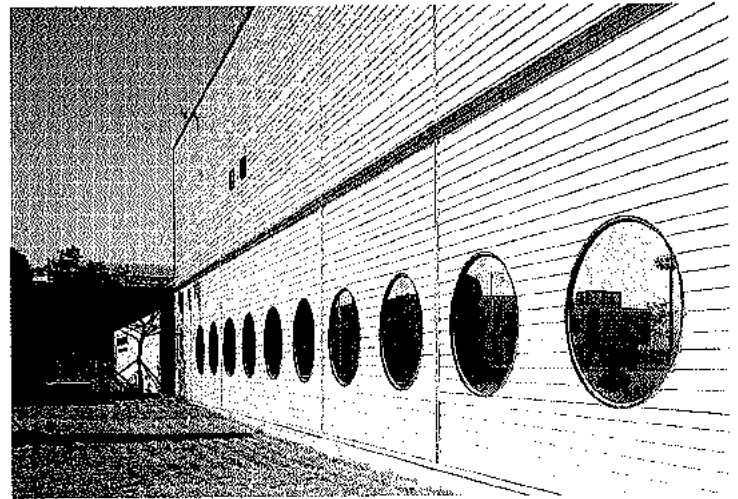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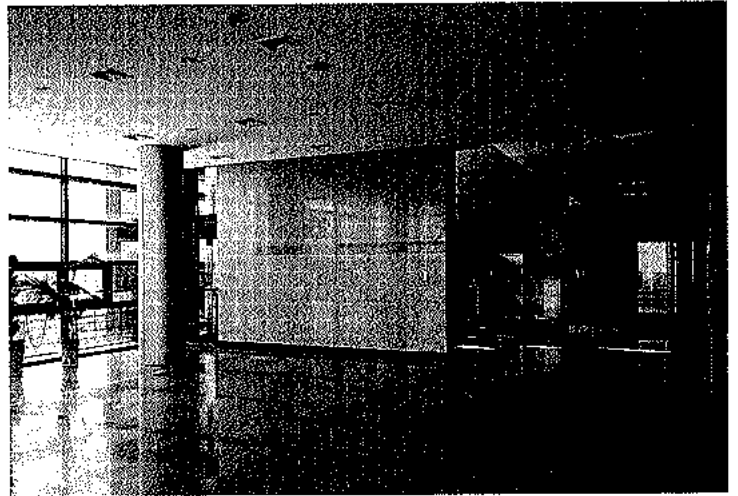
1999년 11월, 텅 빈 공간 한 복판에 둔탁한 소음이 난무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골절이 많았지만 작년 4월 예정된 날에 건물은 정확히 완공되었다. 이어 공장과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8동 약 8,000평 규모의 2차 설계를 시작했다. 한번 해본 터라 2차 공사는 손쉽게 작년 12월 마쳤다. 총 21동 20,000여 평의 건물이 설계시작한지 16개월만에 끝났다. TY 중국법인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규모를 시작했는데 그것과 비교하는 말도 많았다. 공정을 돕기 위해 사무소에서는 네 명의 직원이 상주했으며 나는 주간 공정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주 1회 현장으로 나갔다. 계획하고 한 일이지만 무사히 계획대로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 건설회사의 세밀한 공정계획과 밤낮없는 노력, 그리고 KTY의 적극적인 지원 결과다. 준공식을 하던 날,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지어진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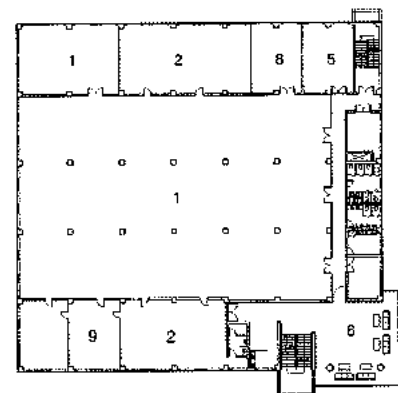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나라에 투자하기로 결정된 사업을 마산에 있는 한국태양유전(KTY) 최고 경영자가 일본의 본사(TY) 경영진을 설득하여 우리 나라로 유치시킨 프로젝트로서 경상남도의 외자유치정책과 맞물려 경남도지사도 직접 나서서 추진한 계획이다.

며칠 전, 건물 사진을 액자 2개로 만들어 KKT(신속한 사천공장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이라고 부른다)로 보냈다. 사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업을 시작한지 20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껏 생생한 것은 그때의 그 '숨가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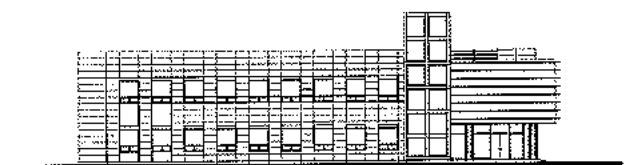
사무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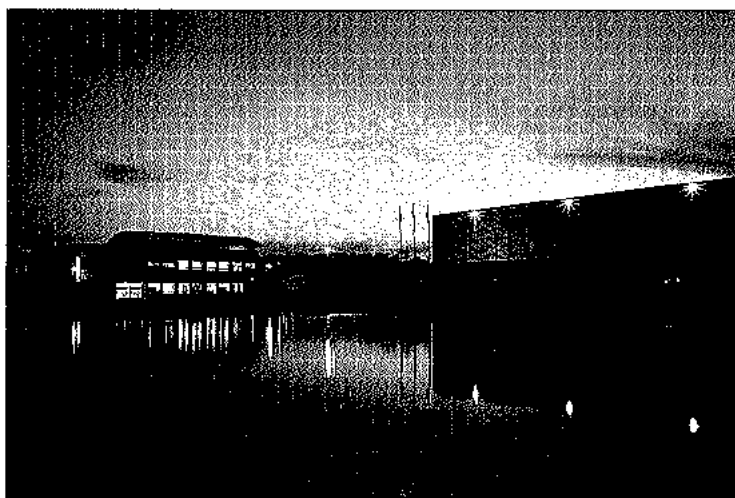
사무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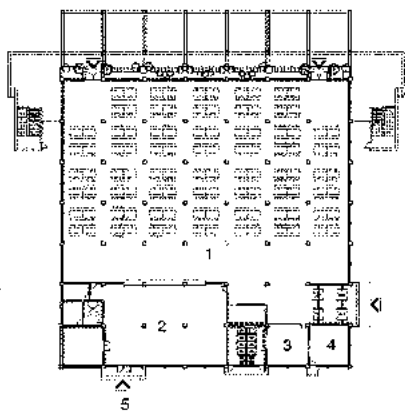
사무동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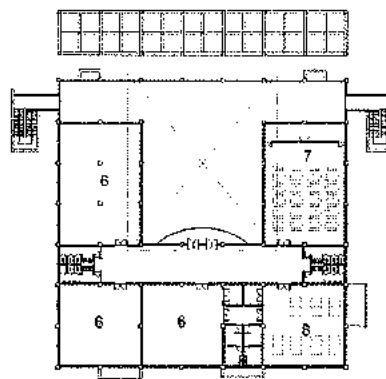
사무동 정면도



1. 식당
2. 주방
3. 매점
4. 외부실
5. 식품반입구
6. 사무실
7. 회의실
8. 담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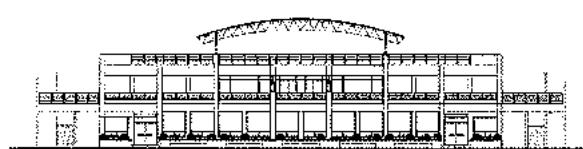
식당 1층 평면도



식당 2층 평면도



식당동 좌측면도



식당동 배면도

신령성당

Silryeong Catholic Church

김무권 / (주)현대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Mu-Kwon

건축개요

위 치	경북 영천시 신령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4,245.00㎡
건축면적	732.48㎡
연 면 적	1,063.02㎡
건 폐 율	24.26 %
용 적 륜	32.05 %
규 모	지상 2층(성당 중축부분)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외벽-붉은벽돌 치장쌓기 지붕-동판, S형 스페니쉬 오자 기와
설계담당 사 진	이승준, 태영규(구조) 채수옥

경산에서 안동방면으로 향하는 길을 가다보면 팔공산이 넓게 펼쳐져 보여지고, 동쪽기슭에 위치한 은혜사를 지나치면 신령면에 다다르게 된다.

주도로에서 벗어나 6m도로의 접근도로로 접어들면 주거지역속에 위치하고 있는 성당에 도달하게 된다. 주변환경들로 인해 다소 가려진 성당은 전체 모습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다. 나즈막한 조경만으로 이루어진 도로와의 경계로 전체적인 성당의 경관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아기자기한 모습을 하고 있다.

조그마한 마을속에 자리잡은 성당은 요즘 많이 지어지는 도시 풍경속의 성당들 모습과는 다르게 주위의 자연환경에 순응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지니고 있다. 도심속 성당들의 오픈공간들이 주차장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과는 달리 이곳의 오픈 공간은 잔디와 조경으로 이루어진 열린 마당이 될 것이다. 비워둔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옥외의 야외활동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 같다.

남동측의 주출입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부담감없는 규모의 성당과 사제관으로 기존에 있던 성당(경당으로 활용)과 수녀원이 함께 어우러져 치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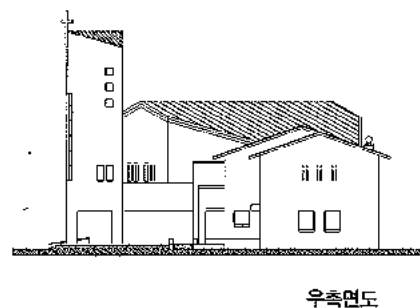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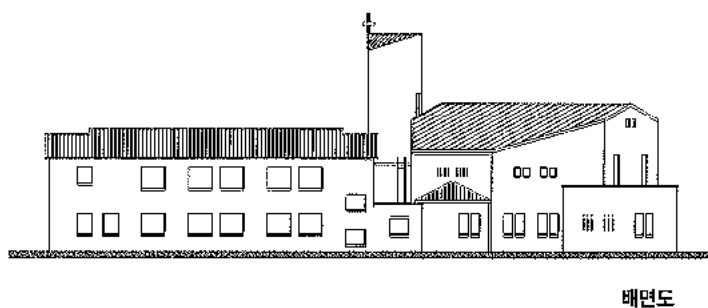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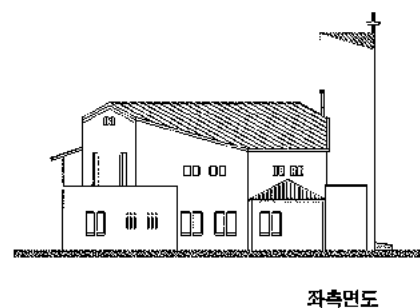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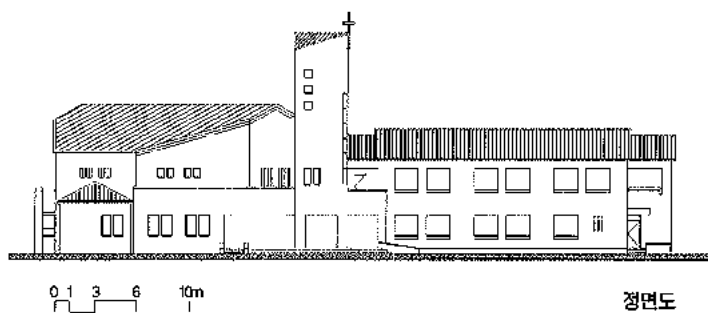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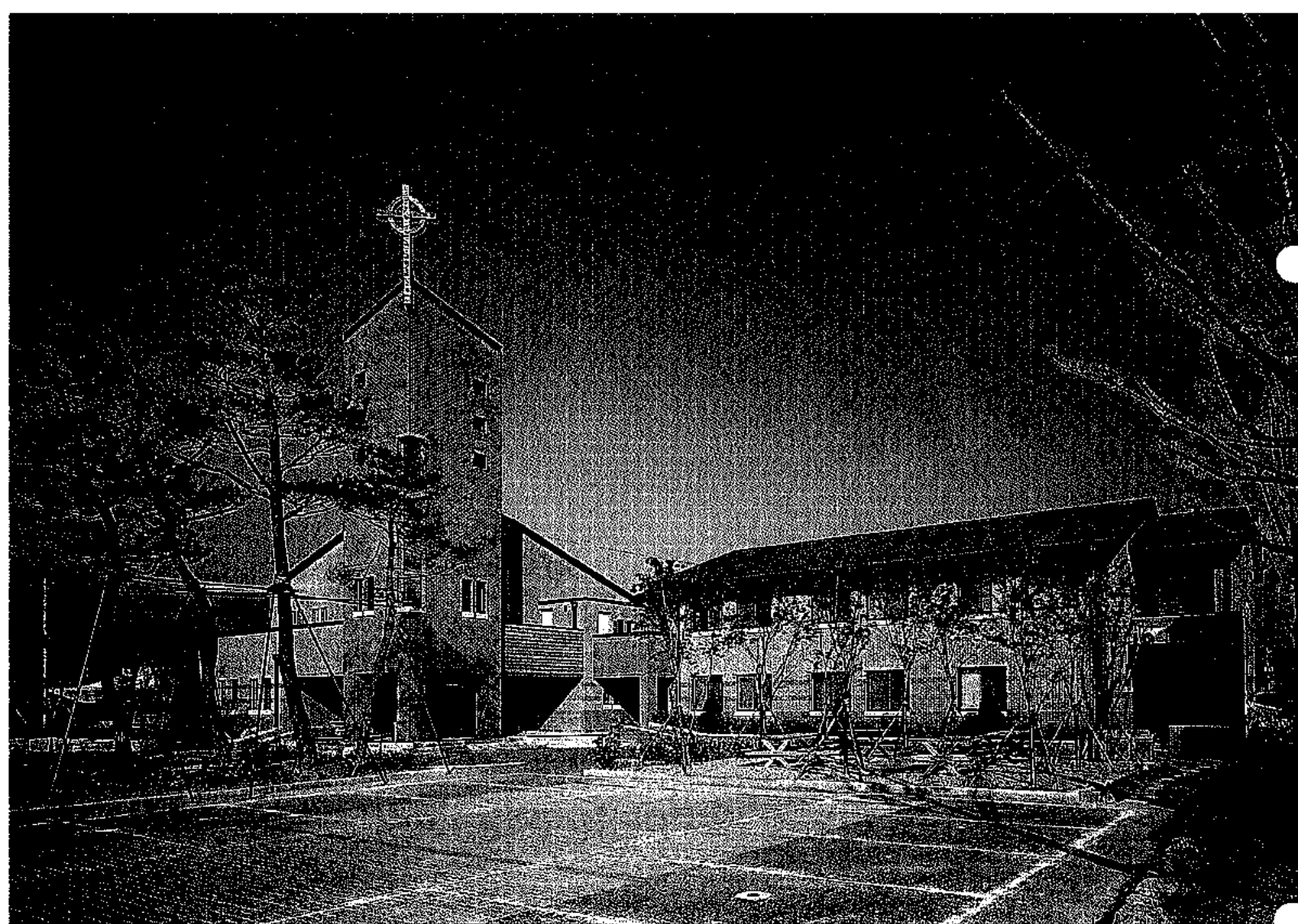
종탑의 십자가는 지역내에서 상징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대지와부에서 성당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주출입구를 통해 대지로 들어서면 잔디광장에 있는 성모상으로 시선이 먼저 이끌리게 된다. 본당의 진입은 종탑을 바라다보면서 종탑하부의 필로티공간으로 들어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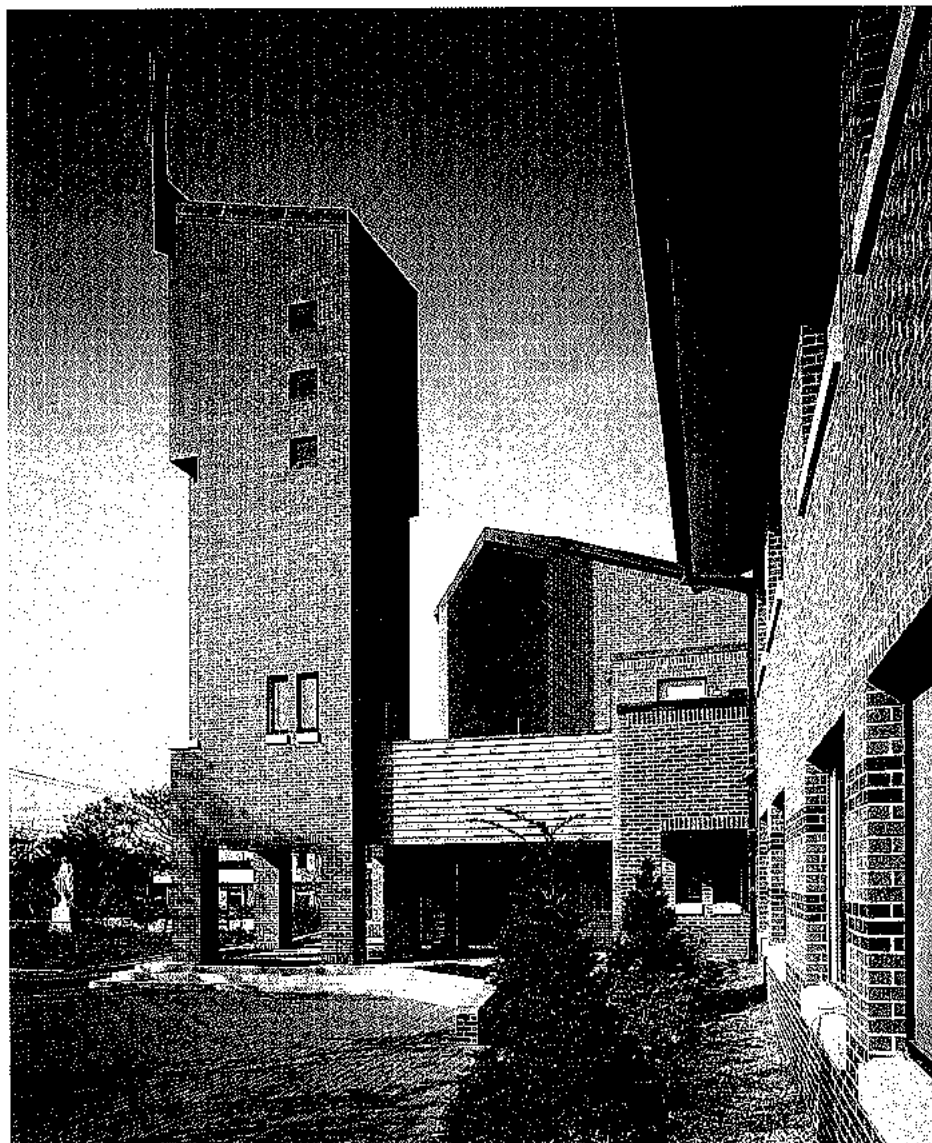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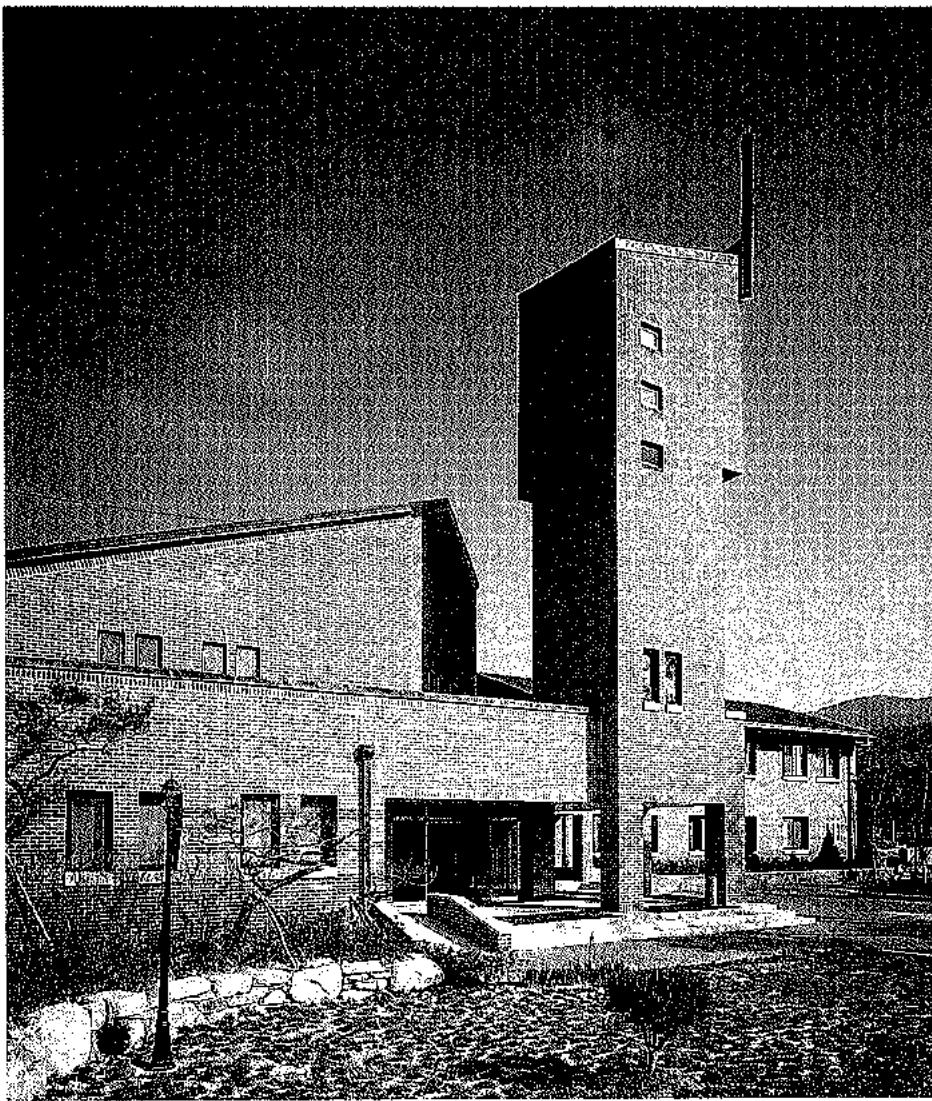
본당은 256석 규모의 신자석과 45석의 성가대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성당으로 로비에서 제대를 중심으로 대청을 이루는 정방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로비에서 본당으로 들어서면 모자실이 좌측에 위치하며, 좌측을 통해 2층 성가대석으로 올라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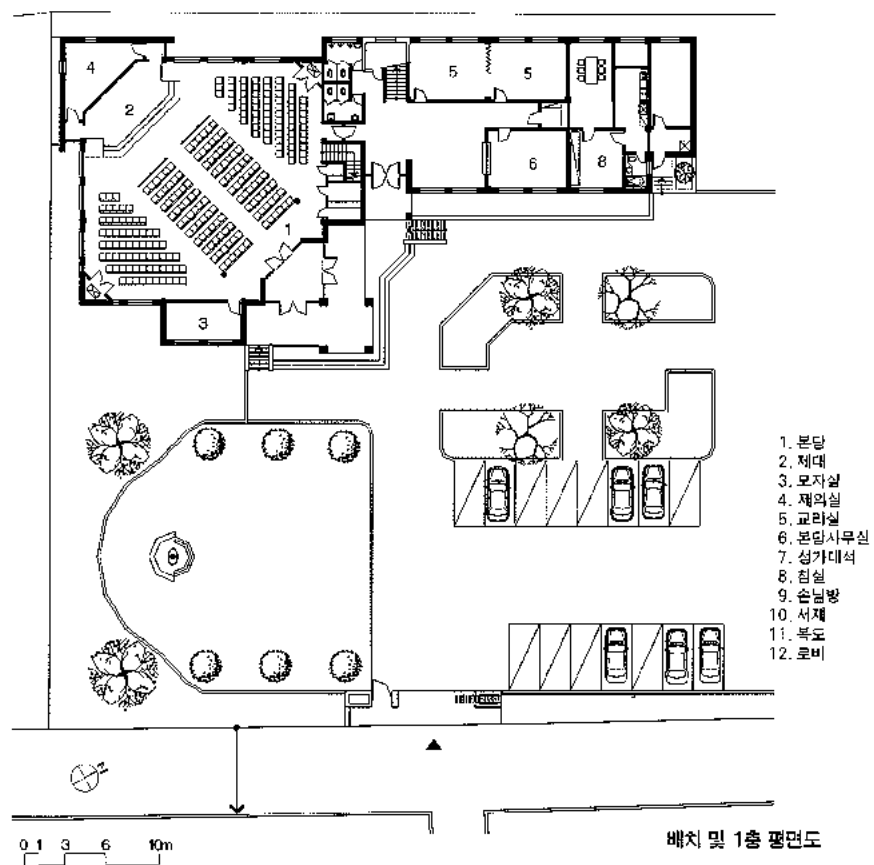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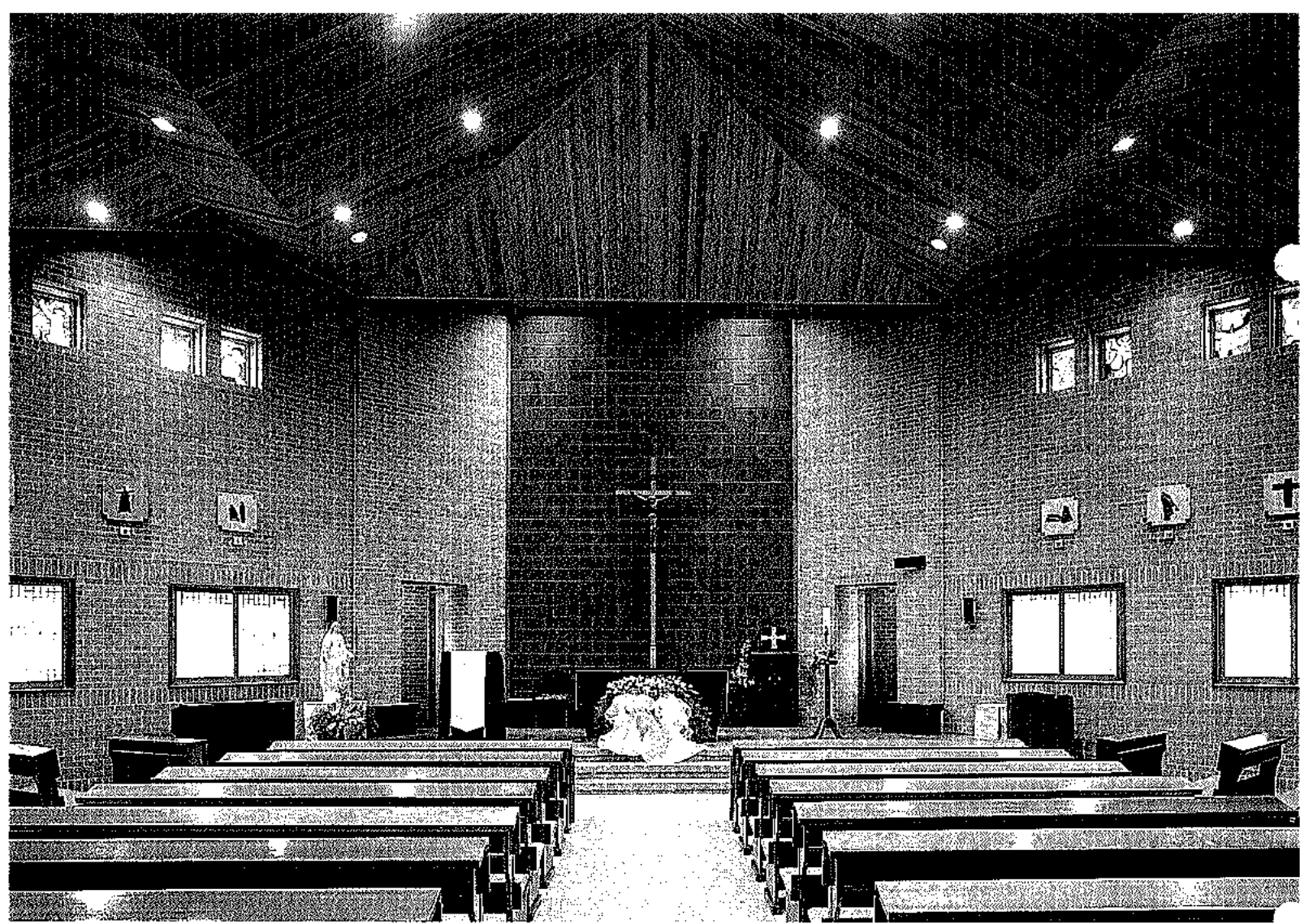
3단 높여진 제대와 후면의 제의실, 그리고 상부 벽면의 14처로 이루어진 내부공간은 위압적이지 않으며, 붉은벽돌과 목재천정으로 둘러싸여져 온화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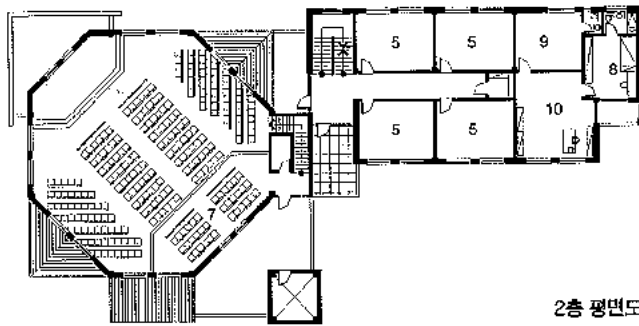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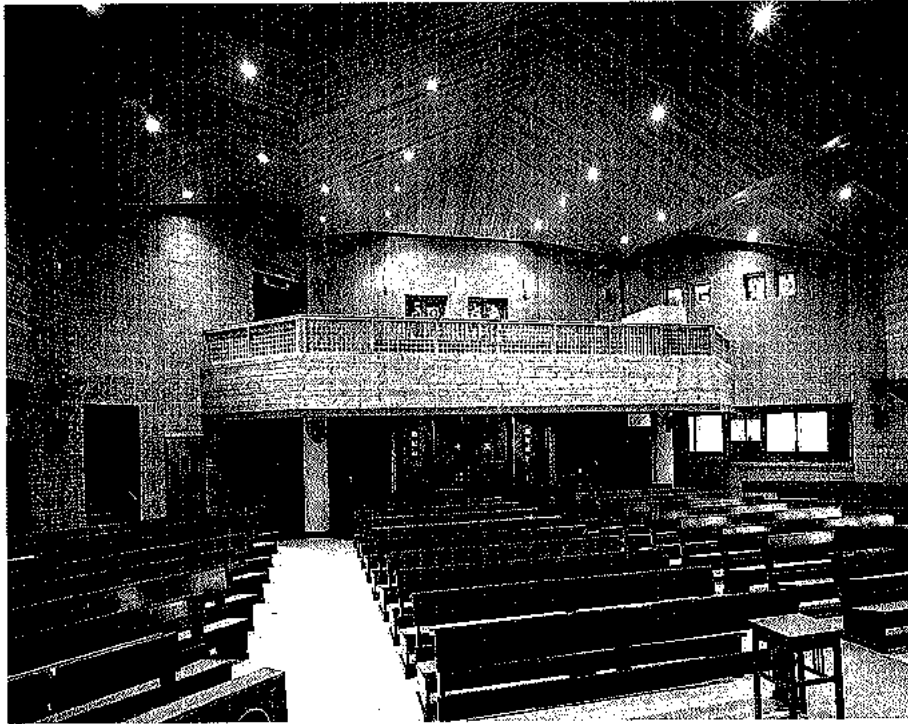
교리실과 사제관은 본당 옆의 출입구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본당사무실을 중심으로 교리실들이 배치되어 있다. 2층에는 교리실과 안쪽에 본당신부 사제관이 배치되어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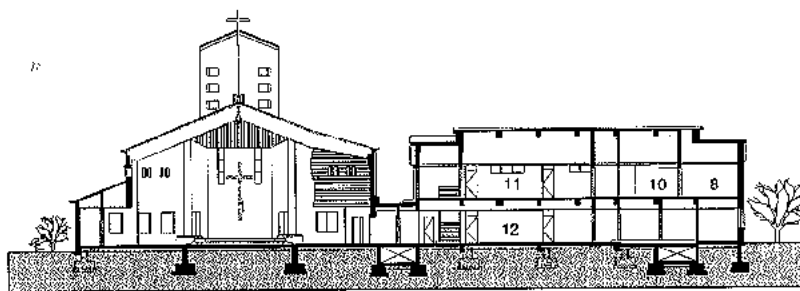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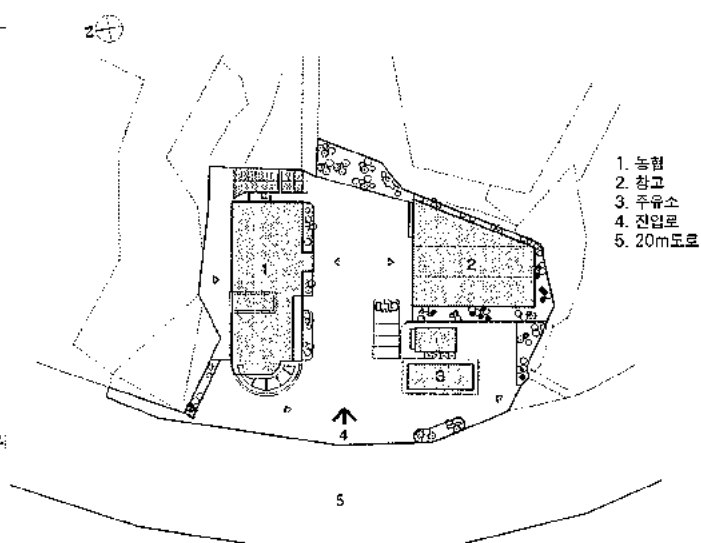
단면도

정천 농협 Jeongcheon Nonghy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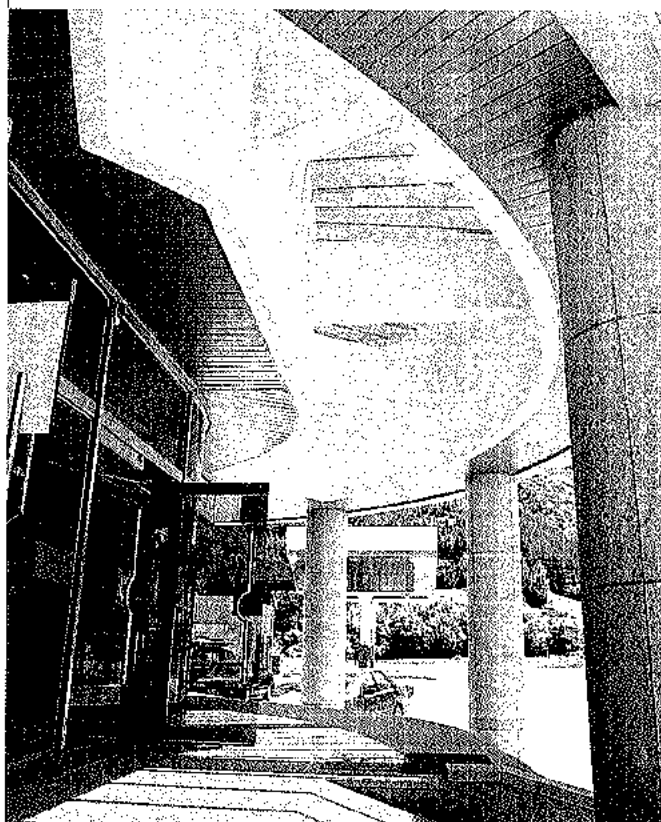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Designed by Choo Won-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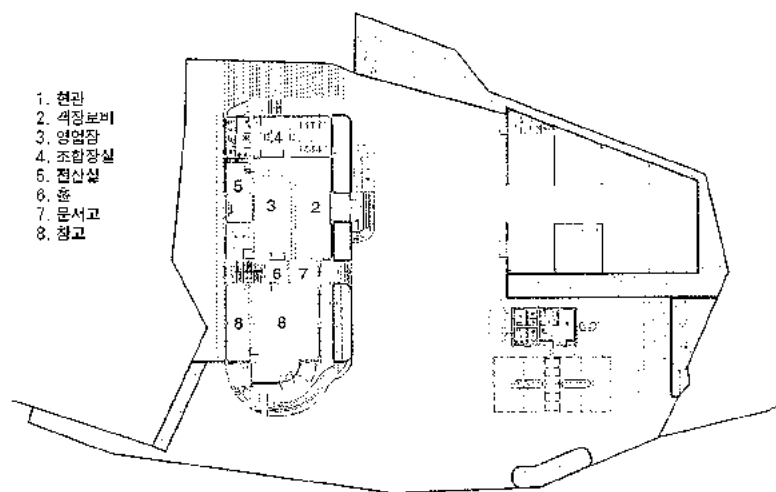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425-3번지 외 15필지
주요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창고시설(창고)
대지면적	3,295.00 m ²
건축면적	934.64m ²
연 면 적	1,362.19 m ²
건 폐 율	28.37%
용 적 륜	28.37%
규 모	지하 1층, 지상 1층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드라이비트, 24mm 컬러복층유 샌드위치패널
설계담당	권성은, 신지영, 김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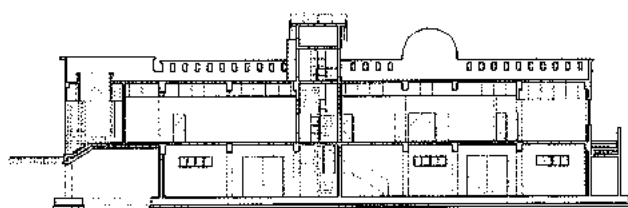
배지도





1. 현관
2. 색장보리
3. 영업장
4. 조합장실
5. 전산실
6. 숲
7. 문서고
8. 창고

1층 평면도



단면도

이 농협은 용담댐 수몰지역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시작된 담수로 인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였고 용담댐 최상류 청정지역에 위치한 여건과 이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관광지역으로서 농협 이미지를 고양하고 그 지역의 구심점을 확보할 수 있는 의장요소를 갖추는데 목적을 두었다.

건물의 형태는 고객의 믿음을 주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수평선과 농가마을을 연상하는 곡선의 옥탑지붕을 구성하였고, 1층 통로에 연속된 황토색 열주랑을 설치하여 농촌의 농협 아이덴티티(Identity)를 높이고 정면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고객을 현관으로 유도하고 끌어 당기는 입면을 구상하였으며, 날개를 펴고 고객을 맞이하는 산비둘기의 형태를 지닌 주유소의 캐노피 그리고 단조로운 창고지붕을 매스 분절하여 시각적 변화를 모색하였다.

초기 기본계획안에서 있었던 여러 디자인 요소(옥상파고라, 유리돔, 측면계단)들은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삭제되었고 절제된 형태로 완성되었으나 설계도에 충실하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웠다.

추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욕구들을 수용하여 고향 잃은 수몰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장소, 지역특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방향의 휴식공간이 되어주길 기원한다.

고흥군 실내체육관 / 38

영주우체국 / 42

서산우체국 / 46

서울시립대학교, 환경디자인관 및

국제교류센터 / 50

구로송무사무소 / 56

고흥군 실내체육관

Goheung-gun Gymna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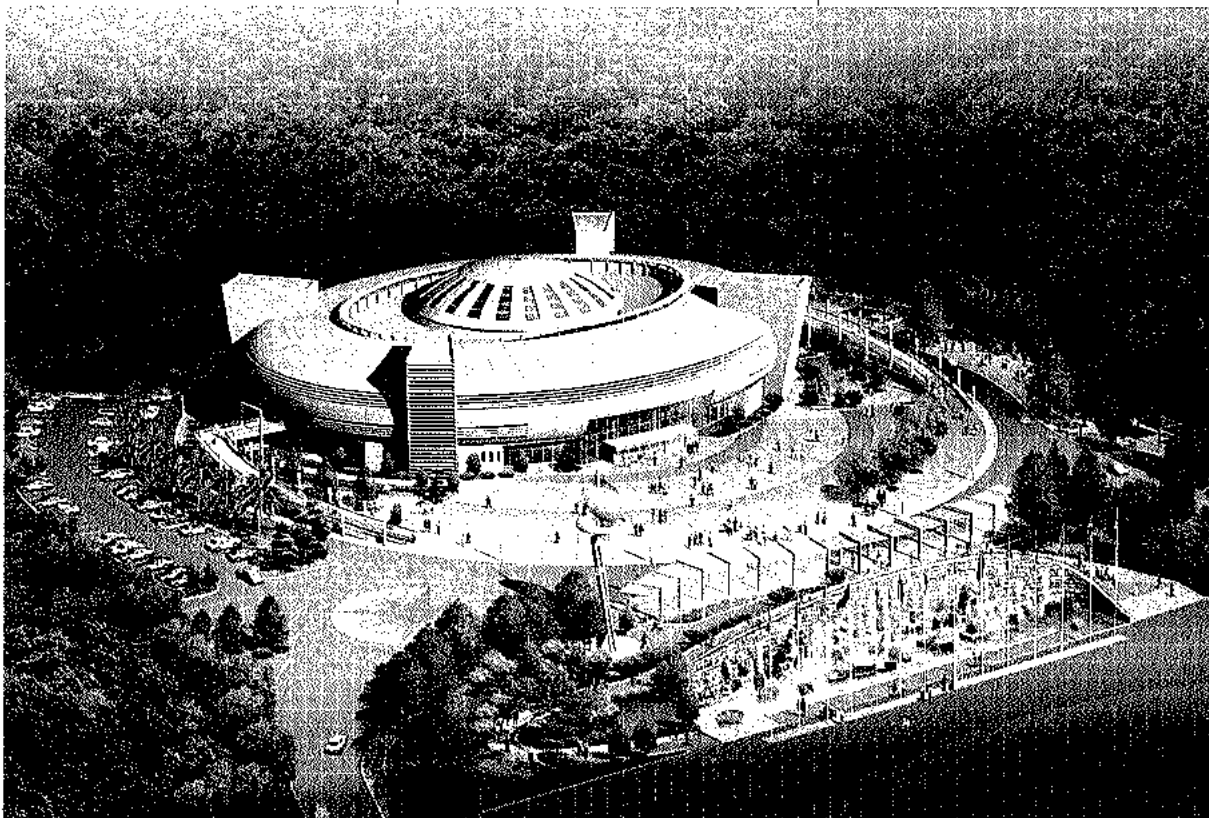
전남 고흥군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 운동,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지난 2월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최종 6개업체가 응모한 결과 (주)유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손은채)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17일 발표했다. 최우수작은 (주)아라연건축사사무소(장용준) 안이, 우수작에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가(이기정) 안이 선정됐다. 심사는 김재곤 고흥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천득열, 송진규(전남대학교수), 박일민, 김영석(순천대학교수), 장길수, 남기봉(동산대학교수), 윤순하(전남건축사회회장), 유택근(고흥군의원), 김대성(전남경제건설위원), 김임진(고흥군건설과장)씨 등이 참여했다.

▶ 당선작 / (주)유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손은채)

대지위치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산 914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농지지역/운동장지구
대지면적	39,200㎡
연면적	6,600㎡
규모	지하1층/지상2층 관람석 좌석 2,700~3,000석
시설별규모	코트-각종구기종목의 국내경기가 가능한 규모(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등)
설계담당	홍용화, 강인수, 심우석, 김종선, 추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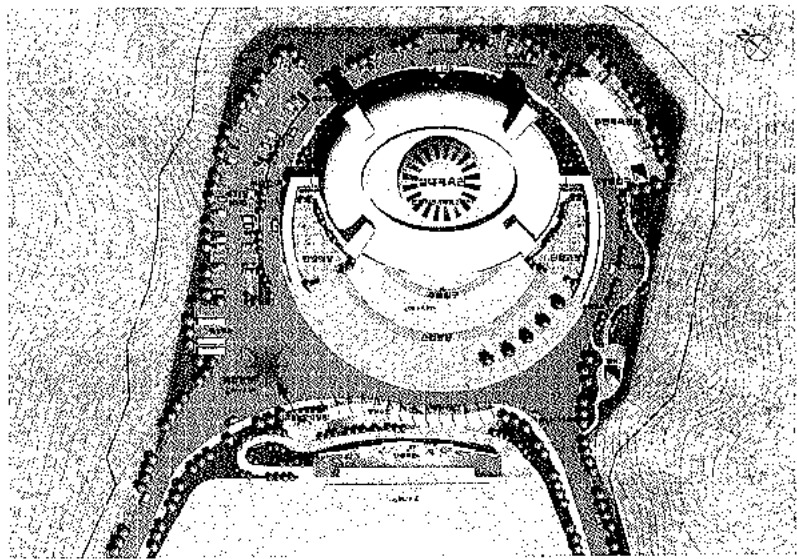
계획의 주요내용

- 고흥군의 고유성과 미래지향적 상징성
 - 깨끗한 이미지의 원형패턴과 하이테크한 미래지향적 건물 형상화
- 스포츠센터 기능의 확보
 - 각종 경기를 위한 코트와 관람석 (2,826석)
 - 합리적인 동선체계와 신속하고 완



전한 대피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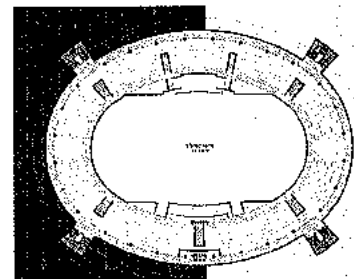
- 지역주민의 문화, 운동, 휴식과 정서기능의 고려
- 빛의 광장(옥외공연), 주민체육공원(운동시설), 전시조각공원, 쉼터, 상징탑(고흥의 빛·태양광), 리듬터치분수, 청정수로, 인공폭포, 조경식재 등
-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시설과 설비의 조닝화(Zonning)
- 프로그램운영공간(경기관련실)과 상시운영공간(관리사무실 등)의 연계 및 구분
- 첨단기술 적용과 에너지절약설계
- 태양광, 태양열에너지 활용 : 인공폭포, 옥외야간조명 등의 에너지원
- 각종 시설물의 자동제어 및 통제시스템 적용
- 자연환기, 자연채광 적극 이용 :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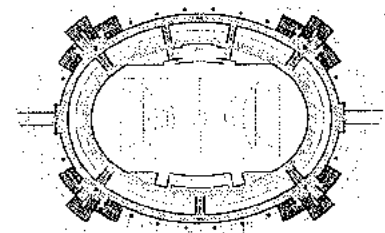
배치도

육관 돔천장(자동개폐 및 롤스크린 장치) 및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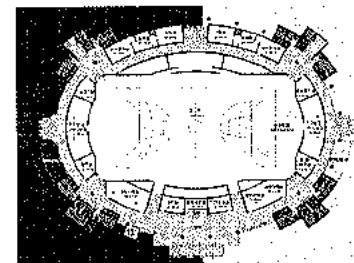
- 계획부지와 단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로운 맥락(Context)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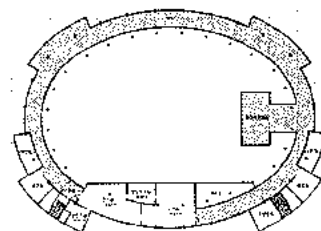
2층 상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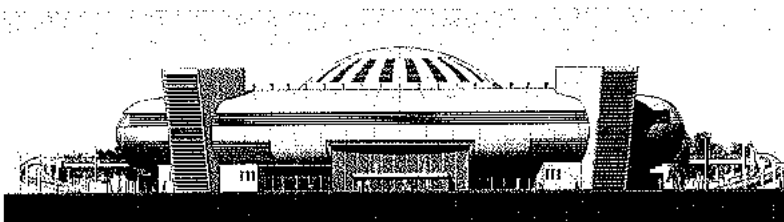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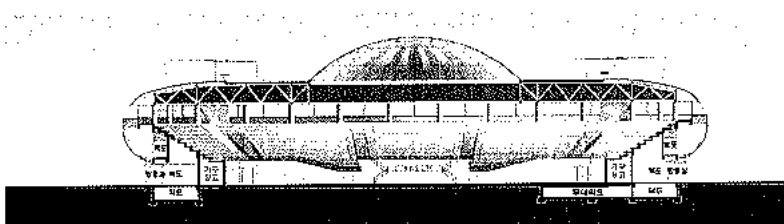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정면도



횡단면도

▶ 우수작 / (주)어려연건축사사무
소(장용준)

대지면적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산 914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운동장 지구
대지면적	39,200㎡ (11,858평)
도로현황	대지 진입로 35m / 체육관 진입 로 6.5m
용도	운동시설 (체육관)
건축면적	5,634.21㎡
연면적	6,891.70㎡
건폐율	14.37 %
용적률	16.66 %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46대 이상 (1대 /150㎡이상) 계획주차대수 : 117대 (계획된 옥외 체육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가능) (관리용 18대 / 선수용 24대 / 관 람자용 75대)
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구조	스탠드 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붕 구조-강판 트러스 구조
외부마감	THK 18 컬러복층유리 + AL 북

합패널 + 경량지붕재
설계담당 소장 이용성 / 한승훈, 장은경,
오상훈

최근 수년간에 걸친 시설단지 계획을 통
해 고흥 주민의 공간범위가 넓어지고 체
육 및 문화행사가 다양화되어 지역주민
의 활동변화가 시작되었다. 기존 산세
에 성·절토를 통해 남북으로 이어지는
활꼴의 외부공간이 마련되었고 여기에
공설운동장과 종합문화회관에 이어 실
내체육관을 계획하게 되었다.

공간질서

본 대지가 단지 주출입구에 다소 동떨어
져 공설운동장에 가려져 있을뿐 아니라
대지로 향하는 진입로가 산지락으로 치
중되어 정면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내체육관의 주축을 공설운동장의 장축
과 일치시켜 전체 단지가 일체화되고 조
직된 공간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체육관이 단지 한복판을 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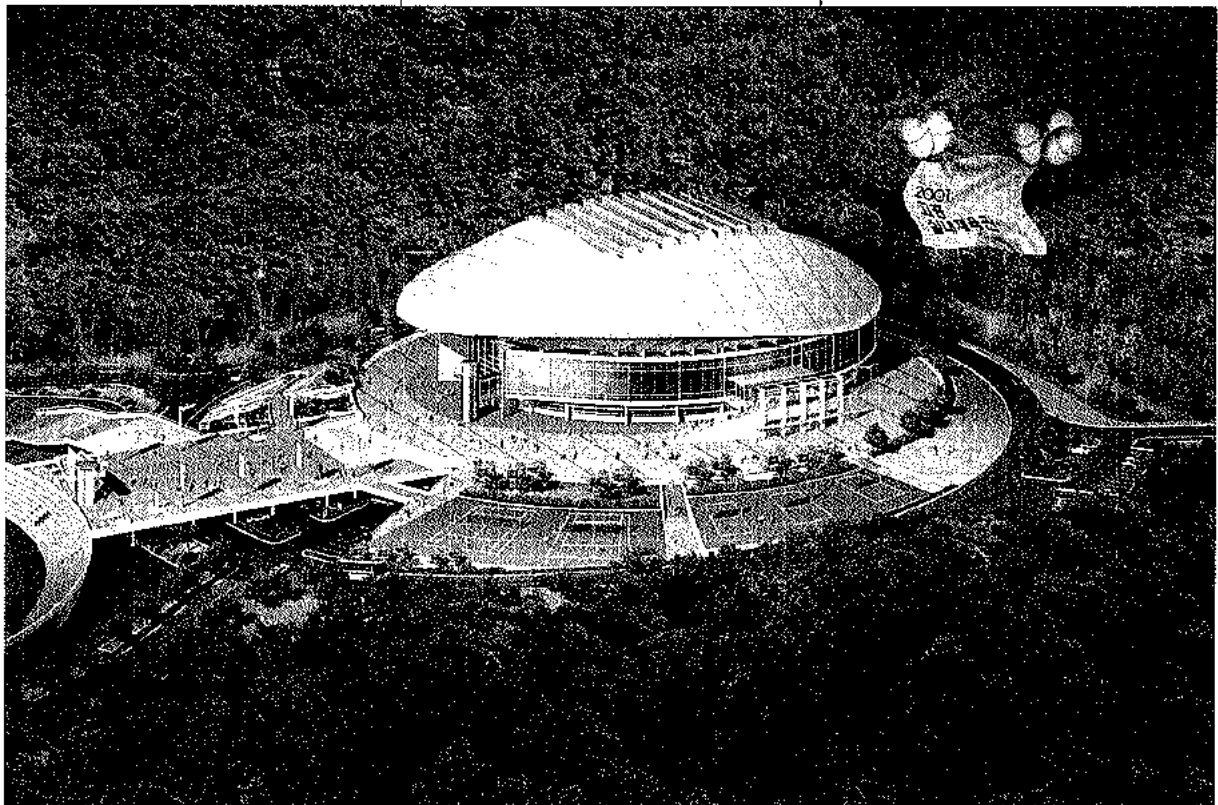
보고 진입축과는 어긋나게 되어 접근을
통한 시각적 시퀀스를 유도할 수 있었다.

진입 및 흐름

그러나 대지의 지반고가 이미 주변보다
8m높게 조성되어 필연적으로 8m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진입공간으로서
공설운동장과 본 대지사이에 인공 데크
를 마련하여 운동장과와의 연계를 꺾는
한편 대지에 치랑 순환체계를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관
람객이 대지 주변을 따라 자연과 건물을
감상하고 옥외체육활동을 겸하도록 데
크하부에서 시작되는 곡선형 외부공간
을 남동쪽을 따라 원형으로 계획하였다.

형태 및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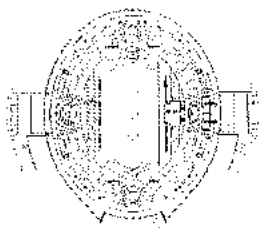
건물의 주축설정과 진입데크 계획을 통
해 정리된 대지에 들어설 건물 이미지는
기존 체육관의 대칭형 또는 방사형 평면
을 가진 형태보다는 단지의 한복판과 고
흥 풍경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무엇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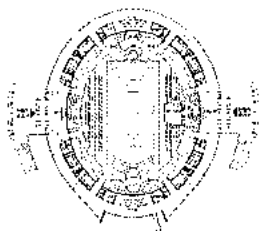
고 싶었다. 그리하여 타원의 평면을 갖는 매스에 지붕형태를 단지 중심을 향하여 치중시켜 처마를 만들고 처마 밑 그늘 공간을 진입의 주공간으로 그렸다. 금속과 유리를 주재료로 지역과 전통을 자극하는 현대적 이미지를 상징하여 체육관의 육중함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실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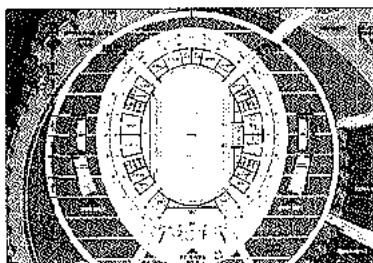
주요구조는 삼각트러스(Keel Truss)를 곡선형으로 병렬하여 다이내믹한 실내공간을 유도하였고 경기장 상부의 주트러스 사이에 직사광선이 배제된 자연채광이 유도되어 관람객 및 선수 모두에게 밝은 공간 경험이 되도록 하였다. 실내 공간은 농구, 배구, 핸드볼 경기 외에 집회 및 행사 유치가 가능하도록 가변석을 운영하여 관람 조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흡음 및 차음성 등을 검토하여 다양한 행사가 유치될 수 있는 실내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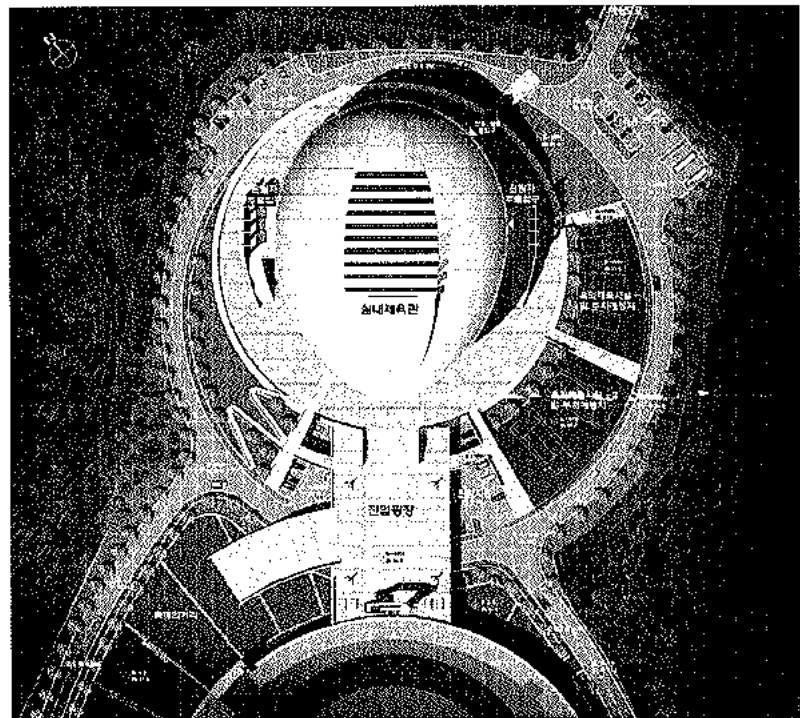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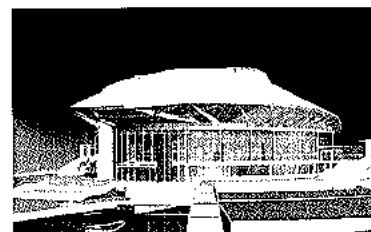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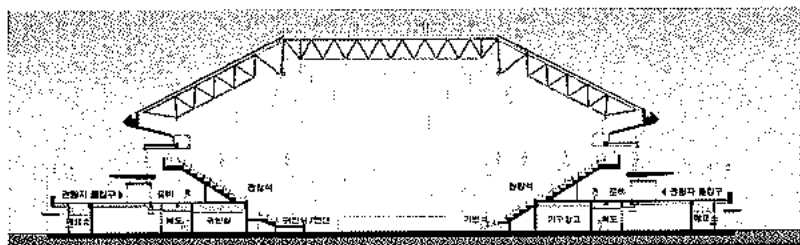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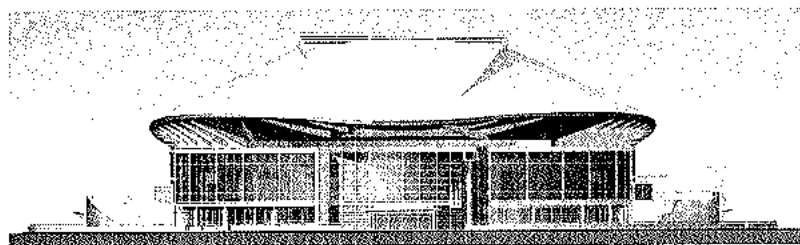
바치도



외측면도



횡단면도



정면도

영주우체국

Yeongju Post Office

정보통신조달부는 경북 영주시 영주동 423-1에 위치할 영주우체국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해 지난 4월 12일 당선작을 발표했다. 13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아취그룹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고, 우수작으로는 한길건축(안)이, 가작에는 엠앤디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주)아취그룹건축사사무소(채두병)

대지위치	경북 영주시 영주동 423-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요용도	업무시설(우체국)
대지면적	1,567.00㎡
건축면적	843.63㎡
연면적	4,757.06㎡
건폐율	53.84%
용적률	222.60%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골 +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차대수	33대(지상 11대, 지하 22대)
조경면적	305.69㎡ (대지면적의 19.51%)
설계팀	윤은중, 서종현, 김재수, 임은희

생각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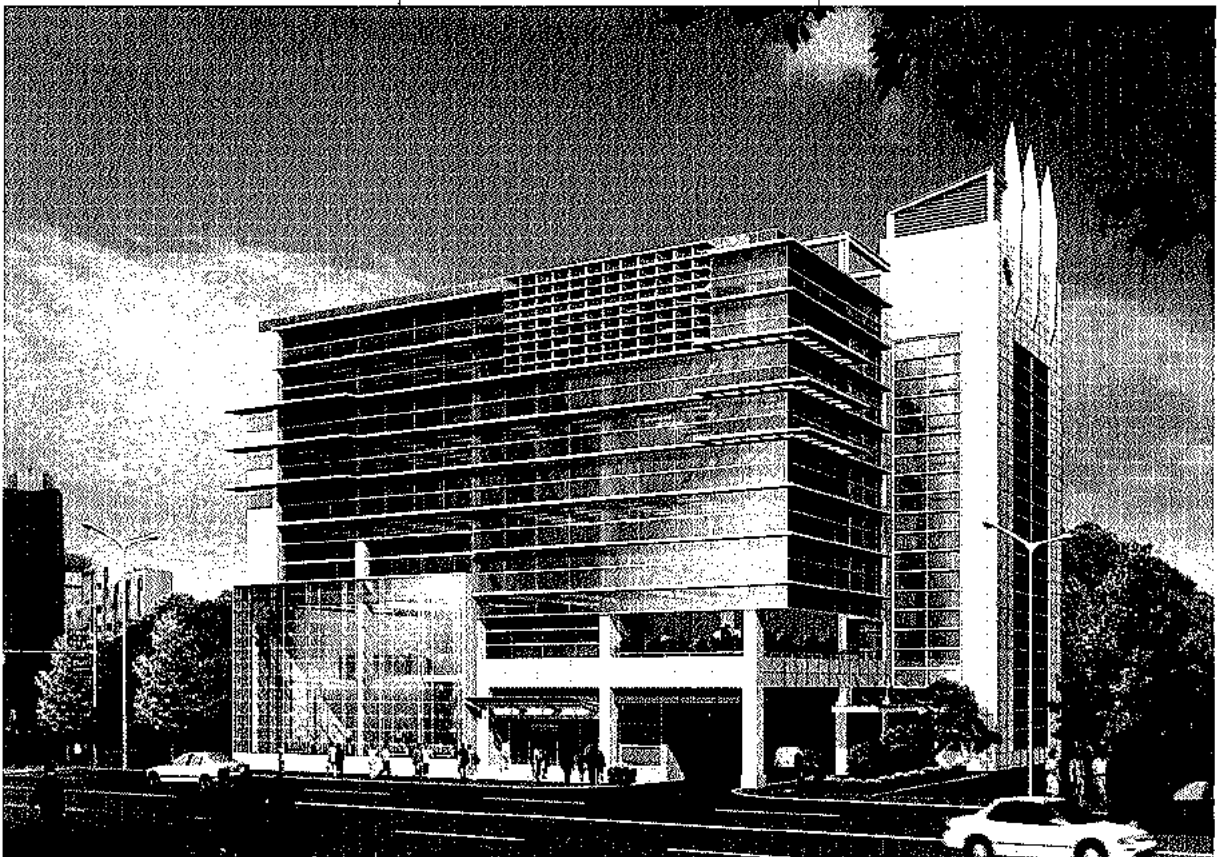
우편.. 통신수단..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을 달리했을 뿐 항상 인간의 생활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과거에는 소리

로, 연기와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지금은 편지와 전화로 세계 어느 곳이든 연락할 수 있다.

지금의 우체국을 무엇에 비유해야 한다면 봉화대가 아닐까? 밤낮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퍼져나가는 많은 소식들과 물건들이 우체국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다시 퍼져 나간다. 우체국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고 기능적으로 조직된, 오늘날의 봉화대이다.

건물 형태에의 논의

봉화대 - 계획개념은 새로운 천년의 정보 통신 수단으로 이어질, 과거와는 또 다른 post, 즉 봉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이런 생각은 대지를 접하면서 기능과 의미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운데 구체화 되어갔고, 대지의 해결방법에서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돌출된 코어에 봉화대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대지의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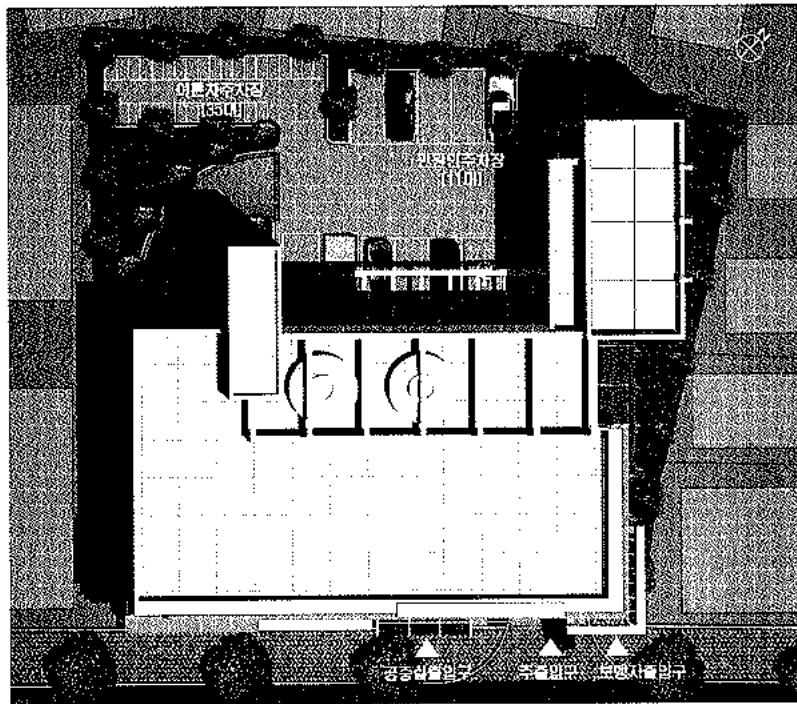
영주 우체국 부지는 기존 영주 우체국에서 약 50m가량 떨어진 사각형의 땅으로, 3면이 주거지역이고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전면에 20m 도로를 36m정도 면하고 있는데 차량 출입구를 제외하면 30m가 안되는 좁은 전면을 가지고 있었다. 좁은 전면과 기울어진 대지의 형상은 우리에게 이 대지에서만 들어설 수 있는 개념의 전환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직원 코어를 밖을 돌출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의 제안

외부로 독립된 직원 코어 - 이 project에서 우리가 제시한 해결책은 직원 사육 코어를 외부로 꺼내는 것이었다. 기존의 우체국 계획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습 이어서 처음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결과 건물의 깊이가 얕아져서 자연 환기와 채광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코어 주변의 복도 공간이 없어지면서 동선 체계가 명확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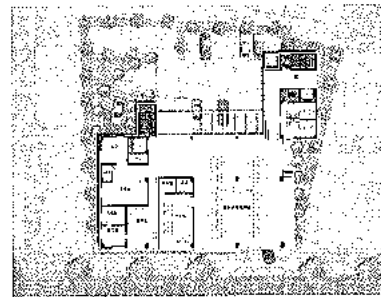
중심 공간

두개 층으로 개방된 공중실 - 우체국은 관공서 이면서도 민간인의 출입이 빈번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편 업무와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공중실과 현업실은 민간인의 이용이 주 내용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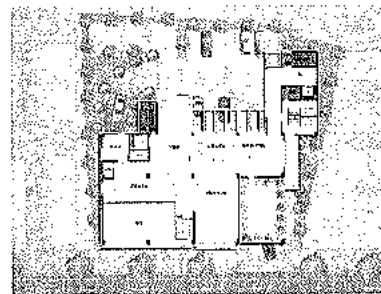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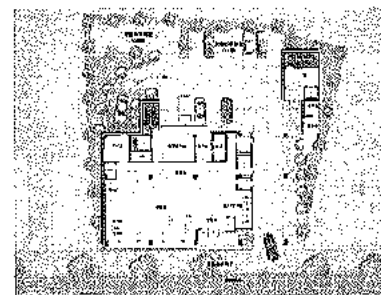
에 우체국의 다른 작업공간과는 다른 분위기를 요구한다. 대민 봉사의 차원에서 우체국 공중실의 분위기는 밝고 쾌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공중실의 이미지가 우체국의 전체 모습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공중실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 전면에는 순수하게 공중실과 현업실 기능만 두고 이외에 필요한 부속실들은 2층에 두면서 1,2층 전면부분을 open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입면에도 반영되어 밝고 개방적인 공중실이 형성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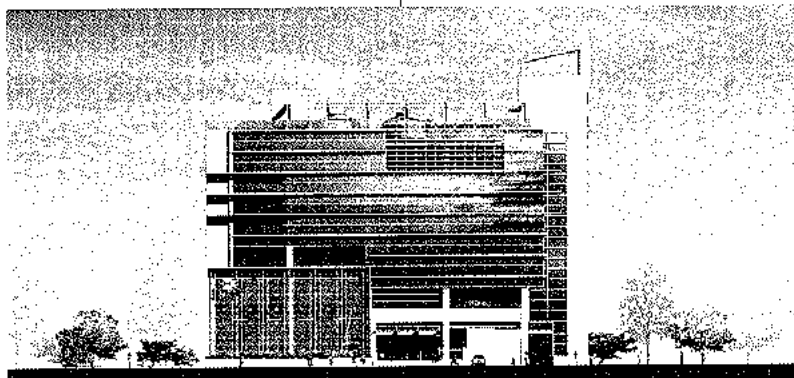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장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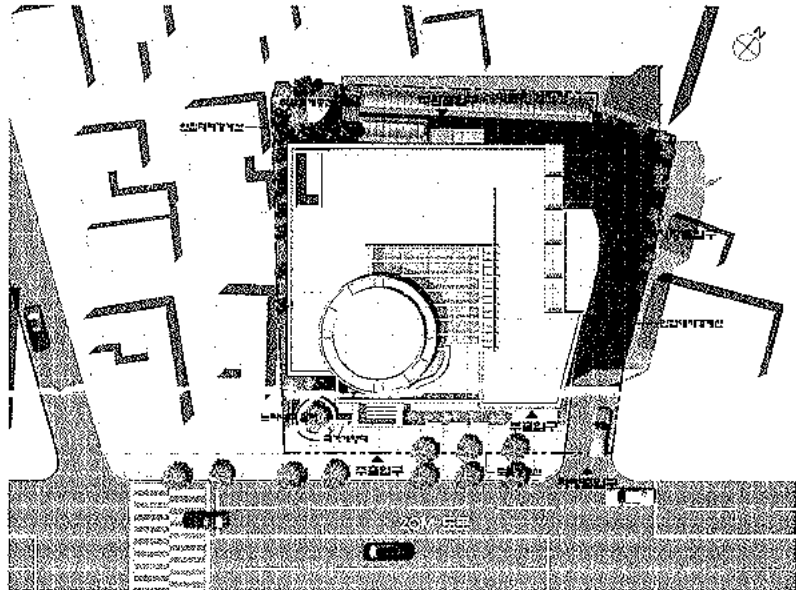
▶ 우수작 / (주)한길엔지니어링건축
사사무소(박성하)

대지위치	경북 영주시 영주동 423-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건축면적	878.12㎡
연면적	4,630.19㎡
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대수	36대(장애인주차1대포함) 법정 23대
외부미감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박기선, 류경, 김영현, 정은영, 노형곤

우체국의 설계는 금융 및 우편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주된 방향이 잡혀야 한다.

이러한 틀내에서 영주우체국의 건축적 공간과 형태구상이 진행되었다.

계획대지는 기능적으로 요구되는 각



배치도

실들의 필요면적을 건축법적인 한도내에서 확보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매우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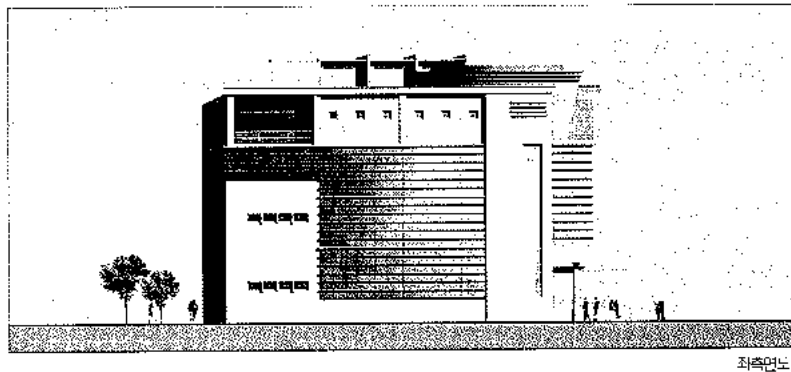
계획 초반부에 막연하게나마 구상된 빛을 이용한 건축적 공간들은 요구되어지는 각 기능들을 채우면서 하나, 둘

없어지고 논리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공간들만이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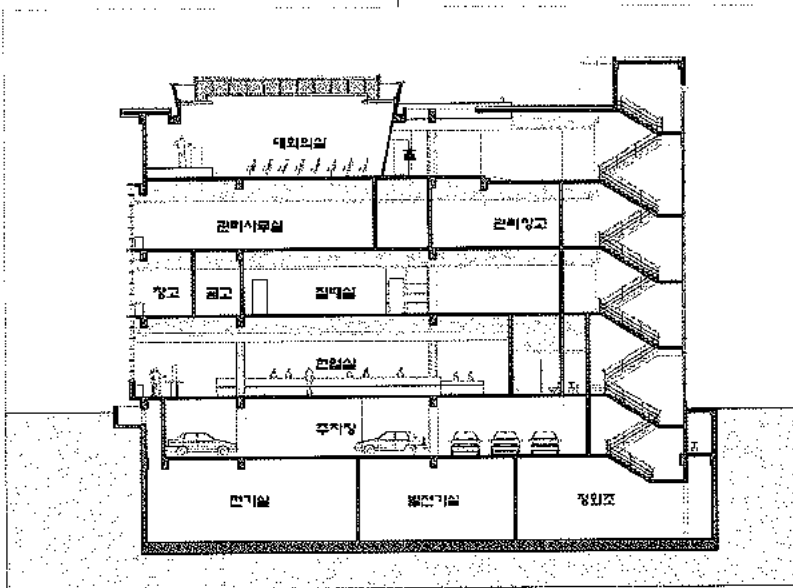
'부석사'로 더 유명한 영주의 지역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계획의도는 '뜬 돌'을 형상화한 커다란 역원추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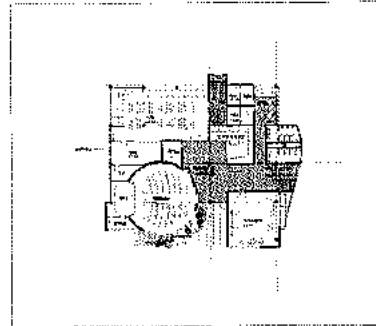
'대회의실 Mass'로 형상화 되었다.
 각 기능들의 구성은 여유있는 지방도
 시의 우체국 청사보다는 도심청사의
 성격에 더 가깝다.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한 설계의도가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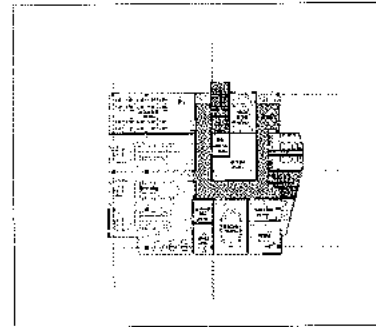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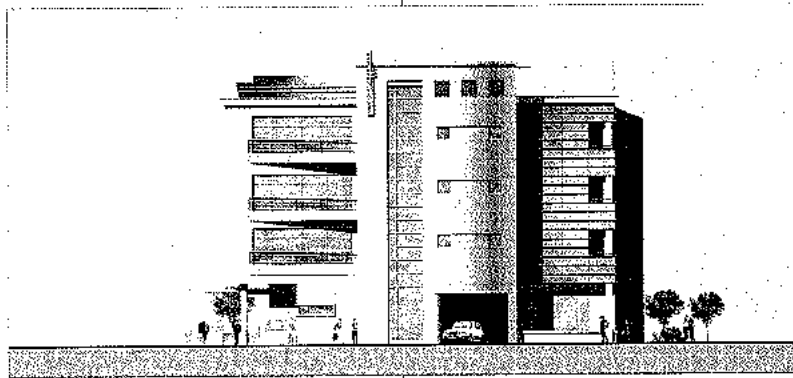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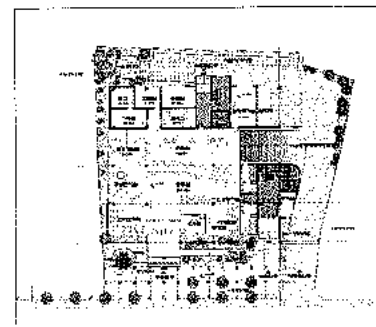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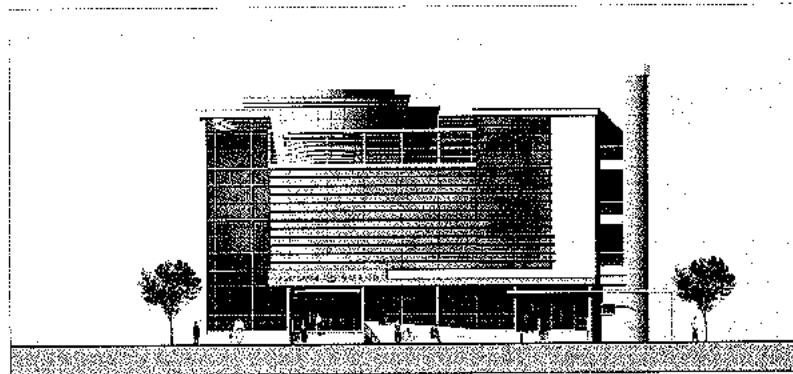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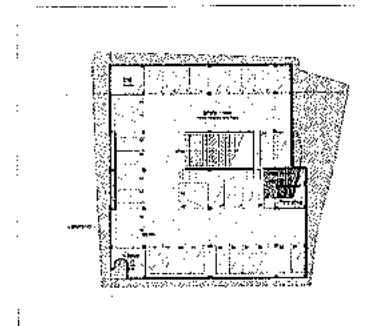
우측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서산우체국

Seosan Post Office

정보통신조달부는 충남 서산시 동문동 2블럭 1롯트에 위치할 서산우체국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해 지난 4월 12일 당선작을 발표했다. 12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도우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고, 우수작으로는 이다건축(안)이, 가작에는 아취그룹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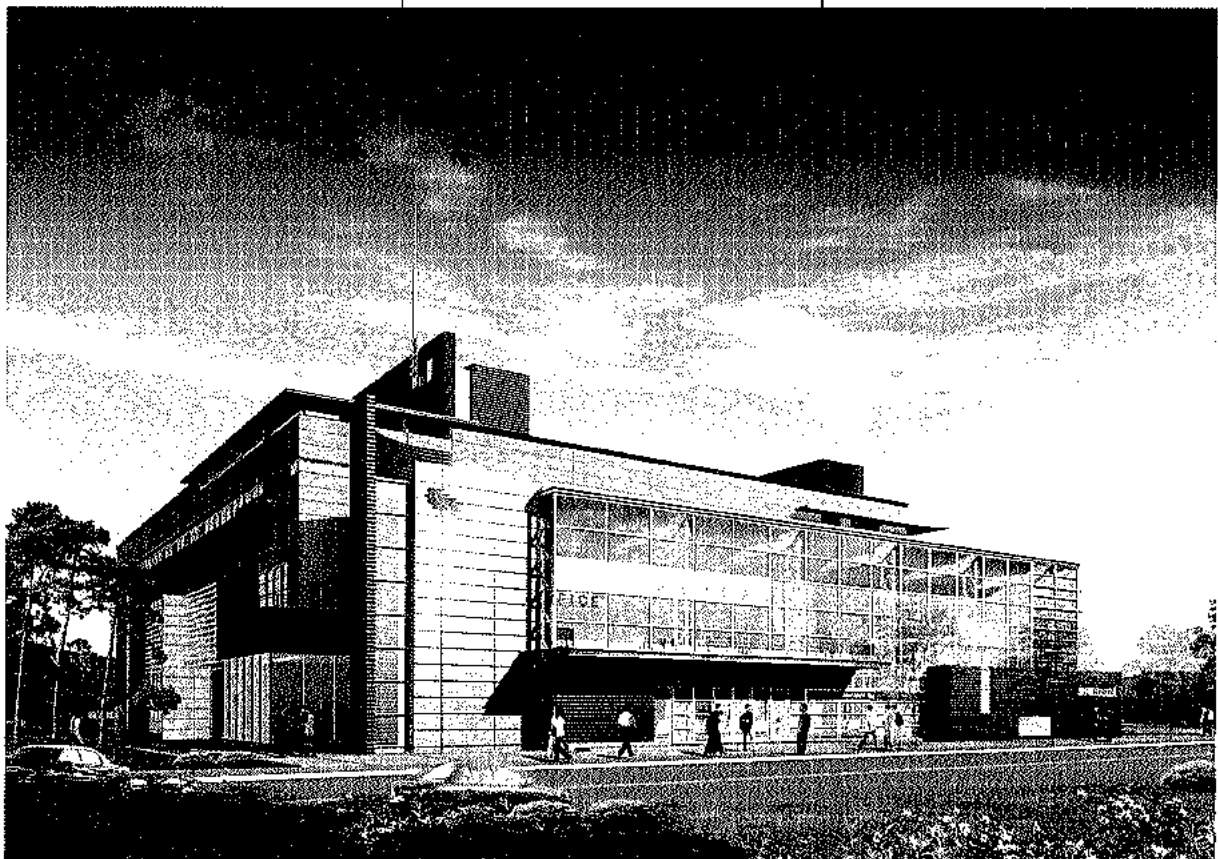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서용주)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전산센터, 박물관)
대지면적	7,176㎡
건축면적	1,408㎡
연면적	3,792㎡
건폐율	19.62 %
용적률	41.75 %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부분 철골트러스조
주차대수	90대
외부마감	외장목재패널/ 아연도금강판/ 투명복층유리
설계팀	고홍권, 천병권, 정혜원, 이지연

우체국 - 시대읽기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 우체국은 단순히 우편물을 접수하고 배달하는 단순기능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종합 민원창구

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메카로서 인터넷관련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화의 첨병으로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좀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을 통한 충분한 공공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만의 아이덴티티의 확보를 그 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사회가 점점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다변화되면서, 이제껏 명백히 구분되어져 왔던 개념들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게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적 상태로서 사회가 이해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우체국은 더 이상 우편점수만의 목적성을 띤 공간이 아닌, 다양한 행위,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작은 도시같은 장소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체국 창가에 앉아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편지봉투에 주소를 적을때 느끼던 설렘은 이



▶ 가작 / (주)이취그룹건축사사무
소(채두병)

위치	충남 서산시 동문동 2블럭1롯트 (예정지번139-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7,176.90㎡
건축면적	1,318.69㎡
연면적	3,707.96㎡
건폐율	18.37%
용적률	45.26%
주차대수	자주식 71대 (장애인주차4대, 대 형주차3대 포함)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조경면적	1,654.14㎡ (대지면적의 23.05%)
설계담당	양길수, 최현준, 최재영, 최종철

생각의 시작

과거의 통신수단이 소리와 연기였다면,
오늘날 통신의 방법은 빛과 전파이다. 눈

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주위엔 항상
전파가 흐르고 있고, 그 미세한 전파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꿔놓고 있다. 전화
와 인터넷이 나날이 발달하고, 화상전화
까지 등장하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사
람들이 기대하는 이 시대에 적합한 우체
국의 형상은 무엇일까?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열
어갈 새로운 천년의 우체국을 기대한다.

건물 형태에의 논의

빛과 전파에 의한 통신 - 정보통신의 중
심체. 하늘로 전파를 쏘아올리고 받아들
이는 안테나를 형상화하여, 빛과 전파에
의한 새로운 정보통신의 이미지를 주고
자 하였다. 건물이 꺾이는 부분에 반경
이 다른 3개의 원이 있다. 우주에서 흐
르는 전파를 받으려는 듯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철 프레임을 가진 원기둥과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유리 mass,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원형의 수공간. 이곳을

통해 받아들이는 전파가 멀리 퍼져 나가듯
이 흐른다.

대지의 형상

서산우체국 부지는 건물 규모에 비해 땅
에 여유가 있었다. 주변으로 15m, 8m
의 도로를 접하고 있어 넓은 시야를 확
보하고 있었는데 땅에 비해 건물의 규모
가 작다보니 상대적으로 우체국의 형상
이 왜소해 질 수 있었고, 주변 공간이 계
획적으로 조직되지 못할 경우 그냥 남아
있는 공간으로 무의미해질 문제가 있었
다. 즉, 건물뿐 아니라 주변 공간의 조직
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대지였다.

우리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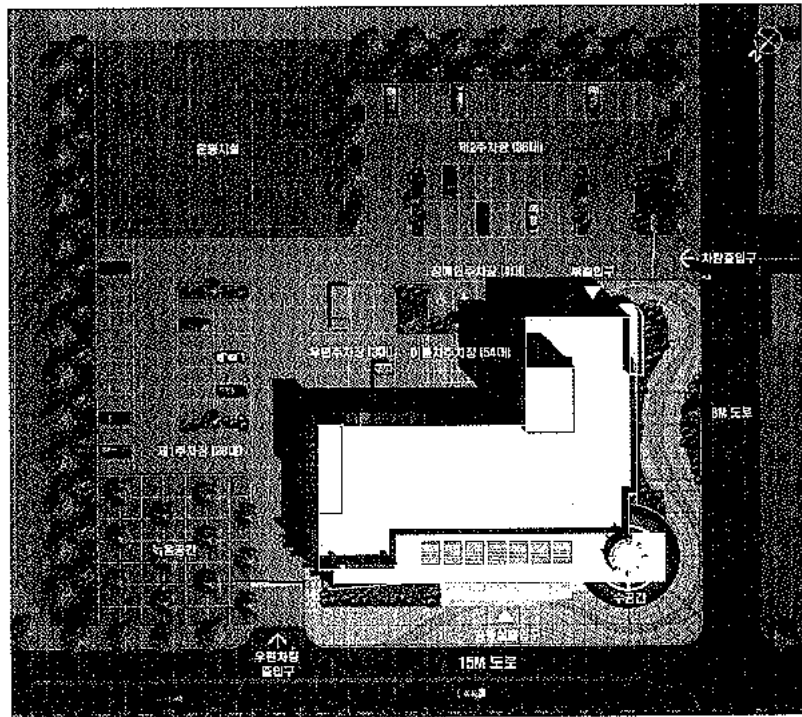
각 공간의 zoning - 이 project에서 우
리가 주목한 것은 각 공간의 의미부여,
즉 확실한 기능의 부여였다. 땅의 인지
도가 가장 높은 곳에 건물을 세우고 이
에 따른 공간의 zoning에 많은 고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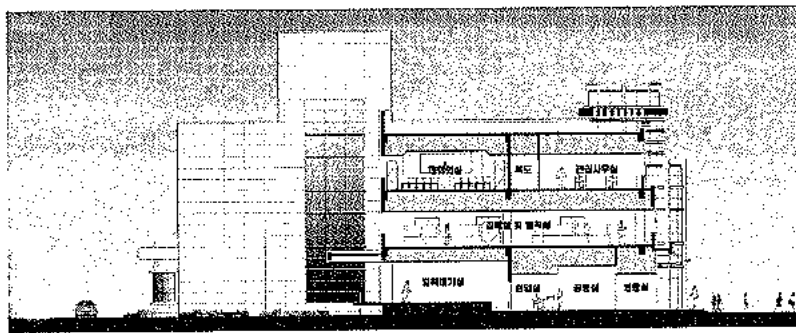
했다. 결과적으로 대지가 접한 두 도로
중에 넓은 곳에 우편 차량 출입구를 두
고, 비교적 좁은 도로에 민간인 차량을
통행하게 하여 운동시설을 가운데 두고
사용자에 따라 공간분리를 시도하여 민
간인과 직원의 출입구 분리와 사용 영역
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중심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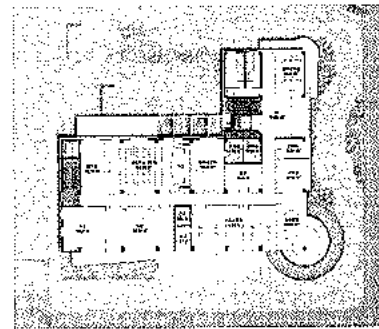
보행 가로에 순응하는 건물 배치 - 우체
국은 지역 주민의 이용이 빈번하기 때문
에 정면성과 도로에서의 흡인력이 중요
하다. 기존 주거 단지에서부터 방문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5m
도로를 전면으로 하여 공중실을 가로로
따라 넓게 두고, 수공간의 파동을 이어
받아 사람을 끌어들이는 듯한 바닥 패턴
으로 보행자의 동선을 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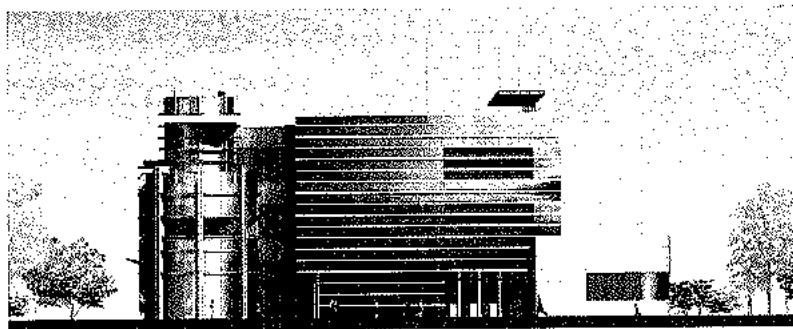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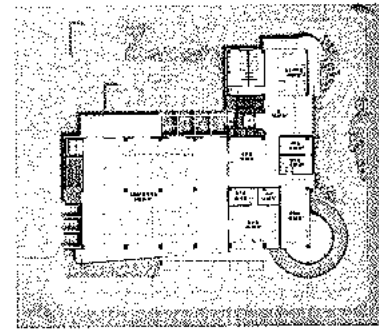
종단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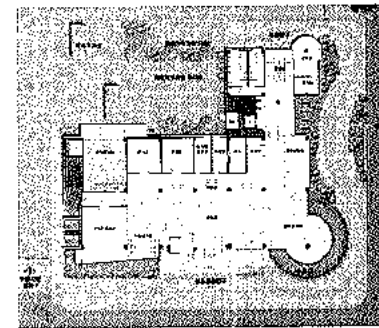
우측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1층 평면도

서울시립대학교, 환경디자인관 및 국제교류센터

Environment Design &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The University of
Seoul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환경디자인관
및 국제교류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경
기를 실시하여 지난 4월 10일 (주)엑
토건축사사무소(주대관) 안을 당선작
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립대학교 출신 건축사로 응모자격
을 제한하고 시립대 교수들이 심사위
원으로 참여한 결과 당선작 외에 솔트
건축, 우리건축+우리동인건축, 토우
건축 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올
12월경 착공에 들어가 2004년 6월
에 완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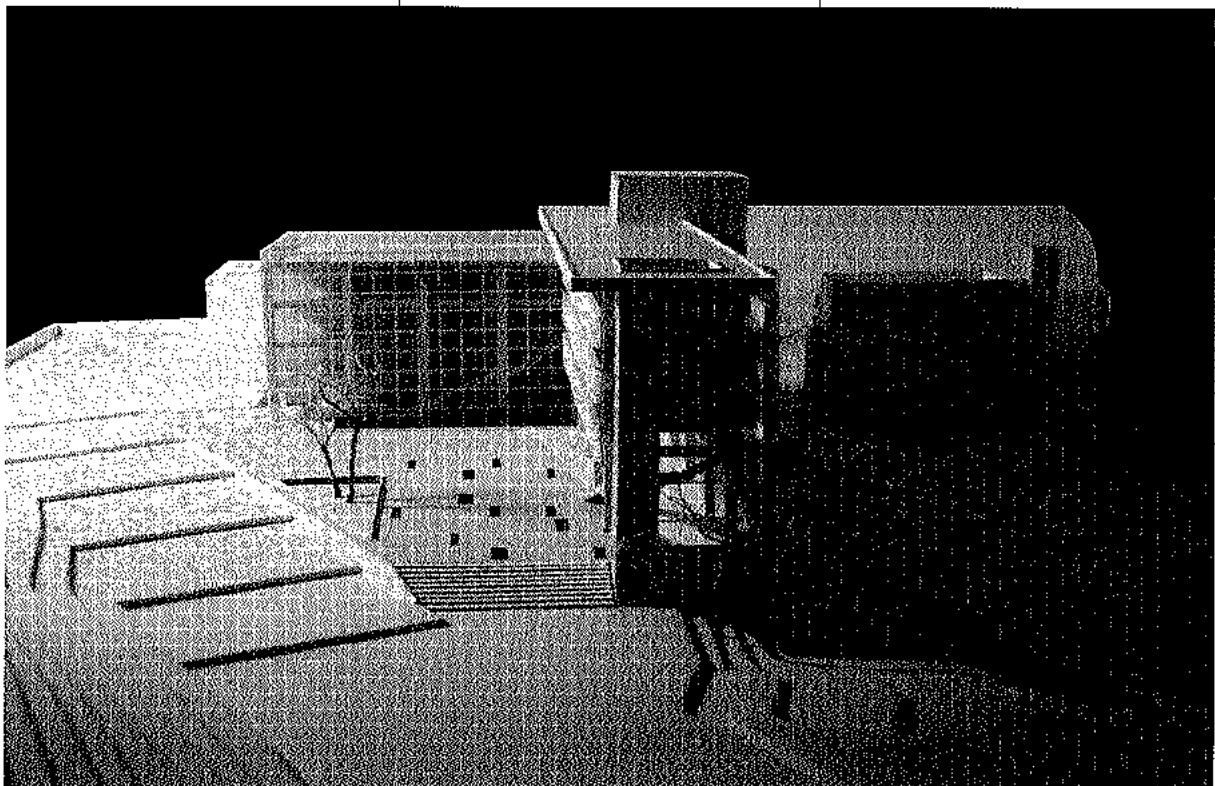
▶ 당선작 / (주)엑토 종합건축사사
무소(주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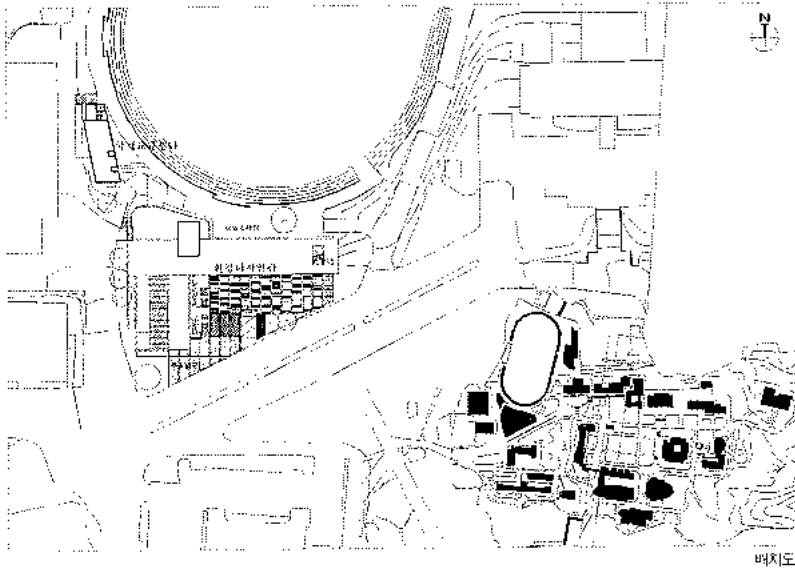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

지역지구	지 서울시립대학교내
주요용도	준주거지역, 경관지구
대지면적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444,190 m ²
연면적	1,393.49 m ²
건폐율	7,276.03 m ²
용적률	0.31 %
규모	1.16 %
구조	환경디자인관(지하2층, 지상6층), 국제교류센터(지하1층, 지상5층)
최고높이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주요설비	환경디자인관(18.10m), 국 제교류센터(13.00m)
설계팀	환경디자인관(노출콘크리트, 유 공알루미늄 + THK18복층유리) 국제교류센터(노출콘크리트와 수 성페인트 + THK24복층유리)
	최진석, 공정식, 최진웅, 고찬욱

부지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
는 것처럼 보였으며, 미술대학에 속한
학과들과 숙소기능을 가진 시설이 복

합된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점은 우리
를 당혹하게 하였다. 또한 우리는 창작
공간이면서도 그 창작과정에서 발생하
는 소음과 분진 때문에 반환경의 천덕
꾸러기가 되기 십상인 환경조각과의
작업장을 실내로 끌어들어야 했다.
건물의 배치와 오픈스페이스 체계와
관계되는 문제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
지 선택을 놓고 토론을 하였다. 장차
철거후 더 큰 규모로 증축하여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음
악관(2층건물)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
이냐 와, 진입하여 좀 더 안쪽에 위치
한 본관-건설공학과-전농관 등이 이루
어 내는 공간을 중시할 것이냐 하는 문
제가 그것이었다. 우리는 많은 토론 끝
에 대운동장과, 부지 남서쪽의 녹지대,
그리고 캠퍼스 주축인 배봉로가 만나
는 곳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
며, 결과적으로 건물은 진입방향에서
보면 돌아 앉은 모습이 되었다. 이는
물론 전자를 선택할 경우 건물이 부지
와 접한 길 쪽으로 다가와서 부근의 보
행자 흐름이 통과형으로 빨라질 염려





배지도

가 있다는 것도 작용하였다.

건축은 주어진 프로그램을 충실히 그리고 멋지게 번역하는 번역자로만 남아서 안된다. 24시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조각과와 휴식기능의 국제교류관의 결합이라는 프로그램은 건축이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기결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질적인 두 시설의 복합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개의 시설을 분리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국제교류관은 가능한 한 체육관 뒤쪽까지 옮겨서 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동선이나 기능의 명료함을 선호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질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충돌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사회학적 생산의 여지를 중시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작업장과 관련된 문제들은 부지가 10m 정도의 높이 차가 나는 경사지였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는 평지에 비하여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또한 집진과 흡음과 같은 기술적인 고려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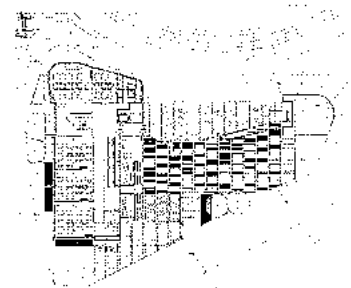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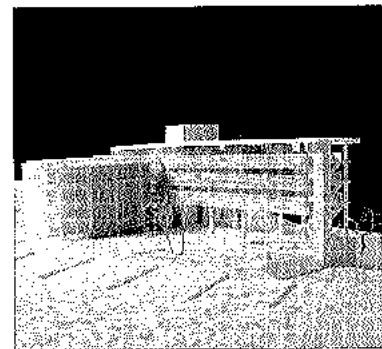
오히려 이는 프로그래밍 즉 시설(Institution)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즉 작업과정의 창작노

동이 소거되거나 숨겨져서 아이디어로 대체되는 듯한 현대예술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볼 때, 기술적인 고려에서 작업장이 내부를 향해서도 격리되어야 한다면, 이는 우리가 만들 고자하는 시설이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건물과 대지의 관계, 학생과 교수의 관계, 창작물과 관객의 관계까지도 기존의 왜곡된 관계를 지속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땅속에 묻힌 건물도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여야 하며, 관객은 예술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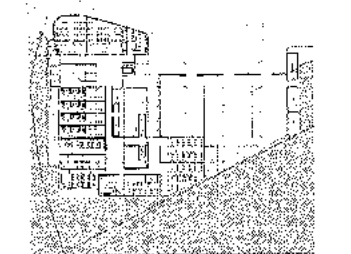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작업장과, 기타 기능-예컨대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작업실과 같은-사이의 벽을 허물고 그곳에 여러 커로 된 투명한 유리벽이 세우고 그 사이에는 깊숙이 햇빛과 바람이 채웠다. 창작행위를 고착화시키는 두꺼운 벽들은 점선으로 바꾸고 창 의 모듈을 면적모듈에서 이탈시킴으로써, 공간을 수직화해왔던 간막이들의 근거지를 박탈해 버렸다. 이제 개실과 복도의 관계는 더 이상 전용면적과 통로의 관계가 아니다. 모든 공간은 작업장이며 휴게실이며 토론장이다. 이로써 실명이라는 이름으로 명사화된 개실들은

이제 그 이름만 남게 되고 오히려 그 옛날의 동사로 환원된다. 건물은 미술품의 전시에 따라 벽이 이동되는 미술관과도 같이, 창작작업에 따라 벽이 이동되고 그 작업은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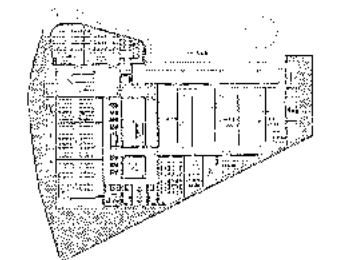
창작행위는 그 결과물만큼 중요하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솔토건축사사무소
(조남호)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서울시립대학교 內
대지면적	444,190㎡ 중 3,000㎡
건축면적	1,760.78㎡
연면적	7,551.78㎡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요외장재	신토석 (붉은벽돌/ 미색벽돌), 노출 콘크리트, 투명복층유리
설계팀	이해구, 이다현, 김용화, 서범석, 김환수, 문형승, 고영산, 김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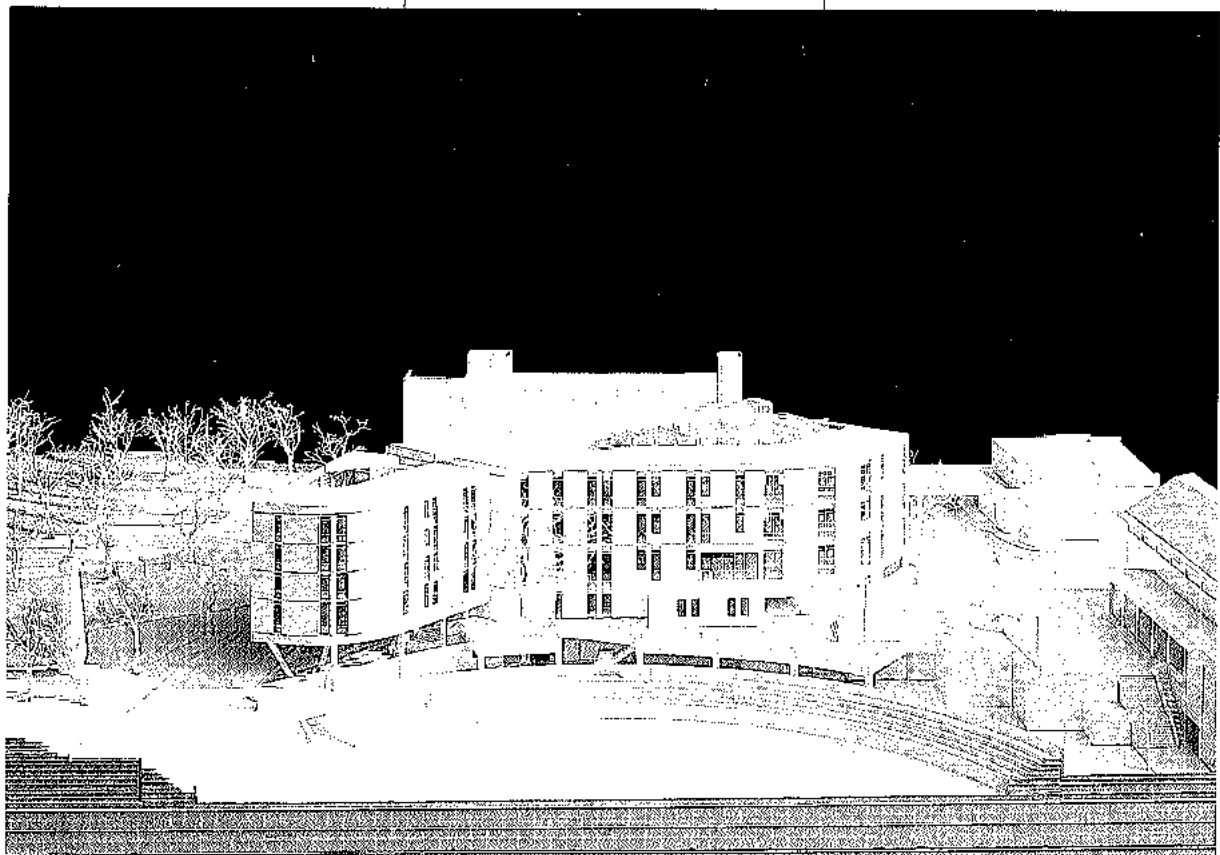
채움, 비움의 또다른 형식

현상설계 후 시상식장에서 만난 다른 팀들은 우리 안에 대해 의외라는 표정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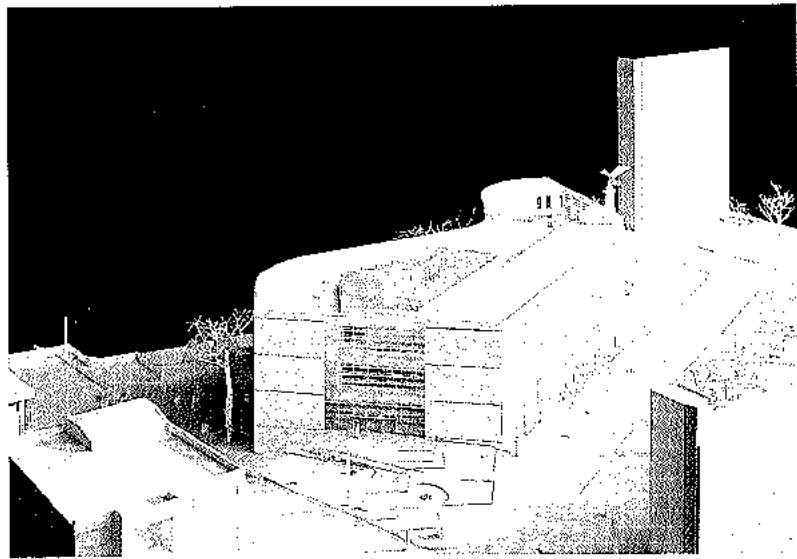
우리가 현상설계를 임하는 계획부지는 진입 오픈 스페이스를 지나 캠퍼스의 중심공간으로 접어드는 위치로서 부지 선정 때부터 대운동장 쪽의 유일한 개방감을 훼손하는 결과가 우려돼 반대론도 만만치 않던 곳이다. 따라서 열린 공간으로의 건축과 진입로에서 운동장으로의 개방감 확보는 모든 참여자가 공감하는 지침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도 초기의 대안 선정은 비우고 여는 작업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쉽게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계획부지의 협소함과 진입 레벨에서 두 개층 하부에 임반이 나오는 지질 조건/ 소음 진동의 구획을 분명히 해야하는 2개 학과와 국제교류센터/ 보존의 필요가

있는 오랜 수령의 나무들/ 이 모든 요인들이 그동안 연구하였던 어떤 대안도 편안해 보이지 않게 했다. 더구나 부지는 겨울에 거센 찬 바람이 상존하는 곳이다. 북쪽을 위한 개방은 바람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즈음의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비우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비우는 것에서부터 채우는 고민으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막힌 벽을 지나 열린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비움을 뛰어넘은 비움이 아닌가! 채움에서 비움을 경험한다면 그 또한 상당한 회열일 것이다. 중앙의 아트리움은 사계절 변함없이 활동적인 비움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다양한 축의 형성에 대응하는 변화 있는 공간을 창출할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진입 스케일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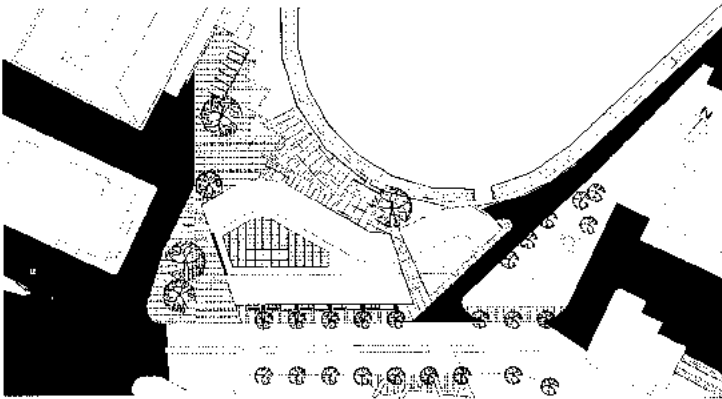


려할 때 3층의 건물 군이 주종을 이루면서 가장 편안해 보인다. 진입도로에서 3층의 규모는 지붕을 넘어 본관이 보이고 이는 또 다른 비움의 모습이다. 서울시립대를 졸업한 운동을 좋아하는 직원은 운동장에서 시각을 중요하게 이야기한다. 운동장 벤치에서의 파형 이미지와 오랜 수령의 나무들을 살리려는 노력은 본 건물에 영향을 미쳐 변화 있는 건물의 Mass를 제공하였다. 내 나이 보다 오래도록 그곳을 지켜온 고목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연계된 옥외공간을 조직해서 환경조각과의 조각공원으로 활용하였다. 그 지하에 각종 소음과 진동 발생 실을 배치하고 데크 처리하여 소음과 진동 등의 과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이 조각전시장은 캠퍼



스 내의 소외돼 보이는 거리를 음악관과 체육관과 연계하여 문화적인 벨트를 구성하여 보다 활동적이고 생기넘

치는 캠퍼스를 꿈꾸는 한 건축가의 작고, 소박한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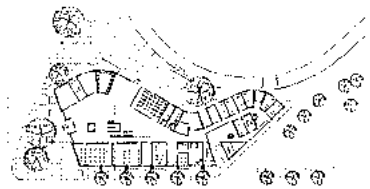
개치도



단면도



복측입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시하층 평면도

▶ 가작 / (주)우리건축사사무소
(고영우·박승수)+(주)우리동
인건축사사무소(노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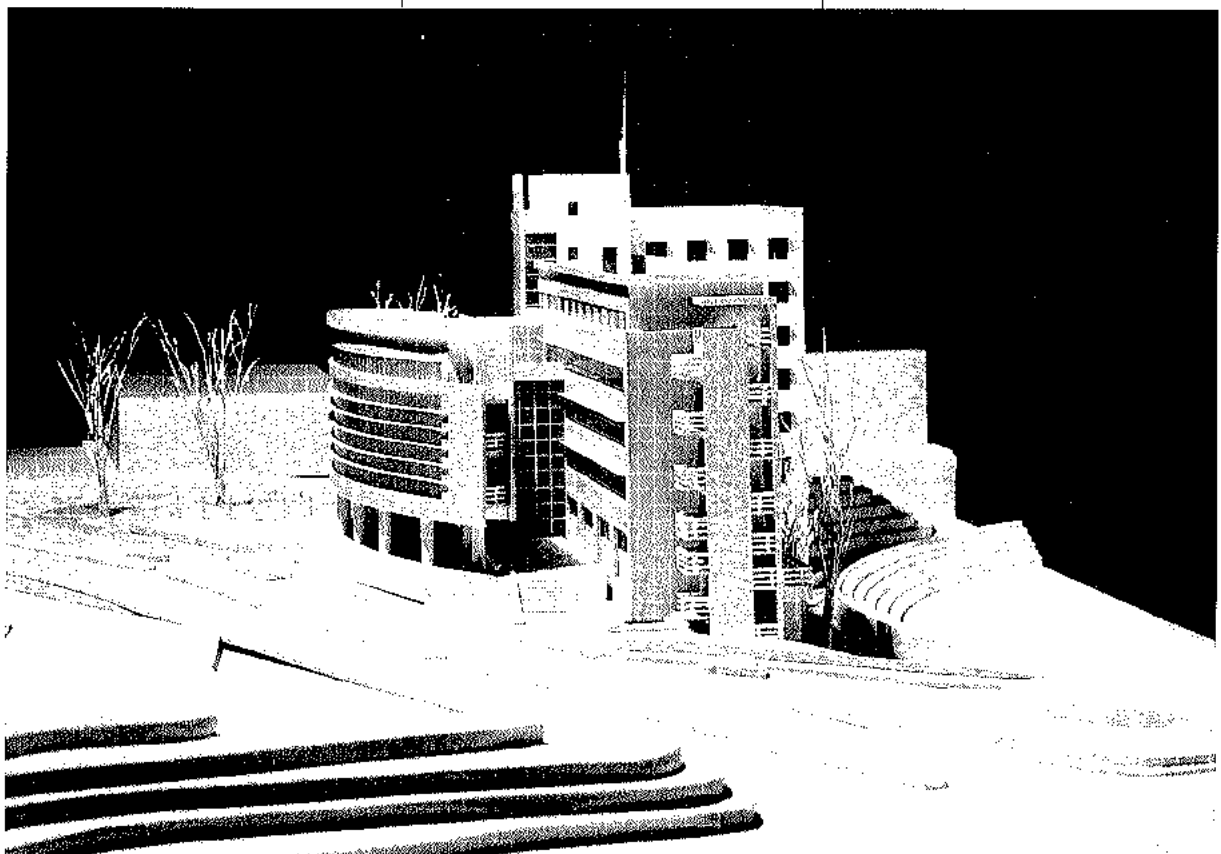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건축면적 1,214.44㎡
연면적 7,085.78㎡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외부 마감 화강석버너구이, 일부치장벽돌
컬러알루미늄쉬트, 복층유리
주요시설 강의동, 연구동, 교육/숙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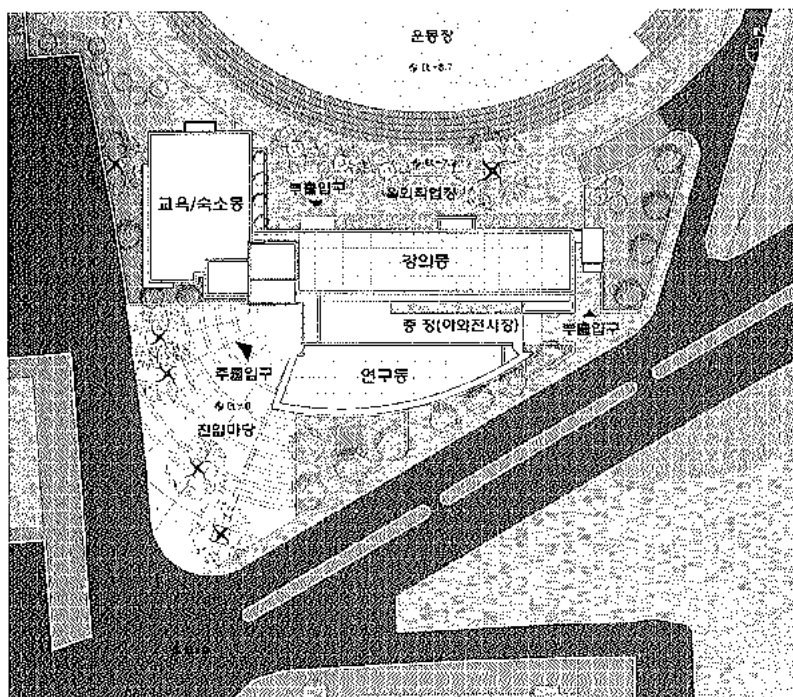
본 계획 대상지는 마스터 플랜상 주축 (main axis)에 접해 있으며 경농관, 본관, 대운동장, 체육관, 음악대 등이 만나는 동선상 결절점(node) 상에 놓여있어, 이곳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이러한 특성은 건물 내부공간 보다는 주변건물과의 관계 (특히 대운동장과의 시각적, 기능적 개방감 확보), 외부공간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캠퍼스 주축에 평행한 매스를 두개로 분절하여 그사이에 중정을 두어 건물의 깊이감을 부여하고, 전면 매스를 낮게 하여 스케일감을 완화시킴으로서 주접근로에서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낮은 매스하부에 필로티를 두어 중정과 연계시켜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축에서 운동장과 관계설정된 건물 내부에서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자연스런 연결

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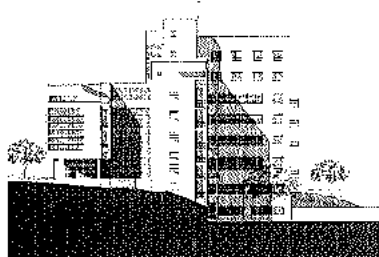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조각과 실습실은 운동장과 면한 지하에 둠으로써 접근은 운동장과 같은 높이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상층의 강의실은 소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하였다. 국제교류생을 위한 숙소동은 추후 예술대학이 확장될 것을 대비하여 별도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상부층에 둠으로서 기능적인 상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접할때마다 느끼는 감회지만, 특히 이번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운 대지조건이나 기능적인 악조건 모두 보다 새롭고 독창적인 안을 만드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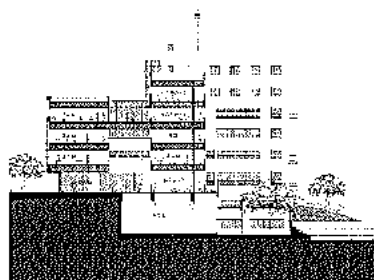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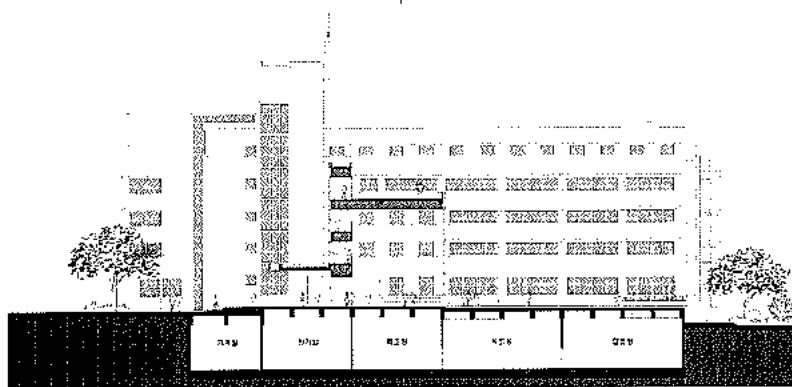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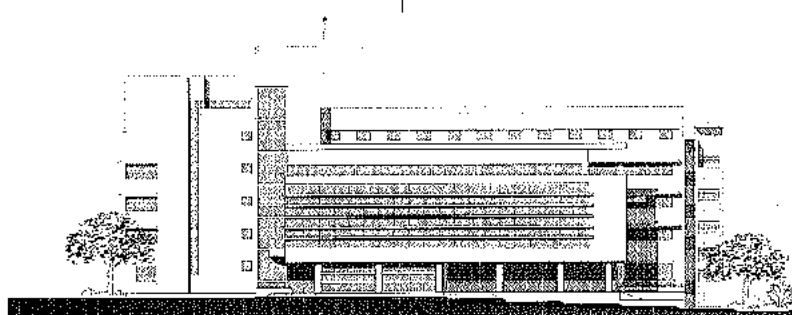
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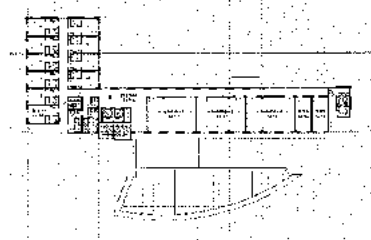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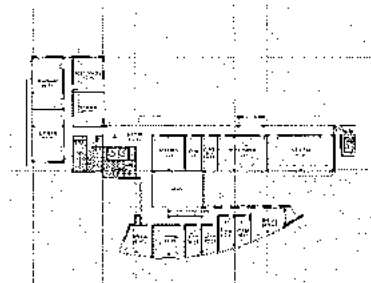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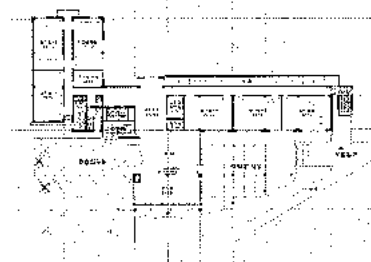
상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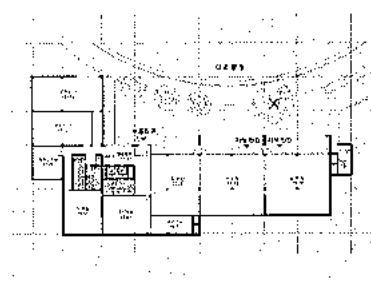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시호:1층 평면도

구로승무사무소

Guro Crew Office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 2호선 고가역내에 있는 구로승무사무소를 별도부지로 이전, 신축하여 장소 협소 및 소음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하고 있는 지하철 승무원 및 기술분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했다. 총 10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번 설계경기에서는 (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변 용·김규민)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지난 2월 8일 발표했다. 우수작에는 (주)원양건축사사무소(이종찬) 안이,佳作에는 (주)건축사사무소 권원(김종국) 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는 강석원(그룹가건축)씨를 위원장으로 우시웅, 김봉희, 신유진, 양내원, 이유림, 서혜림, 이진원, 손세관, 김성길씨 등이 맡았다. 올 해 말 착공하여 2003년 3월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 당선작 / (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변용·김규민)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0-3호 외 9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416.8㎡
건축면적	1,923.2㎡
연면적	6,031.6㎡
건폐율	56.3%
용적률	160.8%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화강석배너마감, 알루미늄 커튼월,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임동원, 이승훈, 최준석, 이동장

승무사무소...대위법(對位法)의 건축 대지전면 대로변의 소음과 진동이 심한 고가역사(대림역)가 접하고 대지후면으로는 저층의 낙후된 주거군이 접하는 중간지대에 속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대위적인 방식으로 건축계획의 축을 잡았고 이로 인하여 다소 조용한 주거군측으로 침실동을 두고 고가역사측으로 작업공간을 배치하였다.

침실동과 작업동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휴정(休庭)은 내향적인 성격이 강한 마당으로 주변도시환경에 대응하여 비움을 제공하고 아울러 자족적으로 완결성을 모색하는 의미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승무사무소에 부여하려는 의도였다.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저층에 공용시설을 상층부에 사무영역을 두었는데 사무영역은 사용편의를 고려한 그룹핑의 결과로 설계되어 휴정과 접하는 사무실과



고가역사에 대응하는 작업/창고/대기실
류음으로 하나의 단위 유닛을 이루도
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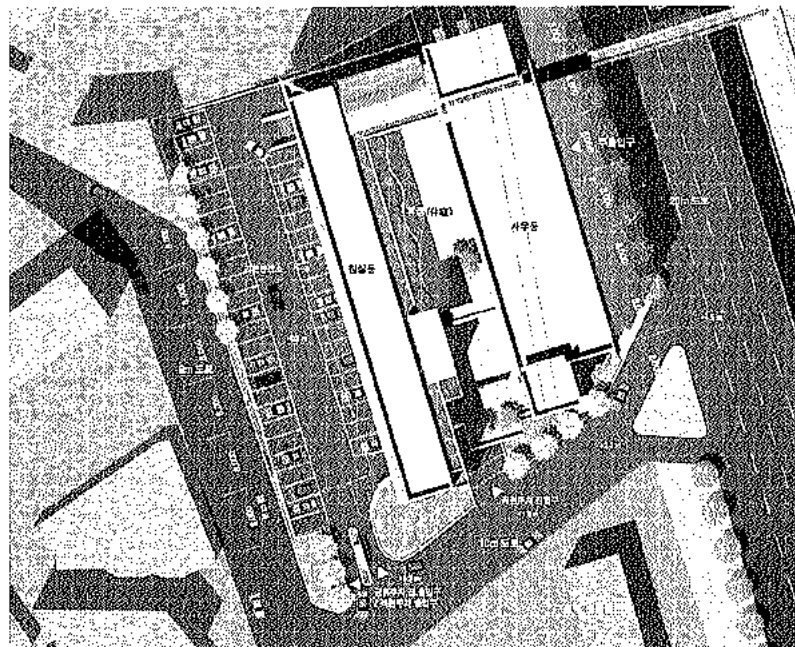
계획의 주개념인 대위법(對位法)의 건
축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도시환경
에 대한 건축의 의미를 찾기위한 방법으
로 대지주변의 환경특성을 대지내로 끌
어들여 건축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계획의 전체
적인 공간구성과 배치는 이러한 맥락에
서 단계별 발전을 거쳤기에 결과적으로
주변도시를 끌어안는 건축, 지역의 맥
락과 건물용도를 충실히 해결한 건축으
로 이해되기를 기대해 본다.

설계후기

건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 그러하겠
지만 지난 두달 남짓한 시간동안 승무
사무소 라는 다소 생소한 프로그램을
풀어내는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은 고민
을 동반했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기위해 많은 시간
을 투자했고 수차례의 현장답사를 통해
대지가 처한 도시적 특성을 파악하고 나
서야 본계획의 명확한 방향을 잡할 수
있었다.

기존변전소의 이전문제, 전면도로보다
낮은 대지레벨, 기존공용주차장의 수용
등의 난제로 인한 설계상 해법모색이 수
시로 엇갈리며 과중한 고민이 요구되었
고 이러한 고민의 과정속에서도 전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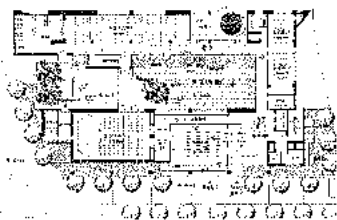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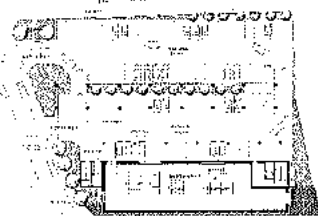
인 들을 유지하며 다양한 문제점들을 풀
어나가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푸는 과정
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작
업의 가장 큰 즐거움이지만 말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승무사무소의 역할과
본분을 건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
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
인 계획상에서 보편성을 잃지 않으려 노
력했고 그러한 보편적 가치들속에서 소
박한 건축의 맛이 드러나길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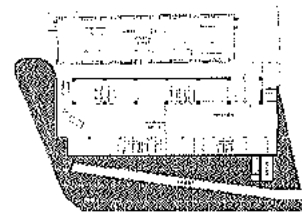
이 건축이 사회와 시대에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알도리가 없으나 후
일 이곳을 찾게 되는 많은 이들이 지금
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건축의 맛을 발견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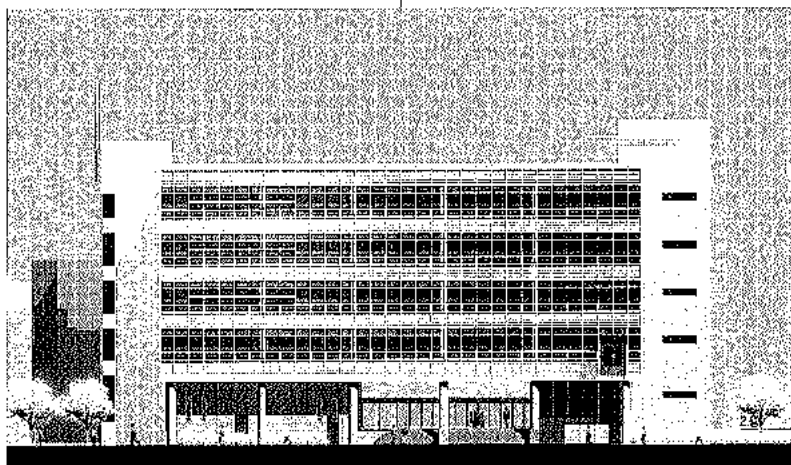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동측면도

▶ 우수작 / (주)원암건축사사무소
(이종찬)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0-3호 외 9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공하고도지구
대지면적	3,416.8㎡
건축면적	1,294.82㎡
연면적	6,031.6㎡
건폐율	37.90%
용적률	163.03%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마감	투명복층유리, 테라코타패널
설계담당	박기성, 박근우, 장순택, 정주 찬, 박주인, 장명석, 김규리

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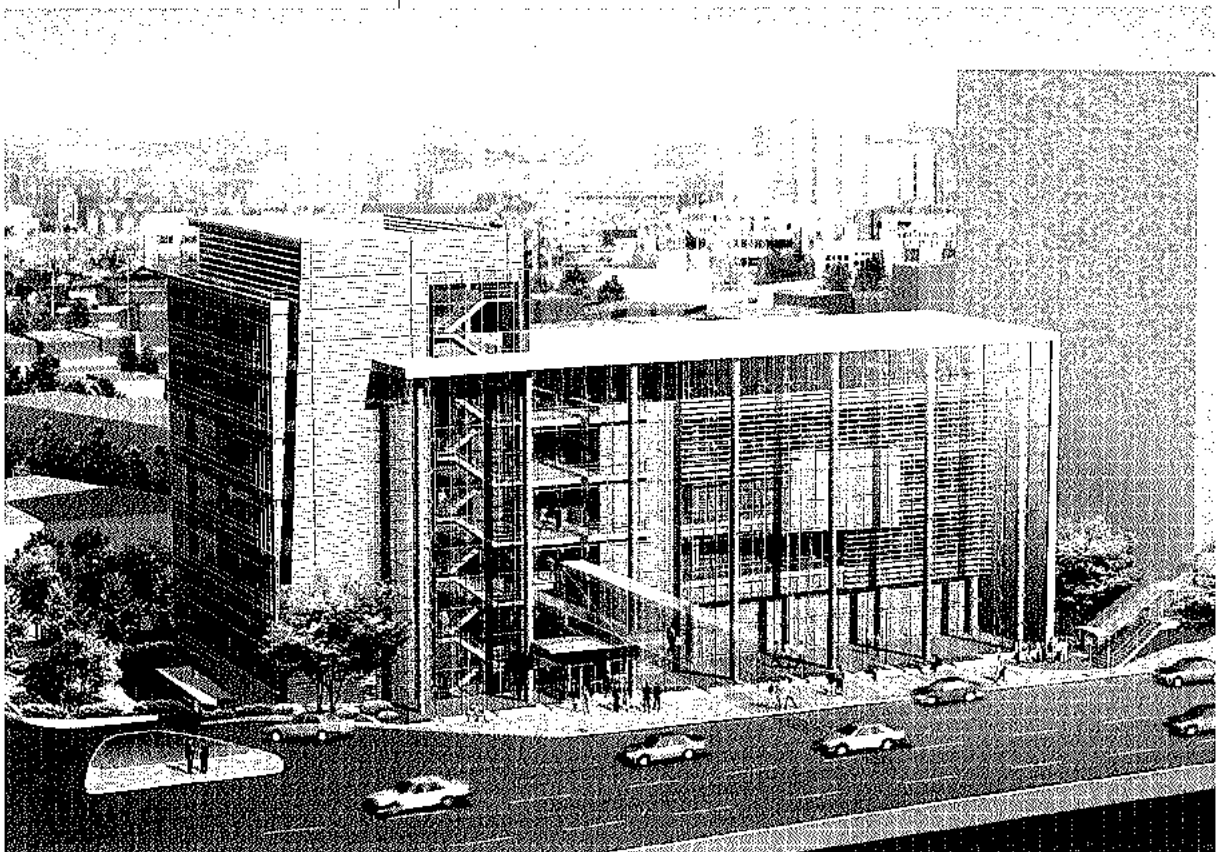
가로변으로 길게 늘어선 낮은 전철역사
표정없이 비쪽 비쪽 솟아 있는 아파트
검붉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우울한 주택
들 이곳에 맑고 밝은 살아 있는 건물, 어
찌면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동식이 내 머
리 속에 각인되어 현상설계 기간 내내
떠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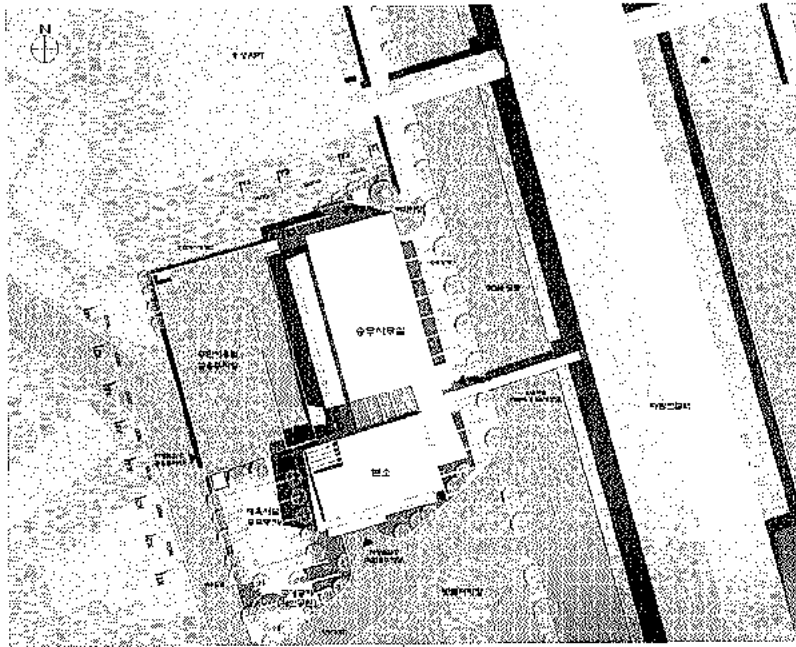
Filter, Shelter, Vital

소음과 진동, 먼지 등의 공해속에 시달
리던 지하철 근무자들에게 조용하고, 깨
끗하고 아늑한 휴식처를 제공하자.
전면에 설치한 아트리움은 조용하고 깨
끗한 공간을 만드는 Filter 이며, 주변
아파트의 Privacy를 보호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봉은 Shelter다. 테
라코타 패널과 목재의 따스함에 둘러싸
인 공간은 격무로 인한 피로를 풀고 새
로운 활력을 얻게 하는 휴식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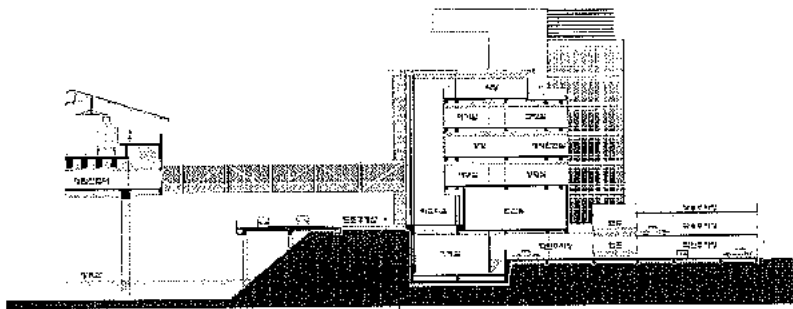
Program

- 기존 변전소 시설을 보호하며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최단거리
로 전력을 공급 할 수 있고, 침수의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전면도로
Level 층에 신설변전소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개 분소와 승무사무소가 Core를
중심으로 독립성을 갖도록 2개의
Mass로 구성하였고, 사무실, 대기
실, 침실, 작업실 등이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 수평증축을 위한 Space 를 확보하
였고 직원의 복리를 위한 시설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승 주차장과 직원주차장의 입구를
분리하여 관리에 용이하게 하고 환승
주차장 이용객이 최단거리로 지하철
역사와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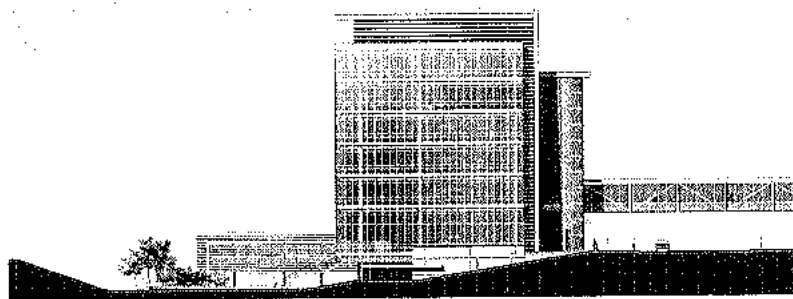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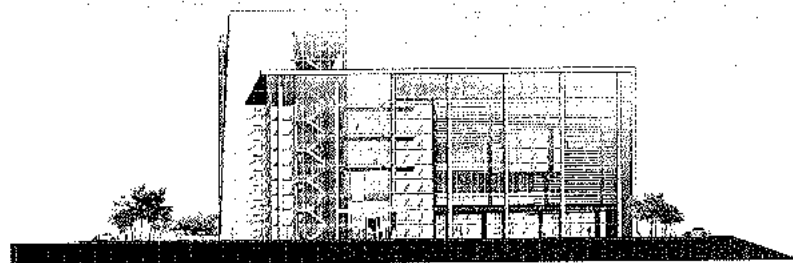
배치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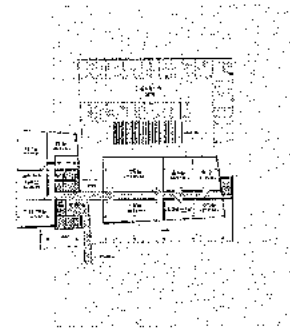
자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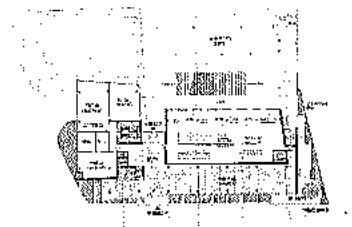
정면도

Nod에는 휴게공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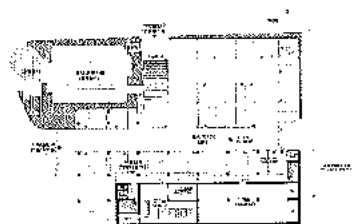
- 대지Level 을 이용 무지하층 건물로 계획 공사비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 직원 전용 브릿지는 기존역사의 휴게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 우수작/건축사무소 건원(김종국)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0-3호 외 9필지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3,416.80㎡
건축면적	1,990.63㎡
연면적	7,704.16㎡
건폐율	58.26%
용적률	162.60%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코어 RC벽체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최고높이	27.5m
외부마감	AL패널, 스틸골판, THK24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김인섭, 송주원, 지태우, 신정 섭, 장웅섭, 남영찬, 이수경

자리잡기

기존 변전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가로 Context에 의한 Mass 형성한다. 역사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경사를 적절히 이용하여 개방감과 친밀감을 유도한다.

기능분리

기능에 의해 승무사무소와 현업분소의 Mass에 의한 Zoning으로 독립성 유지한다.

순응 / 연결 / 변형

대지 형상에 의한 Mass 순응, 아트리움에 의한 Mass 연결 공공기능의 추가에 의한 변형

생성 / 완성

Deck에 의한 외부휴게 및 운동공간 조성 및 저층부의 변형, 디테일의 추가에 의한 완성. 내부 아트리움 조성으로

밝은 실내 연출 내부 기능별 독립 Core로 편리한 동선체계 구축.

축 / 기능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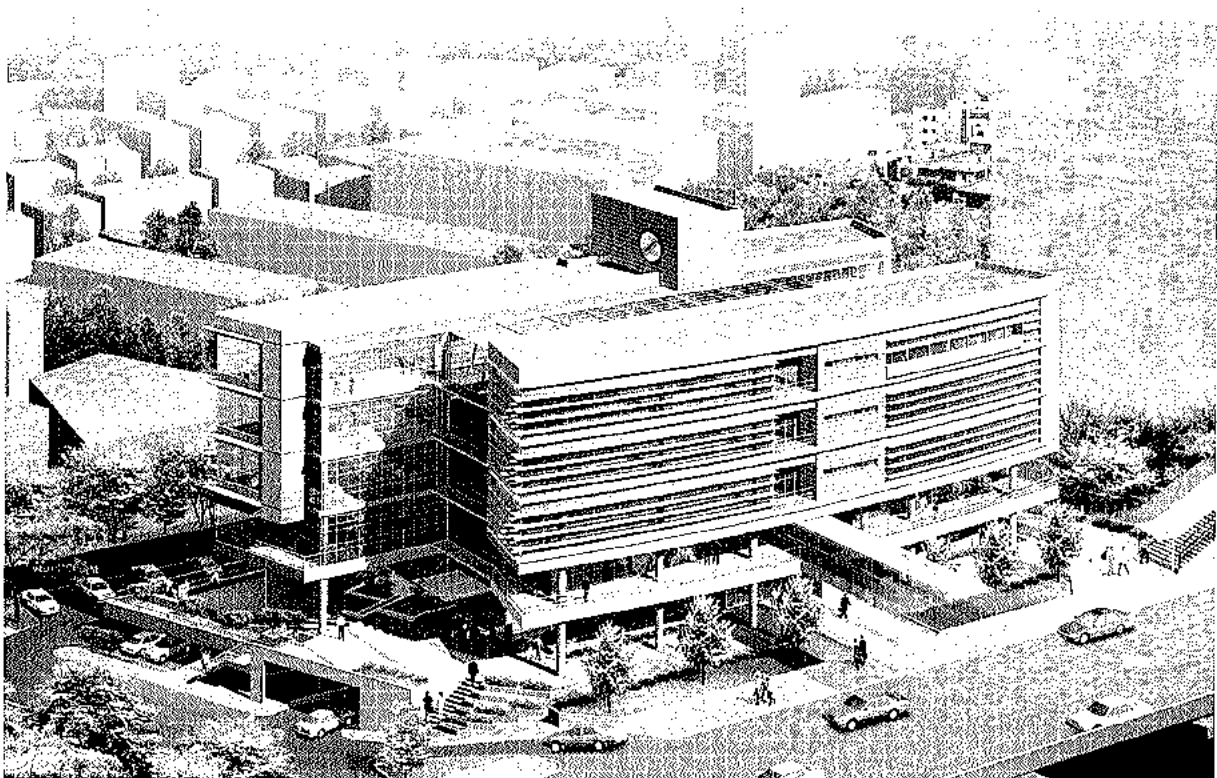
- 가로축에 순응하여 두 기능의 분리 배치
- 아트리움으로 다른 두 기능의 독립성 확보 및 연부로서의 기능을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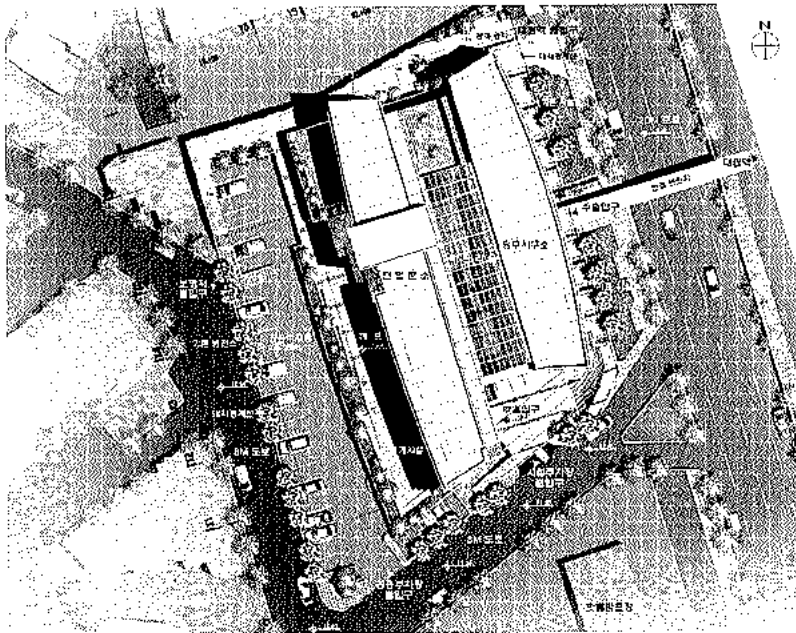
아트리움

- 기능의 완충 및 시각적 연결 공간으로서의 역할
- 내부공간의 편복도 계획으로 아트리움을 통한 일조량 극대화

브릿지 / 코아

- 대림역사와 내부연결통로와 코아의 집중 배치로 동선의 최소화
- 연결통로를 중심으로 기능별 독립코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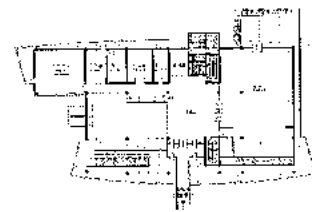
부도면도

종합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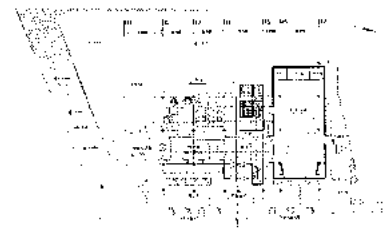
- 보행자 동선 : 지하철 출구와 연계하여 전면 보행로와 후면 휴게시설로 연결
- 차량동선 : 직원차량과 공용차량 출입구의 구분으로 상호 혼재 방지

주차계획

- 공용 주차/시설 주차의 진출입 및 영역 분리
- 공용 주차장을 진출입이 용이한 1층에 계획하여 주민편의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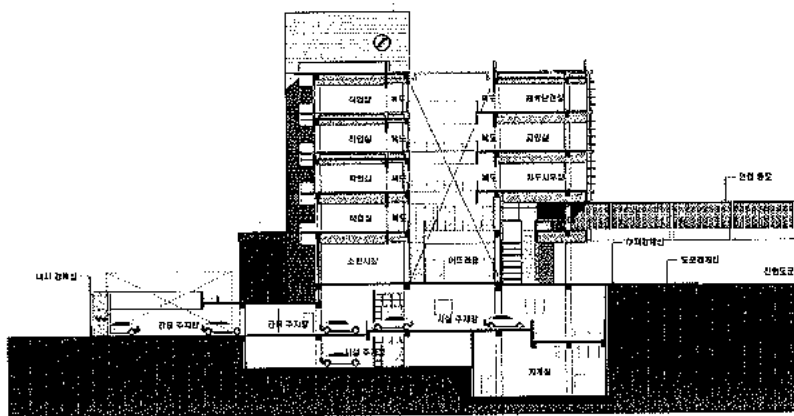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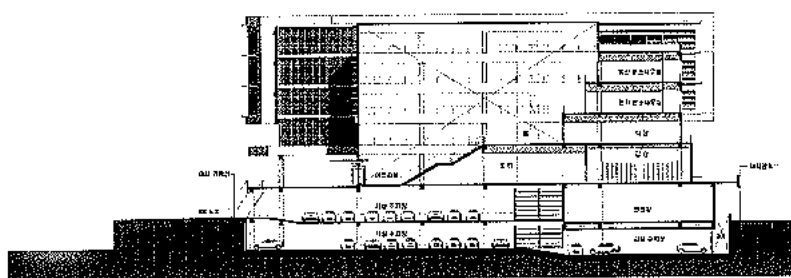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층간면도



원단면도



지하 1층 평면도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4)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화암사

김석환 / 터·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 연재 목차 〉

1. 병산서원
2. 소재원
3. 선암사
4. 화암사
5. 종묘
6. 창덕궁
7. 부석사
8. 툇락당
9. 영선암



산중에서 조용히 나타나는 화암사 입구 정면

백제 패망의 길목에 위치한 사찰

화암사는 전북 완주군 운암면에 소재에 있다. 화암사가 위치해 있는 이곳은, 삼국시대말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경주로부터 거창과 육십령 고개를 거쳐 부여로 향하던 길목이다. 신라가 백제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의자왕은 감옥에 갇혀 있는 성충과 홍수에게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는가 하고 물어 오라고 했다. 그러자 그들은 탄현을 막아야 된다고 진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시기했던 신하들은 왕에게 그 말을 믿어선 안된다고 간언했고, 충언을 듣지 않은 백제군은 마침내 탄현을 넘어 진격해 온 신라군에게 패해 황산벌까지 밀려났다. 그리고 화암사가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마루가 바로 그 탄현고개이다. 무주에서 장수로 내려가는 백두대간 산줄기로서, 호남과 영남의 경계가 되며 운장산 너머로는 드넓은 호남평야가 펼쳐진다. 백두대간을 넘을 수 있는 희미한

길의 흔적이 있지만 탄현은 지금도 옛날처럼 한적할 뿐이다. 그만큼 화암사가 있는 이 곳은 험준한 산악이면서, 동서로 통하던 전략적 요충지인 것이다.

이 곳을 넘어온 신라군을 계백장군은 황산벌 전투에서 오천의 군사로 맞아 비장하게 항전했으나, 군세의 열등과 관창과 같은 어린 화랑을 내보낸 신라군의 심리전에 말려 패해 모두 전사하였고 백제의 운명도 막을 내렸다. 그래서 이 곳에 이르면 그 옛날 꺼져 가던 한 국가의 역사적 순간을 떠올리게 된다.

산중에 홀연히 나타나는 수도처

화암사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규모가 작고 찾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 곳만을 위해 먼길을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서울에서 가기에 가장 쉬운 길은 호남고속도로를 가다 익산 틀게

이트에서 빠져나와 원주군 봉동읍과 동상면을 거쳐 운암으로 접어드는 길이다. 운암 삼거리에 이르면 다시 좌측 대둔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2km쯤 가다 나오는 주유소 밑 우측으로 들어가고, 대추가 많이 나는 마을이 나오면 다시 좌측 길로 들어서 1km쯤 되는 곳에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차를 두고 불명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화암사로 갈려면 두갈래 길 중에 우측으로 난 좁은 산길을 들어가야 한다.

화암사에는 길이 없다. 길은 길이되 통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주차장에서 걸어 들어가다 보면 그 좁던 길마저 없어지고 물이 흐르는 자연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약간은 당혹스럽기도 하다. 계곡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바닥의 자갈돌을 살펴 디어야 하고 좁은 계곡 벼랑을 골목처럼 지나야 한다. 그렇게 더 나아가다 보면 지형의 단차를 따라 쏟아지는 작은 폭포도 두엇 만나게 된다. 어떤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위험을 막고자 공사 현장용 발판을 깔아 놓을 때도 있다. 그리고 것처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동안 사람들의 의식은 점차 세속과 멀어지게 된다.

옛날에는 화암사에 도달하려면 그 계곡 끝을 막아선 절벽을 기듯 올라가야 했다. 그런데 근래에 그 옛길 대신 긴 철사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마치 공중에서 묘기라도 부린 듯이 꿈쩍하게 생각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마치 천상을 오르는 계단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법하다. 주변 절벽을 올라 들어온 쪽을 바라다보면, 어느새 굽이굽이 중첩된 능선이 저만큼 멀리 펼쳐져 보인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 조금만 더 가면, 화암사는 그 위치를 모른 채 계곡 길을 더듬어 올라간 이들에게 불명산 어느 뒤편에 홀연히 나타난다. 산 속을 헤매다 나타나는 그 홀연한 마주침은 마치 구도의 길을 나선 사람이 오랫동안 헤매다 극락의 세계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계곡을 거슬러 어렵게 찾아가 맞닥뜨리는 건물은 성체의 입구처럼 앞을 굳게 막아서고 있다. 작은 다리 너머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은 우화루의 뒷면인데 마당 쪽에서 보면 단층이지만, 입구 쪽에서 보면 이중 구조여서 더 성체처럼 굳세 보여서 마치 웅조리기라도 해야 들어 줄 태세다. 홀연히 나타난 반가움과 그 배척감에 잠시 혼란스런 마음을 가다듬고 보면 좌측 계단 위에 통로처럼 낮은 입구가 보인다.

산사와 구도(求道)의 터전

언젠가 인도 여행때 자연현상을 주제로 만든 테이프를 사 왔었다. 사막, 산, 강, 바람을 주제로 한 것인데, 그 모두가 공통적으로 태초의 황량하고 쓸쓸한 느낌

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을 때면 돌연히 나 자신도 본래의 내면을 찾아 나서 듯한 기분이 된다. 자연을 대표하는 그 각각으로부터 거대한 울림의 느낌이 전해 오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인류역사의 위대한 사상은 다 자연의 힘을 배경으로 나왔다. 유가는 평원으로부터 오고, 도가는 산으로부터 오고, 힌두교는 강으로부터 오고, 이슬람 사상은 사막으로부터 왔다. 그 중 이슬람 사상은 가장 늦은, 기독교 성립후 육백년이 지난 때에 나타났다. 현대처럼 빠르게 변해 가는 상태로는 육백년후 모습이 지금처럼 살아있기를 기약하기 어려울 듯 하지만, 과거에는 변화가 적었기에 그만큼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원초적 신비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사막은 현대에도 그 느낌이 비슷하다. 사막에서의 밤은 죽음이 암시 될 만큼 두렵도록 침묵이 무겁다. 그 때 밤하늘의 별은 유난히 성결케 느껴진다. 어느 때 유성이 성호를 긋고 둥근 하늘을 지나가면, 또 어디선가 애끓는 짐승 울음 같은 소리가 바람결에 스쳐 간다. 그리고 이슬람 사상이 인간에게 구원의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죽음을 떠올릴 만큼 황량한 사막에서 오히려 영혼의 순수함이 불러일으켜지는 힘에 있다.

동양사상의 도는 산으로부터 생겼다. 고대로부터 산은 인간이 변형할 수 없는 원초의 힘이 유지되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한문화원 사람들은 우리 고대의 신선사상이 중국보다 앞서 발생했고, 중국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신선사상이 생겨난 것은 이 땅이 산이 많아 수도처로서 적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처럼 자연의 성결함을 체험할 기회가 많았다. 깨달음은 모두 그와 같은 환경에서의 직관의 순간에 나왔을 것이다. 본래는 산이나 들이 본래 모두 원초적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오지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 인간의 체취가 닿지 않는 야생 동물들의 삶터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식의 홍수를 이루는 현대에 지혜는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고 말한다.

산사는 아직 자연의 순수함이 살아 있는, 그런 환경에서의 수행 공간이다. 산지에 사찰을 짓기 시작한 것은 평지가 세속화되자 좀더 순수한 자연 환경을 찾아 간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맥의 기운이 이어지는 좋은 입지 속에 그 기운을 힘입고자 했다. 산은 주변의 풍광을 관조하며 밝은 빛, 맑은 바람, 편안함, 기분 좋은 시선을 이루게 했다. 그것은 유독 산이 많고 산세가 아름다운 한국의 지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산은 현재에도 인간의 힘으로 범접하지 못하는 그 어떤 원초적 숨결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리고 참된 수행을 행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특히 이

곳처럼 계곡을 가듯 올라가는 오지의 느낌이 더 귀히 다가 오는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화암사의 진입은 특별한 체험의 구도를 갖고 있다. 밖으로부터 입구를 찾아 돌계단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림자가 드리운, 골목 같은 사잇공간을 지나게 된다. 그리고 그 입구로 들어서서도 바로 마당이 나오지 않고 다시 꺾인 골목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마침내 사방에서 건물들이 감싸며 둘러선 마당이 있다. 달혀진 경계를 지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 고요하게 펼쳐진 내부의 아늑한 세계와 만나게 된다. 이처럼 어둠을 통해 빛으로 나가는 과정은 혼돈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을 연상케 한다.

어둠과 밝음은 음양사상의 상징이다. 동양적 우주관을 대표하는 음양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음과 양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생성 발전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진리에 있어서뿐 아니라 마도 마찬가지로 원리로 이해하고 있어서, 상반된 요소끼리의 만남에 의해 힘이 발생된다고 생각한다. 사물의 고유성은 독립된 개체의 특성 여부로서 규정되고 그 의미는 다른 사물간의 관계에 의해 부각된다. 옛 건축도 닫힘과 열림, 조용함과 분주함, 빛과 어둠, 긴장과 이완, 엄숙함과 평화로움, 움직임과 고요함과 같은 상반된 요소의 대치와 조화에 의해 감각이 창출된다. 건축은 정적이며 자연은 동적이다. 침묵에 의해 자연의 기가 느껴지고, 공간의 흐름, 시선의 흐름과 빛의 변화, 물의 흐름, 지형의 흐

름과 함께 균형미를 이룬다. 오랜 경험으로 축적돼 온 감각은 부도를 만들거나 불탑을 만들거나 불상을 만들 때 발휘되던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 시대 건축가들은 디자인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에 생겨난 관념이다. 옛 사람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계량적 의미가 강한 관념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격이 낮은 것으로 생각했다. 멋은 감각적이며 종합적인 느낌의 어휘이다. 그리고 단지 일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가운데 멋을 추구했다. 그 시대에 가졌던 멋의 관념과 감각은 보다 넓고 우주적이다. 자연 지형, 공기의 순환, 빛 등이 미치는 힘을 감각적으로 알아채고 그와 균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전통 건축은 자연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응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화암사의 멋도 그렇게 이루어졌다.

단조로운 배치와 풍요로운 느낌

화암사는 규모가 작은 아담한 산사이다. 경내의 건물이라야 국락전, 우화루, 적묵당, 불명당, 명부전, 취영제, 산신각 등 대여섯 채가 전부이다. 이곳의 좁은 경내에서는 부석사처럼 교리를 도식화한 과정적 배치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그같은 상황에서 중앙을 통해 마당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는 매우 건조한 느낌이 들것이다. 그렇지만 화암사는 동선 처리가 좋아 입구에서 맞닥뜨린 부담을 해결했다. 단순한 구도지만 경내가 풍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좁고 늘어선 잔입 동선에 의해, 시간적 연장과 공간의 대비적 감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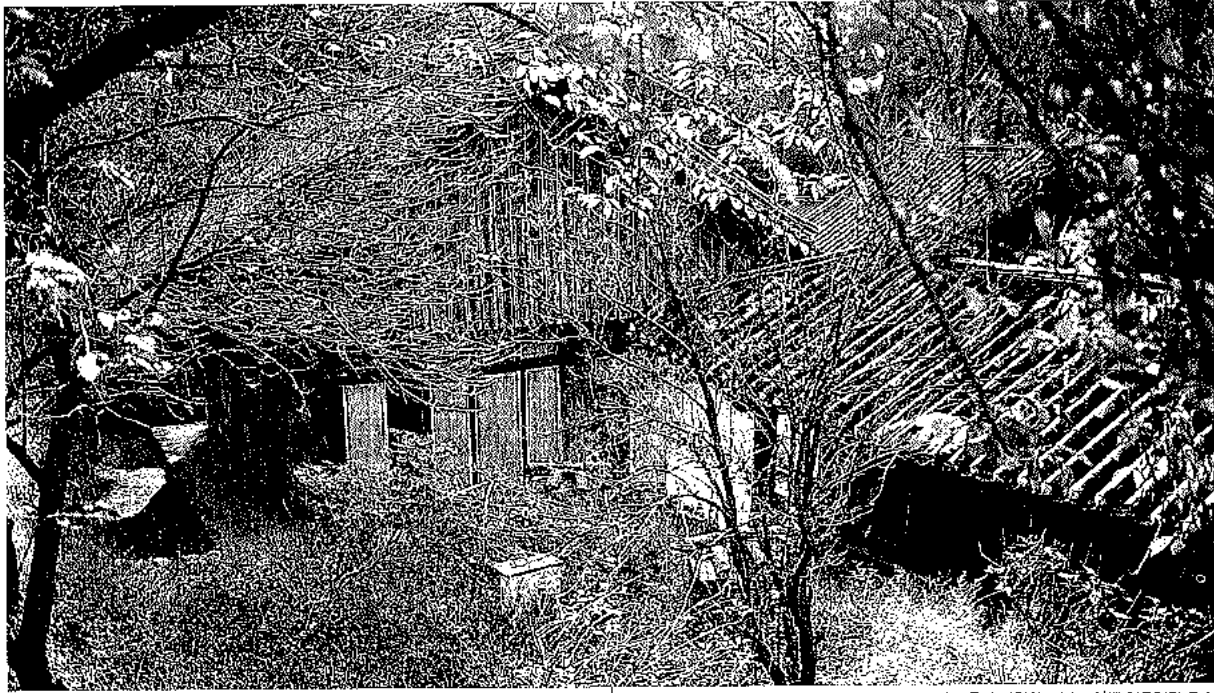
4



5



6



자연정취속에 건물이 산란하는 빛과 함께 어두워진 모습

각을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숙함과 여유로움을 동시에 확보했다.

화암사의 진입 동선은 골목과 같은 통로를 따라 들어와 한켠으로 조용히 움직이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안으로 진입하면 무의식적으로 적묵당 마루에 앉게 된다. 화암사의 내부 동선은 참 알뜰하다. 주 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적묵당의 마루 앞을 지나게 되는데, 마당 중심에서 비켜선 그 동선이 간결하여 마당의 힘을 깨뜨리지 않는다.

동선은 마루와 만나고 잠시 머무르다 다시 조용히 움직인다. 그 조용한 몸가짐들이 차분한 분위기를 지켜 주고, 도량의 엄숙함을 유지하게 된다. 이 정도 규모로 이룩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감동적인 일이다. 우화루 아래에서 곧 바로 진입했다라면 지금 같은 호호를 느끼기 어려웠을 것이다.

산사는 밀교의 영향으로 잡다해진 경향이 있었다. 그래도 화암사의 배치는 위계의 축과 시선의 축이



7



8



9

1. 회암사 오르는 길
2. 회암사에 오르는 계단길
3. 회암사로 오르도록 만들어진 칠거린
4. 맞잡에서 내려본 절계단
5. 입구로 오르는 계단
6. 회암사 오르는 계곡의 폭포
7. 대웅전 마당쪽의 적묵당 뒷마루
8. 경내로 진입하는 종로
9. 어둠에서 빛으로, 진입 구도
10. 대웅전 앞마당



10

있다. 극락전은 남향을 하며 우화루와 축선을 이루며 종교적 엄숙성을 형성하는 구도이다. 그리고 적묵당과 불명당이 그와 직각으로 시선의 축을 이루고 있다. 그 시선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불명당을 넘어 트여 나간다. 적묵당 마루에서 불명당 너머로 바라보면 푸른 하늘에 실루엣을 그리며 산 자락이 펼쳐지고, 능선을 넘은 빛이 그윽이 서려 있다. 설선당 맞은편 산을 오르면 그러한 산사 배치를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다. 경내는 밖에서의 폐쇄적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 풍광을 마당에 끌어들인 채 개방감을 갖게 했다. 그리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을 목적 없이 들른 방문객들도 요사체 마루에 앉아 그 정취를 한동안 감상하다 일어선다. 하지만 정작 그 시선은 사찰 주변에서 보이는 멀리 펼쳐진 장관의 풍광을 향하고 있지 않다. 어쩌면 그것은 그러한 풍광을 보는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려는 생각일 듯 하다.

화엄사는 경내 곳곳에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장소적 체험을 할 수 있다. 대웅전 마당, 불명당과 명부전 사이의 마당, 요사체 마당에서 각각의 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극락전 쪽 마당은 때때로 불교 의식도 거행되는 사찰의 상징적 장소이다. 그래서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엄숙성을 띠는데 비해 그 반대쪽 면은 요사체 마당으로서 일상적인 기능성에 맞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마당은 대웅전 앞과 달리 작고 소박한 느낌이다. 그 작고 소박함은 대웅전 앞마당을 엄숙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한 대비된 취급이다. 정작 중요한 공간은 비워 둔다. 스승을 모신 수도처로서 수행자들은 생활의 모습이 마당에 드러나지 않게 조심한다. 적묵당

은 마치 이웃집처럼 불전 영역과 등을 마주 대하고 있다. 자신의 몸체로서 영역을 가르며, 그 앞과 뒤쪽에 성격이 다른 마당을 형성한다. 여러 살림 마당이 있기에 극락전 마당이 엄숙한 느낌으로 간직된다. 고즈넉한 사잇마당과 뒷마당에는 수행 생활의 삶의 체취가 드러난다. 거기에는 생활 도구를 갖추고 있고, 창고도 있으며 공양할 때 피어오르는 굴뚝의 연기처럼 수행자의 소박한 삶의 자취가 있다.

그리고 설선당 뒷편 산봉우리에 오르면 산 자락이 멀리 겹겹이 펼쳐진다. 그 먼 감각에 잠시나마 너럭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빠져들 수 있다. 그리고 그곳 모두가 산사에서 수행하는 영역의 일부가 될 것이다.

자연정취와 빛과 사물의 감각

모든 사물은 존재 자체로서 경이의 감각을 갖고 있다. 지구 내 어느 존재가 멸종되는 것은 그 개체의 경이를 잃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의 인식은 존재의 경이를 깨닫는 일이다. 사물은 서로 다른 것이 대비되거나 연관되어 보임으로서 감각이 더 잘 드러난다.

우리의 전통 건축의 멋은 형식적 요인 외에도, 주변자연사물 및 천연의 건축 부재에서 풍겨 나는 담백한 재질미에 의해 호감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갖게 된다. 오래된 건축 부재에 세월의 깊이가 쌓여 자연적으로 변해 가는 느낌은 유물적 힘을 의식하게 한다. 그리고 이끼끼 돌과 고풍스런 재질의 변화는 시간이 사물에 함축되어 생긴 감각이다. 만약 어떤 사물이든지 기계적으로 시간을 누적할 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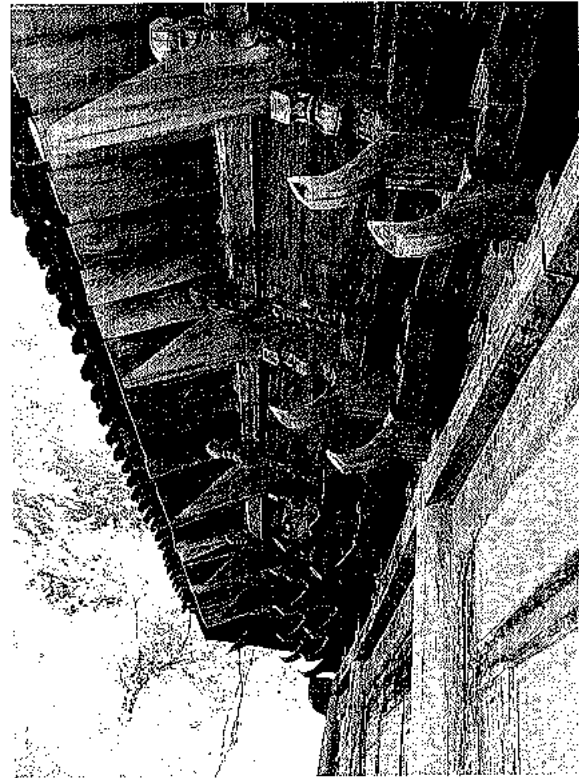
2

있다면, 즉시 귀한 모습으로 변할 것 것만 같다.

이 사찰은 경계가 돌담과 건물, 축대로 둘러쳐 있는데, 입구에서 경내로 들어서지 않고 해우소로 가는 길의 일 쪽은 천연의 너럭바위로 되어 있어서 바위의 물성을 듬뿍 느낄 수 있다. 그 곳은 요새처럼 돌담과 건물로 둘러쳐져 있다. 그리고 경내보다 지형이 높은 적묵당 뒤편에서 보면 건물은 돌담과 축대 아래로 묻혀 보인다. 그러한 구도는 절제의 힘으로 작용할 뿐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부분 부분 뭉개져 자연스럽게 쌓여 있는 돌담 너머로 보이는 바랜 기와 지붕과 산자락의 선이 어울려 함께 정취를 발한다. 가을 돌담 너머에서 사찰을 보면, 형상보다는 빛의 느낌에 의한 감각이 좋다. 가을 들녘에 넘실대는 벼이삭에 비추는 그 햇살이, 산사의 가을 단풍이 물들어 가는 나뭇잎과 돌담과 목재와 지붕 흠기와의 산란하며 느낌을 발한다.

빛이 닿은 자연의 물성 또한 귀하고 아름답다. 모든 사물은 빛이 닿아 존재로 인식된다. 빛은 대자연의 침묵 속에 드러나면서 그 존재를 더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웅달샘에 얼굴이 비춰 질러면 물결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사물을 제대로 느낄 수 있으려면 그 자체에만 의식이 작용할 수 있도록 고요해야 한다. 그리고 맑게 고인 샘물처럼 침묵 속의 빛도 사물을 투명하게 비추는 힘이 있다. 물로 얼굴을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침묵은 영혼을 씻을 수 있다.

전통건축에서 빛과 그림자는 조형 요소로도 작용한다. 긴 처마가 드리우는 그림자는 형태적 입체감을 갖게 한다. 마당은 건물에 위요된 한정된 장소성으로 인



국학전 후면의 하양식 공포

해 자연과 구분된 인위적 느낌을 갖게 한다. 거기다 건물의 그림자가 마당에 드리워 마당 공간을 입체적으로 인식되게 한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합쳐진 중성 공간으로 느껴지게 한다. 전통 건축에서 내부 공간의 분위기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빛이다. 대기의 강렬한 빛은 방안으로



3



4



5



6

1. 전인구의 폭인 골목
2. 국학전 정면
3. 입구 정면의 성채처럼 막아선 우회루
4. 화엄사 전경
5. 불단 바깥에서 바라본 국학전 축단과 적묵당 지붕
6. 대웅전 마당을 시야에 포함시킨 앞마당

창호지를 투과해 들어오며 은은하고 맑은 기운으로 변한다. 그 빛은 조절된 빛이며 다시 자연을 그리워하게 하는 빛이다.

목구조의 공포형식과 국내 유일의 하양 구조

16세기 독일의 사회학자 엘리아스는 문명은 권력의 산물이라고 했다. 권력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 신경 쓰면서 문명이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경복궁 근정전 뜰에는 품계석이 있는데, 그곳에 모이는 왕과 신하들의 복장이 계급에 따라 달랐음을 상기하게 된다.

단지 기후를 이기기 위한 피막 장치로서 대두된 건축도 거주자의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는 사회적 의의를 띠게 되자, 점차 외형을 의식하게 되었다. 건축이 양식화된 것은 기와의 사용과도 연관이 있다. 암사동의 선사주거지처럼 지붕을 초가로 이을 때와 달리, 기와를 얹기 위해서는 건물이 반듯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재를 맞추어 사용함으로써 건물을 더 반듯하고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목재로 동안 집을 지어 오면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하여 형식을 갖추기 위한 구법을 마음대로 구사하게 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포 형식을 사용하여 집을 짓기 시작한 시기는 한사군이 설치되었을 당시 도성 및 건물의 한대 양식 와당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등장하였다. 공

포(栱包)는 포(包), 또는 두공(斗栱)이라고도 하는데 고구려의 가사규제의 내용중 공야(栱牙), 화두야(花斗牙)는 공포 의미로 추측된다. 고구려 고분 벽화인 구신동, 웅강대묘, 쌍영총, 안악 1,2,3호분에 공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공포 기술이 개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세계 최고의 목조건축인 일본 법륭사(7세기 후반)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수법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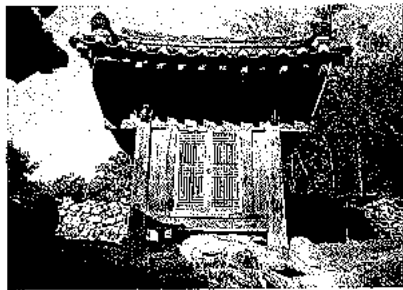
공포는 원래 철저히 구조상의 목적에 의해 발전된 것이다. 공포의 원리는 수직의 벽체와 비홀림을 위한 경사지붕과 만남의 해결책으로 생긴 것이다. 가구식 구조에서 사선부재를 수직부재에 결합시키기는 어려웠다. 기둥 상부에서는 대들보와 도리 장혀등이 복잡하게 모이는데, 지붕의 하중을 원활하게 기둥에 전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일이었다. 처음에 규모가 작고 형태가 간단할 때는 나무덩쿨로 엮기도 하였으나 건물이 커지자 정밀한 형식을 갖추는 필요가 생겼다. 그 때 시행착오 끝에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바로 주두의 사용이었다. 주두는 기둥의 머릿부분에서 기둥과 도리 보를 튼튼히 엮어주기 역할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주두는 공포의 결구도 할 수 있게 한다. 공포를 형성하는 구조체를 포작이라 하는데, 그 형성 원리는 주두의 원리를 응용해서 소로와 첨차를 징작처럼 쌓듯 겹쳐 도리를 받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의장적 균형과 쓸모를 위해 처마를 길게 내려 하였을 때, 그 처마를 받치기 위해 도리의 위치가 기둥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외목도리라고 한다. 그리고 공포는 그 경우 외목도리를 받쳐 기둥에



힘을 전달 할 수 있는 캔틸레버구조 원리의 부재이다. 그리고 공포의 수는 스패의 크기, 지붕의 기울기와 높이에 관계 된다.

그런데 구조의 필요에 의해 생긴 공포는 뜻 밖에도 구조의 간결함에 대비되는 섬세함의 요소로서 건축 미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공포는 후대로 올수록 구조의 목적을 넘어 장식적으로 변하였다. 부재의 끝을 쇠꼬리 모양으로 하거나 옹머리 형상, 물고기 형상 등 여러 장식적인 모양으로 가공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공포는 인간의 허영심을 드러 내기에 안성맞춤인 것이 되었다. 어쨌든 공포는 구조와 의장의 역할을 함께 하는 동양건축의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공포의 형식은 주심포식, 다포식, 익공식, 하양식으로 구분되는데, 화암사 극락전은 국내에서 유일한 하양식 구조로 되어 있다. 하양식은 조간이라 부르는 부재의 끝부분에 의해 된 장식적 가공 형태의 포작을 일컬어 말한다. 조간의 부재는 멧돼지 뿔처럼 억센 느낌이 든다. 그래서 건물도 전통 건축 가운데 펍 특이한 인상을 준다. 하양구조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데, 이 곳에서 처음으로 그 형식이 발견되기 전까지, 일본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에 하양구조가 존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었다. 하양식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발견됨으로서 우리가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화암사는 잘 드러나지 않은 멋 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건축 양식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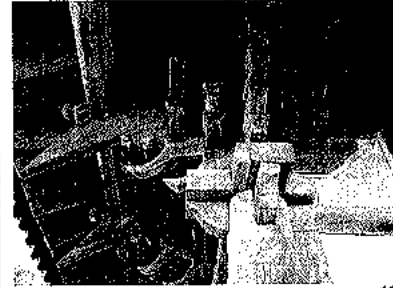
1. 적옥당 측면기 삼익마루에 등하는 건물내부 마루
2. 극락전 측면 및 선불암 주연과 축대가 이루는 사잇길
3. 적옥당 후면 삼익공간
4. 적옥당 좌면 삼익공간
5. 우화루 측면 및 적옥당과 공간재가 이루는 사잇마루
6. 선신각
7. 무화루 기둥널등의 브수 골작
8. 옛산이 비추는 물담
9. 너럭바위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경내 건물들
10. 극락전지 하양식공포 측면



8



9



10

북한 도시개발에 관한 제안

A Proposal for Urban Development of North Korea

김학철 / 한동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by Kim Hak-Cheol

남북정상회담 6.15선언을 통해서 4대 합의사항이 발표된 후 도시계획분야도 통일을 대비해야하는 현실적 요구를 맞게 됐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안한다. 그러나 통일대비의 전제조건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에 주어진 현재 상황과 여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먼저 북한을 북한의 안경을 통해 보는 것이다. 마치 남쪽의 것들을 남쪽의 안목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다음에 통일의 문제를 세계관점(Global Perspective)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 목적

‘생태적 통일국토개발’에 관한 이론과 전략,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통일 후 종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가진다.

‘생태철학’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한다

토지의 주인인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 가능성은 크다. 21세기 초기에 선을 보인 ‘생태도시’는 토지사용제를 갖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남쪽에서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건축을 자유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비효율적이며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생태마을’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보면 북한의 토지공유제도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하면 끝째가 첫째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 동안 적대관계에서 서로 부정적인 면만 들어내오다가 공(公) 개념을 가지고 보니 긍정적인 면이 보이게 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남쪽에도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특히 남쪽의 건축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생태계가 완전히 무시된 국토개발 현상을 보면 첫째가 풀지된 꼴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과 건축설계에서 생태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요즘 환경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환경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북쪽에는 환경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공해가 없는 나라"라고 선전해온 것과는 달리 무절제한 공장운영에서 오는 수질 및 대기오염, '다락 밭' 개간과 '새 땅 찾기' 운동에서 오는 자연훼손 등에서 오는 결과로 갖가지 공해병 문제가 크다. 따라서 양쪽이 나름대로의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개발에 관한 한 북쪽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바로 토지공유화제도다. 이것을 살려 나가자는 것이다.

북한이 그 동안 펼쳐온 '도농균형' 개발과 '직주근접' 정책 등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태학적인 논리와 잘 부합되는 정책이다. 토지공유제도를 즉각적으로 사유제로 바꾸면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동구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경험한 체제전환, 통일 독일이 경험한 '체제통합', 그리고 중국이 겪은 '체제개혁'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인에게 토지를 장기로 공공 임대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 장기로 임대 받은 개인은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개발지연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개별 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임대 받은 사람이 나름대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개발을 생태계 보존(保存)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보전(保展)개념' (Site Celebration) 안에서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거쳐서 도시 및 지역개발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면, 그 연계지역 안에 포함된 지역들의 성장이 빨라지고 국토의 유기적인 통합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의 공생구조(共生構造)가 형성되어 통일국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계획을 확립한다

모든 생물은 이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건축도 생물과 같이 자연환경과의 상호관계 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물질의 순환을 가능케 하는 건축 자재를 개발한

다.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재료는 재생된 건축자재로 가능하다. 이러한 대체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자연과의 연결고리(綱)를 찾아서 자연(SITE)을 보호(保護)하고 발전(發展, Celebrate)시키는 '보전(保展)건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지역 환경 문제에서 일어나는 공해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 전체에 과급되는 지구환경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계하여 연구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대치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탈 근대적 문명으로 전환하여 생태주의적 '보전(保展)개념'을 확립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표로 한다.

남북 공동대학의 신기술 개발연구소에 정보기술(IT)과 관련된 건축설계연구소를 개설한다

컴퓨터를 사용한 건축설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지리정보(GIS)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假想)도시(Cyber-Space)를 구축한다. 그리하여 인프라(기반시설)없이 가상(假想)건축(Cyber Architecture)의 기능을 이용하여 실제 건물을 질 수 있는 가상(可像)건축(Cyber Real)을 갖춘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신기술 개발을 하도록 한다. 새로운 공간문화를 연구한다.

남북관계를 논의할 때에 상대방의 잘못된 점만 꼬집는 행위는 통일이라는 과업을 놓고 볼 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의 논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과업을 수행하자면 평면적인 위치에서 보는 2차원적인 관점이 아닌, 양쪽과 세계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3차원의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 높이를 높인다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와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이 나름대로의 체제형성과 이의 변화과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서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관점(Global Perspective)이라는 가치관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남북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통일의 꿈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주어진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북한의 도시계획과 건축도 봐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평등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원리는 생태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회의 체제를 자기 쪽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보전(保展)적 상생(相生)의 원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절충한 소위 복지국가 혹은 시장 사회주의와 같은 제3의 수정자본주의와도 다른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관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공간적 개념으로는 인간과 자연과의 고리(綱)를 찾아서 자연(SITE)을 보호(保護)하고 발전(發展, Celebrate)시키는 것이며,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대치하는 근대적 문명에서 생태주의적 보전(保展)개념으로 바뀜을 말한다.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연구 내용

평양과 개성은 도시기능, 산업기능, 문화·관광기능, 환경기능, 국제교류기능 등이 집적되고 이러한 기능들이 교통 및 정보통신체제로 결합되어 형성될 수 있는 도시로서 서울과 연계하여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몽골을 거쳐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를 이루고 있다. 이 실크로드의 중요 기점이 되는 개성과 평양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시행한다.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 생태건축에 관한 연구
- 가상건축의 현실화에 관한 연구
- 시티-커뮤니티 교통체계에 관한 연구
-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관한 연구

연구 범위 및 방법

먼저 문헌조사와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실태분석을 시도하고 이러한 일차적 연구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과의 연구협의를 거치고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평양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의 생태도시의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1.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2. 특히 개성과 평양의 항공사진을 수집, 분석한다.
3. 위의 두 가지 자료 분석을 기초로 두 도시의 도시 및 건축 계획의 현황을 파악한다.
4. 독일 및 중국의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미국의 관계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5. 북한에 관한 자료를 독일과 중국의 경우와 비교, 유사점과 상이점을 파악한다.

6. 이 과정에서 중국과 독일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 개성과 평양의 개발 과정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7. 생태철학에 입각한 도시 및 건축계획의 모델을 개성과 평양의 경우를 통해 구축한다. 圖

※ 이 글은 우리협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완)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날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 연 재 목 차 〉

1. 시대적 풍경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여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중국은 1949년 해방 이후,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원림과 녹화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당시 제기된 도시건설의 초점은 “보편녹화, 중점미화(普遍綠化, 重點美化)”에 맞추어졌으며 옛 도시의 개조와 새로운 공업도시의 건설과정 속에서 원림과 녹화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경의 경우, 60년대 초반 10여년에 걸쳐 모두 19만주의 나무를 새로 심었으며 공원면적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공산화 이전 2만주의 나무와 0.3헥타르 규모의 도심공원에 불과했던 상해는 같은 기간동안 15만주의 나무와 40여 헥타르 규모의 도심공원을 갖는 도시로 탈바꿈하였으며 과거 국민정부 시절 관료와 부호들의 개인원림을 일반인들에게 확대 개방하였다. 한편, 각종 형식의 공공원림도 큰 발전이 있어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시설이 정비된 종합적인 성격의 공원 및 식물원, 동물원, 아동공원,

체육공원 등이 세워졌다. 그리고 60년대에 전개된 “해국위생운동”과 더불어 쓰레기 쌓여진 채 방치되어 있던 전국 각 도시의 황무지와 공지들이 정비되어 도심의 가로공원이나 소규모 공원으로 개조됨으로서 원림의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위생조건이 개선되었다. 오늘날 원림의 도시로 명성을 얻게된 광둥성의 신회시(新會市)는 이러한 과정에서 개조된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같은 시기 동안 대표적인 고전원림인 북경의 황가원림, 소주, 무석, 양주의 사가원림 역시 일정한 정비를 거쳐 대중들의 휴식처로 개량되었으며 저명한 자연풍경지역인 황산, 태산, 노산 등 역시 해방 전 일부 계층들의 독점적인 휴양지에서 벗어나 교통망을 정비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대중들의 중요한 관광지가 되었다. 황주의 서호 풍경구역은 황무지와 다름없던 4000여 헥타아르에 2천여만 주의 나무를 심어 녹화를 하는 동시에 다수의 유람지역을 개발하고 주위의 역사문물을 보수하여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 결과 원림건축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 유형도 다양해졌다. 특히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고전원림을 계승, 발전시킨 각 지방의 특색 있는 원림이 하나 둘씩 나타났다. 해방 후 10년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고전원림과 고건축군들을 무분별하게 개방한 관계로 역기능도 적지 않게 파생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국가에서 중요한 건축군이었던 종묘(즉 태묘)가 노동자문화궁으로 개조되면서 제전 건물을 전시장 및 무도장으로 바꾼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위를 이어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전국을 휩쓴 문화대혁명은 원림건설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사인방을 중심으로 한 홍위병들은 원림을 이른바 봉건적, 자본주의적, 수정주의적 운상의 금구(禁區)로 간주했기 때문에 원림의 건설 자체가 중단되고 관리기구가 해체되었으며 기술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노동자들은 모두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목재의 생산이라는 측면만이 강조되어 관상수와 화책이 무참하게 훼손되고 각종의 구호팻말과 전시용(展示用) 가건물이 아름다운 경관을 모두 파괴하였다. 또한 무정부의 상태의 상황이 범람함에 따라 각 기관들이 무단으로 공공원림과 도시의 녹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따라서 명승지와 유명한 원림들이 대부분 폐쇄되고 원림의 건설 자체가 거의 중단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휴유증은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지속되어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태이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당과 중앙 정부는 “4대 현대화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림사업도 점차 다시 주목을 받아 정상적인 발전의 궤도를 되찾았다. 그러나 도

시의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계획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림건설은 이상적인 수준에 이를 수는 없었다. 북경의 예를 살펴보면 당시 1인당 녹지비율은 3.9평방미터로 워싱턴의 40여 평방미터에 1/10 수준에 불과하여 주요 공원들은 유람객과 관광객의 집중으로 종종 포화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다만 일반 대중들의 휴식공간과 관광명소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원림건설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속화시킨 것은 개혁개방 이후 내외국인을 상대로 활기를 얻은 관광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업은 원림과 원림건설의 새로운 내용과 과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명승고적은 그 핵심적인 수단과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소득 증대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원림건설이 촉진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10.1 중국고전원림 미학의 재인식

역사상 존재했던 사물에 대하여 시공간의 환경을 뛰어넘어 그 결점을 지속시킬 수는 없지만 만일 우리가 옛 태원 주인의 철학관점에서 나온 생활환경의 심미 요구를 사회 전체가 향유하는 원림녹화사업의 미학기초로 삼는 것은 이상적인 발전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고전원림 미학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당시 경제기초 위에서 발전해 나온 필연적인 산물이다. 그 배치, 형식, 문화, 철학 상의 내재적 의미는 사회, 경제, 정치조건의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적지 않은 원림들로 하여금 당시 완미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 없게 하였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의 유한한 공간 속에 놓여진 분재반침과 같은 환경을 통하여 원림 경영자의 환상은 각종의 수단을 빌어 몇몇 자신과 유사한 교양의 수준을 가진 손님을 불러모아 서로 함께 특정한 철학적 이상 속에 설정된 세상을 추구하며 수많은 사물은 각종의 관계 속에 융당히 갖추어야 할 합리적인 척도를 무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원림은 각종 변칙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속에 자사의 삶을 오랜 동안 의탁하면서 정신, 심리상태에 이상한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게다가 원림이 만들어진 이유가 각기 달라 건축문화와 환경예술에서 다양한 창조적 욕구를 제한시키는 점도 적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물을 통하여 현실생활의 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관찰하고 비교하여 모종의 새로운 계시를 얻어야 한다.

고대문화의 전통은 결코 현대미학과 모순을 이루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진부한 미학개념일 뿐이다. 각각의 시대는 모두 새로운 창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속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현

대생활에 무익한 심미표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배우고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옛 사람들이 당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떻게 수양을 하고 어떤 지식의 사유방법을 다루어 취했는지 오늘의 상황을 전제로 배우는 것이다.

10.2 현대 중국원림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들

사회주의 개혁개방의 시대에 대중들의 생활 수준과 사상, 정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원림건축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요구가 대두되었다. 오늘의 중국원림건축가들은 첫째, 대중생활을 풍부함과 활력을 반영해야 한다. 대중은 사회의 주인으로서 원림건축은 이들의 정신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중국은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각 계층의 활동 역시 차이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원림은 내용과 형식의 다양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의 미화와 보호라는 측면이다. 도시미화는 현재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실천목표로서 원림의 위치선택, 규모의 결정, 녹화의 수단 등이 대중들의 새로운 취향에 맞고 건강한 도시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관광업의 발전추세에 적응을 하는 것이다. 풍경원림 및 휴양지의 확충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숙박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성공 여부는 종종 원림의 처리결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은 지방특색과 환경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 건축의 특징과 장식, 색채를 새로운 원림의 창작과정에서 구현하고 토착수종과 기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풍부한 원림경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재료의 이용도 지방의 특색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원림은 도시의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의 작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도시 전체 환경과의 정체성 및 조화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밖에 현대과학의 진보와 새로운 재료, 구조, 기술의 발전은 원림경영에 혁신적인 요소를 첨가시켜 줄 수 있으므로 고전원림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빛과 소리에 관한 기술 및 전자기술은 정적인 중국원림에 동적인 활력과 참신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해 내는 좋은 도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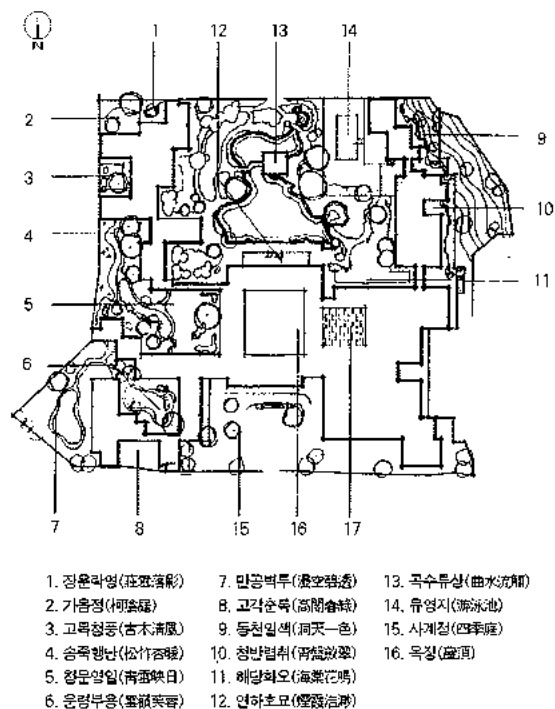
끝으로 중국의 원림건축가들은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장점과 특징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은 역대로 타지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했었다. 실제로 일본에 산수원림의 전통을 전해주었으며 18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에는 유럽에 중국식 원림이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다. 반대로 청대 건륭 황제 시기에는 서양의 원림사상이 중국에 전래되어 원명원에 서양식 원림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원림예술의 상호교류는 원림경영의 사고방식에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구의 원림기법을 중국고전원림의 전통에 접목시키는 작업은 현대를 사는 대중들의 욕구에 적합한 새로운 시대의 원림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10.3 몇가지 사례들

(1)북경 향산반점(호텔)의 정원

1983년에 준공된 향산반점은 북경 교외의 향산공원 안에 있으며 322개 객실규모의 정원식 저층 고급 호텔로서 점유면적은 3헥타아르, 총 건축면적은 36000평방미터이다. 미국국적의 중국계 건축가 I.M.Pei(중국명은 베이위밍, 貝聿銘)가 설계하였으며 정원은 북경시 원림설계소의 단형(단형)이 맡았다. 이 호텔의 건축형태는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숲 속에서 굴곡의 변화가 매우 심하며 모두 11개의 크고 작은 옥외정원을 가지고 있다. 총 면적은 16000평방미터의 정원에는 주도면밀하게 설계된 18개의 주요 경관점이 배치되었다. (그림1) 주 출입구에는 일명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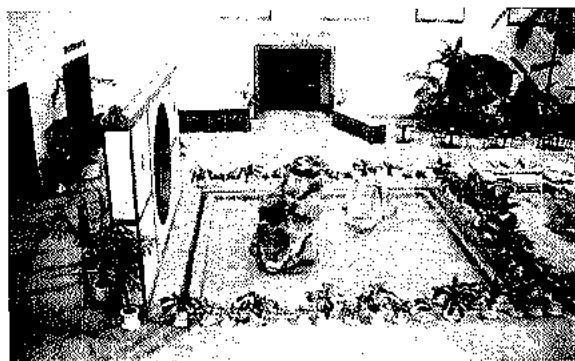
- | | | |
|---------------|----------------|----------------|
| 1. 정운각영(庭運閣影) | 7. 만공벽루(漫空碧樓) | 13. 곡수류상(曲水流觴) |
| 2. 가음정(荷陰庭) | 8. 고각순옥(高閣畚玉) | 14. 유영지(游英池) |
| 3. 고목정동(古木淸風) | 9. 동천일색(洞天日色) | 15. 사계정(四季庭) |
| 4. 송죽행난(松竹行難) | 10. 청반첩취(靑斑疊翠) | 16. 옥정(玉庭) |
| 5. 청문일일(靑門映日) | 11. 해당화오(海棠花鳴) | |
| 6. 운령부흥(雲嶺芙蓉) | 12. 연하초요(煙霞浩渺) | |

(그림1) 향산반점의 전체 배치와 주요 경관구역

청(四季廳, 또는 滄香廳이라고도 함)이라고 불리우는 780평방미터의 실내정원이 있는데 중국 전통민가의 한 유형인 사합원의 특색을 이용하였다. Pei는 설계과정에서 현대건축에 중국건축예술의 정수를 구현하고자 시도하여 새로운 탐색의 길을 열었다. 여기서 그는 중국고전원림건축과 민가 속에서 나타나는 원락(院落: 중정의 개념)과 실내공간의 상호 관입, 원림건축에서 나타나는 관람노선의 배치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유정함에서 탁트인 개방감에 이르는 분위기를 대비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서 전통계승의 탁월한 처리 수법을 보여주었다. (그림2, 3, 4, 5, 6)



(그림2) 향산반전의 후원 전경



(그림3) 중정 내부에 조성된 정원의 전경



(그림4) 해강화장과 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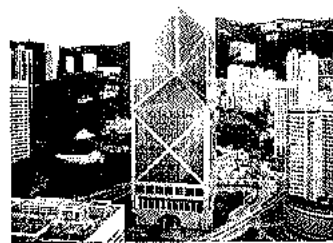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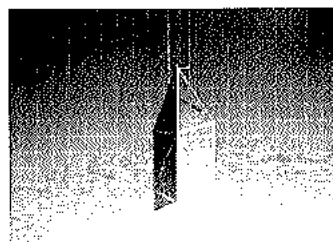
(2) 홍콩 중국은행 빌딩

홍콩에 있는 중국은행 빌딩은 1989년에 준공된 것으로 I.M.Pei는 중국고대철학에서 영감을 얻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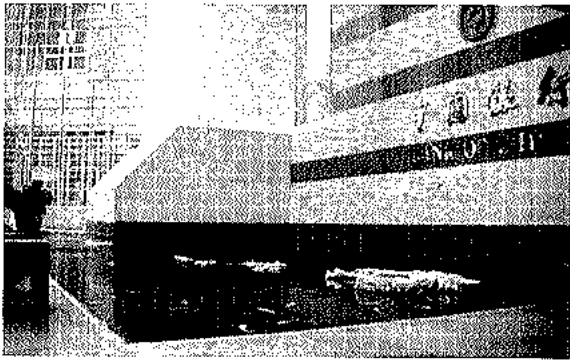


(그림5) 소주의 사자림(좌)에서 이미지를 추출한 객실로 가는 통로 끝에 설치된 분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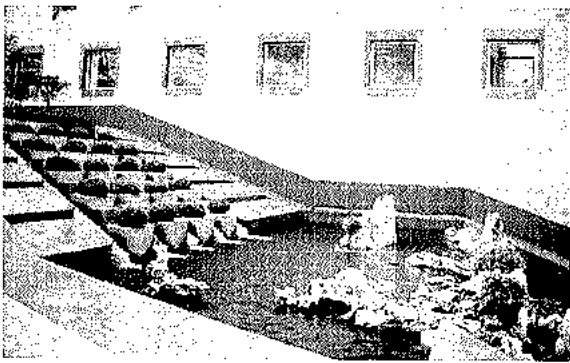
다. 그는 모종의 은유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국 속담에 나오는 “지마개화절절고(芝麻開花節節高: 점점 나아진다는 의미)”에서 암시를 받았다. 건물의 외관은 하늘을 향한 인간의 무한한 의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현대화의 과정을 적절하게 형용하고 있다. 그는 중국고전원림, 특히 원림의 구성 요소인 태호석(太湖石), 유수(流水), 수목 등을 빌어 외부 공간을 꾸미고 있지만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현대화된 도시환경 속에 원림의 내재적 의미를 재현시키고자 하였다. Pei는 유수가 건물이 들어선 부지 전체를 감싸면서 인공폭포를 만들어 맴돌이 파문이 침석(疊石: 쌓여진 돌)의 미감을 지나가도록 하였다. 이것은 물의 운동과 반사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소리가 주위의 고속도로에서 전해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6)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는 취죽(翠竹: 푸른 참대), 청송(靑松) 등을 촘촘히 심어 수중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가 주변 공간을 처리하면서 물을 주제로 선택한 것은 풍수지리에서는 물이 건물의 주위를 감싸면 생명과 행운을 나타내고 재화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은 사악함을 씻어내고 영원한 힘을 가져온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길상의 표상이라고 할 있다. (그림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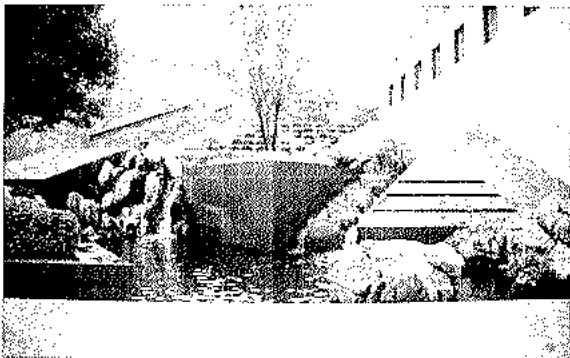
(그림6) 홍콩 중국은행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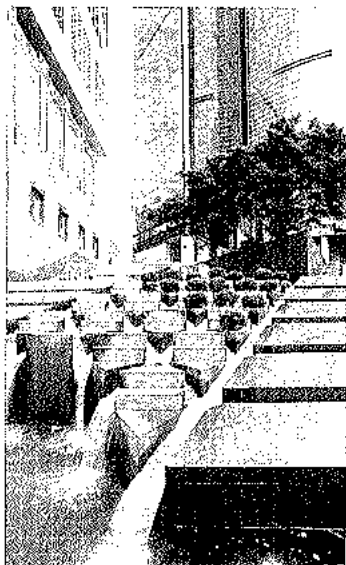
(그림7) 영구에 조성된 산석과 작은 연못



(그림8) 동쪽 상단에 조성된 폭포와 작은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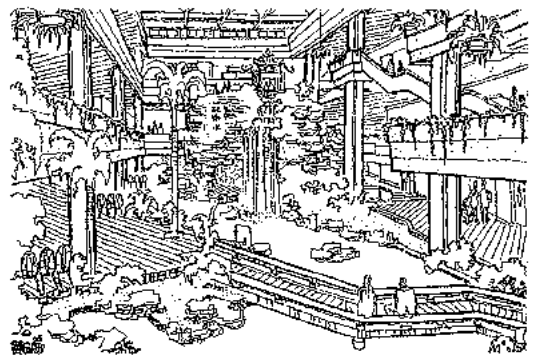
(그림9) 동쪽 하단에 조성된 폭포와 작은 연못



(그림10) 동쪽에 조성된 폭포와 작은 연못

(3)광주 백천아 빈관

백천아 빈관은 1000개의 객실을 가진 국제적인 수준의 호텔로서 광주시 설계원에서 설계를 맡아 1983년에 준공되었다. 호텔의 내부에 만들어진 중정은 전통 원림의 정신을 재현하고 있으며 남쪽면에 설치된 대형 유리창을 통하여 주강의 경관을 내부로 끌어들이며 내외부의 경관이 일체감을 갖도록 조성되었다. 중정의 주변은 개방된 회랑이 설치되어 중정 내부에 꾸며진 정자와 다리, 가산, 폭포 등을 감상하도록 배려하였고 중정은 고저의 차, 기복의 변화를 가진 하나의 대공간을 연출한다. 이곳의 시각 축점은 절벽과 폭포가 어우러진 부분으로 영남원림의 품격이 잘 담겨있다. (그림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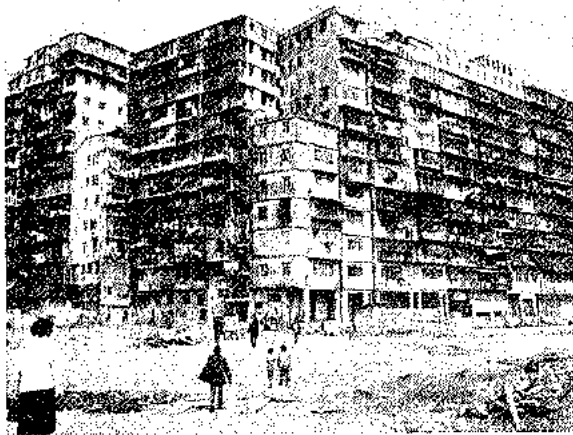
(그림11) 광주 백천아 빈관 내부 중정의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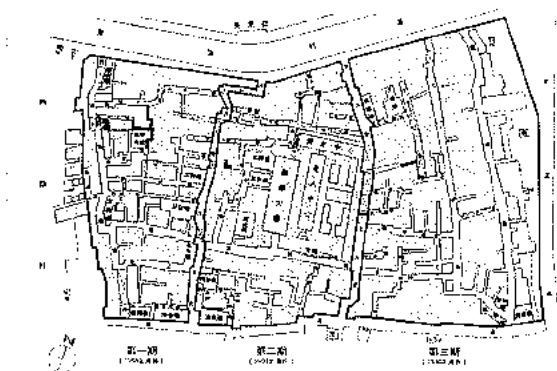
(그림12) 광주 백천아 빈관 내부의 실제 모습

(4) 홍콩 구룡성 공원

과거 범죄의 온상이었던 구룡성 지역의 건물군을 철거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이곳에는 세심하게 고증된 중국고전원림의 구성요소들이 도시민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재구성되었다. 남방과 북방지역의 건축풍격이 회랑과 정자를 통하여 구현되는 한편, 시대적 필요에 따라 고전원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작은 광장이나 체육시설 등이 첨가되었다. (그림 13, 14, 15) 이러한 방법은 단지 고전원림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조해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 철거전 구룡성의 전경



(그림 14) 철거전 구룡성 건물군의 배치도

맺음말

지금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중국고전원림 건축의 과거와 현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양한 구성원리와 구성요소에 철학적 사고 방식이 내재된 중국고전원림 건축의 전통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속성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문화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건축유형에 비해 중국을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비록 단편



(그림 15) 철거 후 새로 조성된 공원의 전경

적인 지식이 전체를 꿰뚫는 방편이 될 수는 없지만 필자의 중국고전원림건축에 대한 해설이 우리 건축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중간 중간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고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것에 대하여 『건축사』지의 독자 제현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연재를 마친다. 圖

신건축

a+u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view

신건축

2001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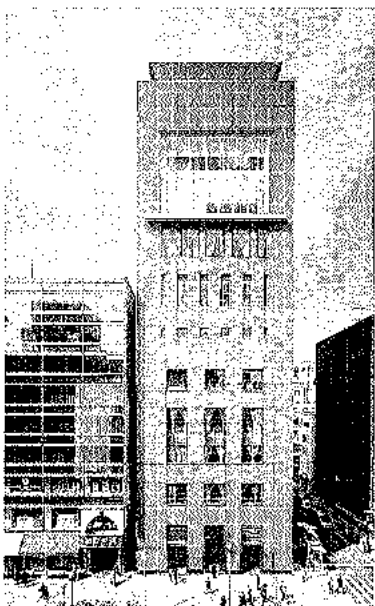
이번 호에
서는 두
개의 특집
이 선보이
고 있다.
그러나 일
본의 최근
완공된 건



축물을 소개해온 신건축지인 만큼 최
근작들을 두 개의 테마로 묶어 소개하
는 형식으로 마련한 특집이다. 「특집
1」은 '특정적인 소재로 공간을 만든
다'로 독특한 재료의 구성을 보여준 최
근의 작품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으
며, 「특집2」는 '건축가의 활동거점을
만든다'로 건축가의 자택을 만든 사례
들이 소개되고 있다.

■ 특집1: 특징적인 소재로 공간을 만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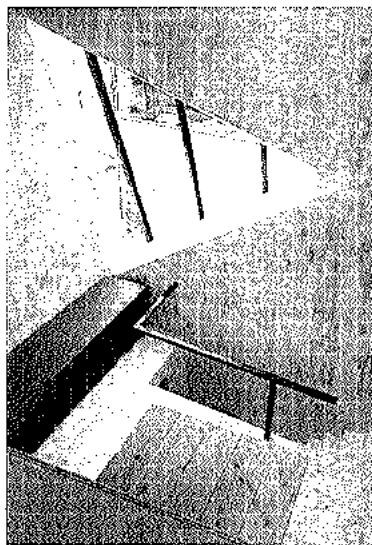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개성이 있다
고 판단된 6개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
다.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동경 긴자



동경 긴자(銀座)의 시세이도(資生堂)빌딩

(銀座)의 시세이도(資生堂)빌딩이다.
설계는 라카르도 보필(R. Bofill), J.P.
카르노(J.P. Carnaux), 타니구찌, 이
마가와 등으로 구성된 특별설계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료의 사용에 있어
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외관과 1층
의 로비일 것이다. 외벽은 적사암 빛깔
의 GRC패널로 마감되었으며, 로비도
자주빛으로 꾸며져 화장품 메이커로서
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그
러나 건축가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포
함한 작품에 대한 소개는 주로 건물의
공간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졌
다. 이 건물은 시세이도가 긴자에 건설
하여 자기 브랜드의 이미지를 선전하
는 상징성이 강한 건물로서, 총 10층
으로 이루어진 건물에서 지하 1층의
갤러리, 4층과 10층의 레스토랑, 8층
과 9층의 게스트 살롱과 파티룸 등 다
양한 시설들이 계획되어졌다.

▶아오키 준(青木淳)의 주택 'i'는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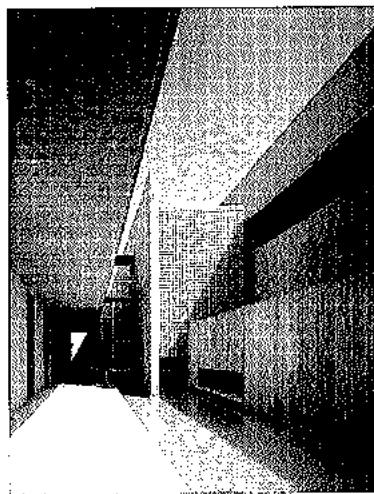


아오키 준(青木淳)의 주택 'i'

료와 공간과의 상관관계가 더욱 밀접
해 보이는 작품이다. 주택은 벽과 지붕
모두 콘크리트로 구성되고, 외단열 처
리로 덧붙여진 스틸로폼의 보호를 위
해 목재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
다. 여기서 지붕과 벽의 구분은 모호해
지고 전체가 단지 피난처로서의 건축
을 형성하기 위해 일정 공간을 감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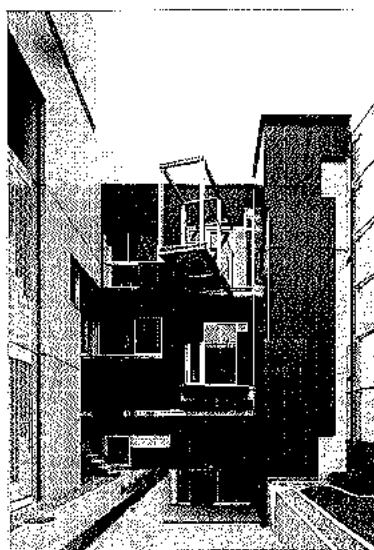
동일한 외피로서 작용하고 있다. 실내에 그대로 드러난 콘크리트 면은 흰색 페인트로 거칠게 칠해져 있다. 애벌칠만을 한 듯한 이 페인트 칠은 노출콘크리트 표면의 질감을 더욱 강조해 드러내면서 전체적인 색조를 밝게 함과 동시에 미완성된 듯한 마무리는 가공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천연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건축가는 이 건물을 계획단계에서부터 '폐허'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폐허란 그 본래의 존재 이유를 잃고 홀연히 서 있는 것으로서, 이 건물을 존재하게 만든 그 이유 혹은 결정된 인간의 행위와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성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작품을 폐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타케나가(竹中)工務店이 설계 시공을 맡은 효고(兵庫)대학 건강과학부 건물과 와세다대학 이리에 마사유리



효고(兵庫)대학 건강과학부 건물

연구실과 D.F.I.의 공동설계로 이루어진 와세다대학 理工學總合研究센터 제2연구동은 재료사용과 공간의 연출 면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효고대학 건강과학부의 건물은 노출콘크리트 표면에 목조건물로 착각을 일으킬 만큼 선명한 거꾸집 닐의 문양을 재현시키고 있으며, 이는 석재의 바닥과 실내 공간을 파고든 작은 캐널과 어우러져 시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담담한 벽면과 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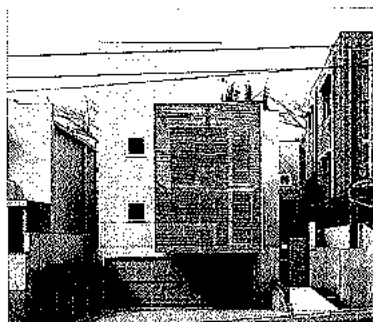


와세다대학 理工學總合研究센터 제2연구동

리고 빛이 연출해내는 공간은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반면 와세다대학 제2연구동은 노출 콘크리트의 외관을 지닌 기존의 제1연구동과 불과 1.5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면서 내후성강판외벽으로 마감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외벽의 일부에 노출 콘크리트면을 일부 노출시켜 기존 건물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으나 실내에선 노출된 배관과 금속 슬래이트의 벽면 등은 확연히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 효고대학 건강과학부의 건물이 콘크리트로 시적 영감과 영속성을 고무시키고 있다면 와세다대학 제2연구동에서는 일시성과 경쾌함을 표현하고 있다.

■ 작품소개

▶설계조직 ADH의 주택작품 'TN'은 주택의 구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젊은



주택작품 'TN'

부부를 위한 이 주택에서는 거실을 과감히 생략하고 주방 및 식당공간을 가족의 중심공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남편을 위한 개인 공간인 AV룸이 지하에 마련되었다. 주택의 프로그램은 건축주와의 오랜 작업 끝에 얻어진 결과로, 좁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중성적인 공간을 없애고 거주자가 원하는 개성 있는 공간들로 재배치할 수 있었다.

■ 논문: 70년대의 복귀

현재 콜럼비아대학 강사로 있는 켄 타다시 오모시마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1970년대는 사회화 행동주의, 오퍼레이션 리서치 등 많은 건축 외적인 요인들이 건축에 영향을 미치고 opposition 등 중요한 건축이론과 비평들이 나타난 시기로, 의미 있는 페이퍼 아키텍처의 작품들 또한 많이 나타난 시기이다. 이처럼 70년대는 건축계에 많은 응축된 에너지들이 존재했으며, 1920년대의 아방가르드들에 비견될 만한 새로운 아방가르드들이 형성된 시기로도 평가된다. 이렇듯 70년대에 형성된 건축에 대한 논의는 현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논의들로서, 70년대의 논의들을 되새겨 보는 것이 필요함을 저지는 역설하고 있다.

이번 호의 특
집은 인도의
건축가 발 크
리슈나 도시
(Balkrishna
Doshi)의 '아
메다바드에서
의 르 꼬르뷔



제와 루이스 칸의 유산'으로 근대의 두
거장들이 인도에 남긴 건축적 유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작품 소개로는
a+u지에서 보기 드물게 인테리어 작
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프레스
톤 스캇 코헨(Preston Scott Cohen)
의 작품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 특집: 아메다바드에서의 르 꼬르뷔 제와 루이스 칸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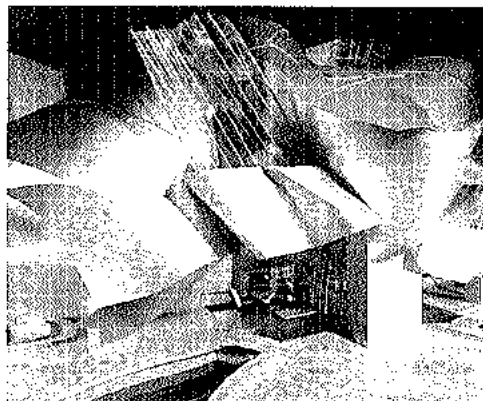
인도의 아메다바드는 방직자협회 회관
(Mill Owners' Association)을 비롯
하여 빌라 사라바이와 빌라 쇼단 등 르
꼬르뷔제의 작품들과, 루이스 칸의 인
도 경영 대학이 소재한 곳으로, 꼬르뷔
제와 칸의 작품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
이다. 이번 특집을 집필한 발 크리슈나

도시는 꼬르뷔제와 칸이 인
도에서 활동할 때의 협력 건
축가이자 인도 근대건축의
아버지 격인 사람으로, 두
거장이 인도 근대 건축에 미
친 영향을 가장 생생하게 증
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는 특히 꼬르뷔제가 인도에
가졌던 세심한 관심을 중심
으로 지역성에 입각한 건축
실현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

며, 칸과 꼬르뷔제를 각각 무갈 건축과
힌두건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도시의 글과 함께 아메다바드 소재의
꼬르뷔제와 칸의 작품들이 자세히 소
개되고 있다.

■ 건축계 동향(Currents)

건축계의 최근 동향에서는 프랭크 게
리(Frank O. Gehry)가 설계한 뉴욕
의 새로운 구겐하임 미술관 계획과 사
가포낙(Sagaponack)의 주거단지를
소개하고 있다. 뉴욕에 세워질 새로운
구겐하임 미술관은 프랭크 로이드 라
이트의 오리지널 미술관보다 더 큰 규
모로 계획되며, 2차대전 이후 수집된
작품들과 멀티미디어아트를 위한 공
간이 마련된다. 이 미술관을 위해 게
리는 빌바오에 자신이 설계한 구겐하
임 미술관과 유사한 형태를 제시하였



프랭크 게리의 구겐하임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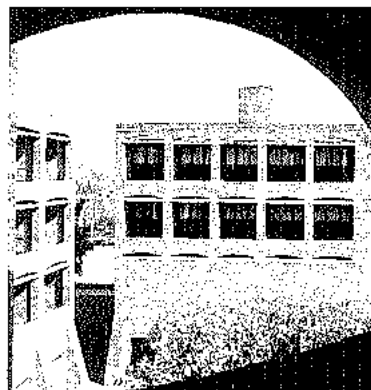
다. 한편 사가포낙의 주거단지는 브
라운 컴퍼니의 코코 브라운 사장이
뉴욕의 사가포낙에 세계적으로 지명
도가 높은 건축가들을 선정하여 계획
한 것으로, 리차드 마이어가 크리에
이티브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건축가는 마이어 외에 리처드
로저스, 피터 아이젠만, 스티븐 홀,
마이클 그레이브스 등 그 명성이 많
이 알려진 건축가들과 함께 마완 알
시드, 라이저+우메모토, 린디 로이
등 주목받는 젊은 건축가들도 포함되
어 있다. 리차드 마이어는 1927년
스투트가르트에 계획된 바이센호프
지들롱이나 1950년대 미국의 케이
스 스터디 하우스를 모델로 하여 과
거의 예들과 비견될만한 주거단지의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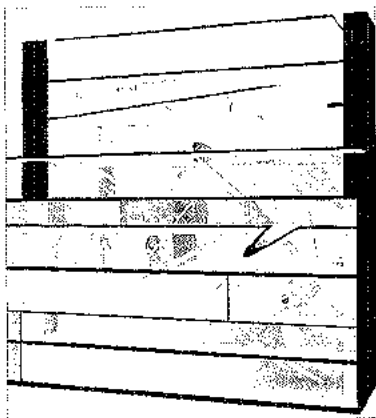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특히 인테리어 작품
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프랭크 게
리의 콘데 나스트(Cond Nast) 카페



르 꼬르뷔제의 방직자협회 회관(Mill Owners' Association)



루이스 칸의 인도 경영 대학



미디어 아트 뮤지엄과 아이빔 아틀리에

테리어는 게리가 최근 구사하고 있는 자유로운 3차원 곡면이 실내에서도 적용된 형태로, 곡면 유리들이 실내공간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키텍처 리서치 그룹(ARO)의 키오라(Qiora) 상점 및 스파살롱은 반투명의 오간자(Organza) 섬유가 천장으로부터 드리워져 실내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딜러+스코피디오(Diller+Scofidio)의 브리제리(Brasserie) 식당은 뉴욕의 시그렘 빌딩에 마련된 것으로 메탈과 패브릭, 목재 등 다양한 소재를 통일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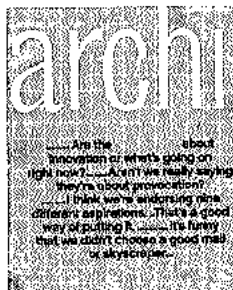
▶프레스톤 스캇 코헨은 MoMA(뉴욕 근대 미술관)의 임시전시장과 미디어 아트 뮤지엄과 아이빔 아틀리에(The Museum of Art and Technology, Eyebeam Atelier) 등 2개의 계획안과 하심 사키스(Hashim Sarkis)의 에세이가 함께 게재되었다. 사키스는 코헨이 의도된 오류와 극단정책의 법칙으로 작업하는 것을 그 작업방식의 특징으로 정리하고 있다. 코헨의 작품에는 명확한 대치와 엮임이다. MoMA의 임시 전시장 계획에서는 그 그리드 체계의 기동열로 이루어진 공간에 접해진 천장면을 첨가하여 공간에 기존에 없던 중심성과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디어 아트 뮤지엄에서는 수평으로 적용된 공간과 이를 사선으로 관통하는 공간들간의 엮임과 침투가 공간의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번역: 강상훈)

Architecture

2001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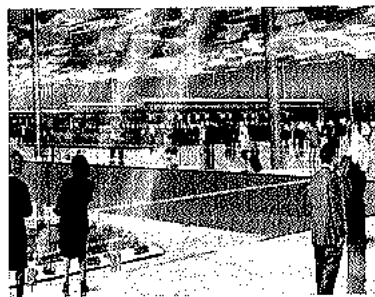
미래에 대한 건축적 비전을 제시하며, 개념적으로 진지한 접근을 시도



하는 건축인에게 수여하는 P/A Award상 수상작 리뷰가 특집으로 다뤄졌다. 총 9개 계획안이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소개되었다.

■ P/A Award

▶ Skidmore, Owings & Merrill의 Changi 국제공항 제3 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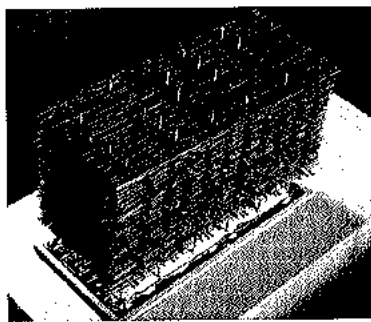


국제공항 제3 터미널

2층 건물의 터미널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천장과 지붕 디자인에 있다. 215,000개의 알루미늄 루버가 스틸 트러스 구조의 위, 아래로 매달려있다. 이 루버들은 서정적이고 추상적인 천장 및 지붕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열대지방의 강한 광선을 분산시키고 로비의 소음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터미널 지붕의 장관을 본 승객은 착륙하고 나서 다시 동일한 텍스처의 터미널 천장을 지나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 Mark Anderson and Andrew Zago의 Detroit Community

Pavilion



Detroit Community Pavilion

급진적 작품 프로세스와 사회정치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작품으로 훌륭한 평가를 얻은 이 작품은 시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1200 ft²의 파빌리언이다. 이 단순한 쉼터는 이전에 이 지역에 세워졌던 주택에 사용되었던 목재를 태운 것을 쌓아서 만들어졌다. 기존 건물의 지하층에 침묵을 직각으로 쌓은 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건물의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지어져서 4\$/1ft²의 저렴한 공사비로 건립이 가능하였다.

▶ Gil Rumpy Architect의

Kentucky Heritage Center

건축가는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각각의 형태와 재료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였다. 백색의 외피는 켄터키 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웨이커 교도 공회당 등에서 영향받은 것이다. 내부공간의 단서는 지역적 전례 - 켄터키주 남서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굴들 - 에서 얻어졌다.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원통형의 갤러리로서 4개층 높이의 이 실은 기프트샵, 강의실, 오토라움 등으로 연결된다.

그밖에 ▶ Estudio Teddy Cruz의 멕시코와 미국 접경지대의 주거계획안

▶ Pierre Thibault Arcjotect의 Winter Garden-겨울 한시적으로 서 있게 될 6개의 설치물

▶ Vincent James Associates의 Cable Natural History Museum ▶

Michael Bell Architecture의 Glass House @ 2nd 등과 작품선정에 큰 논란을 일으킨 Kotlan/MacDonald Studio의 Raybould House and Garden이 소개되었다.

■ 근작소개

▶ Karen Bausman + Associates의 펜실베이니아주, Hamlin 교회 및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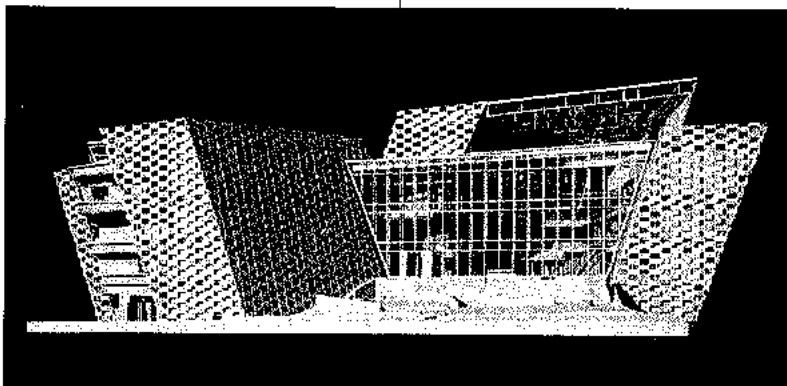
마을의 공동회관 기능을 하는 교회와 도서관을 함께 수용하는 것은 소규모 도시에 있어서 당연한 결론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실이 다르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은 8자형태의 평면에 나란히 구성되었다. 두부분은 내부적으로 다른 스케일로 조직되었다.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으로서 보다 작은 스케일로 아기자기한 공간이 만들어졌으며, 교회는 상대적으로 넓게 트인 장소가 되었다. 두 볼륨이 접하면서 형성되는 홀은 시용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폐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간막이가 차용되었다. 건물은 "stone veil"이라고 하는 라임스톤이 그물형태의 스틸 망에 부착된 외피로 감싸졌다.

■ 기타

▶ Chris Smith 감독의 영화, Home Movie

Chris Smith 감독의 Home Movie는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집을 다섯명의 독특한 가정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미사일 사일로를 개조한 사람, 애완동물을 위해 기꺼이 컬러풀한 색과 캐워크의 미로로 가득한 주택으로 변형하는 사람 등등... 주택은 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도전의 장이 되어왔다. 이 이야기는 건축가에게 주택은 어떻게 짓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함을 전달한다.



펜실베이니아주 Hamlin 교회 및 도서관

Architectural Review

2001년 5월

이번호는 다종이 이용하는 시설인 도서관, 수영장, 시청 등이 소개되었다. 공공시설로서의 외관과 함께 공공이 이용하는 영역의 설정은 어떠하여야 하는지가 논의되었다.



■ 근작소개

▶ Tod Williams Billie Tsien & Associates의 미시간 Cranbrook 실내수영장



미시간 Cranbrook 실내수영장

Williams와 Tsien은 오브젝트로서 건물자체로 시선을 끌기보다는 랜드스케이프안에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작업을 하여왔다. Cranbrook 캠퍼스의 보행도로 위주의 환경에 맞춰서 건축가와 건축주는 건물의 앞마당에 주차장을 없애는 데에 동의하였다. 대신에 새로운 장방형의 잔디밭과 정원 울타리가 만들어졌으며, 이 장소는 이전에 전체 캠퍼스를 계획하였던 Sarrinen이 설정하였던 축의 서측 종착점이 된다. 랜드스케이프에 조용하는 것은 사이트의 컨투어에 맞춰 조율된 건축적 산책로뿐 아니라, 재료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건물의 푸른 빛은 숲의 바닥에 떨어진 솔잎의 색과 합쳐지며, 하단부의 황색벽돌은 크랜부룩지방의 역사적인 건물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유사성을 가진다. 작고 불규칙하게 나있는 천창과 두 개의 콘형태의 큰 창을 통해서 살내는 매우 밝은 조도를 유지한다. 방향이 다른 콘형태의 천창을 통해서 아침햇빛과 일몰시의 햇빛이 유입된다.

▶Höger Hare Architects의 베를린 카톨릭 학교

전통적으로 일하는 곳과 사는 곳, 상점과 사무실등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양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매우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수용한다. 교회와 지하주차장, 그리고 묘지와 게스트하우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데에 있어서 건축가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담은 건물을 특징적인 재료의 사용으로서 구분하였다. 교회의 구축법과 재료는 단순하고 단일하다. 그러나 교회의 성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도록 재료의 성질이 잘 표현되었다. 돌이 땅을 의미한다면 모래는 그것의 근원적인 물질인

동시에 그 반대성질을 지닌 유리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벽은 상부로 올라감에 따라, 불투명함에서 투명함으로, 재질감이 있는 면에서 평활한 면으로, 회색에서 푸른빛으로 비물질화된다. 이것은 야간에 외부에서 볼 때 더욱 드라마틱하다. 벽은 마치 하늘로 향하면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게 된다. 장로회 건물은 반투명한 설화석과 패널로 마감되어 부드러운 빛이 실내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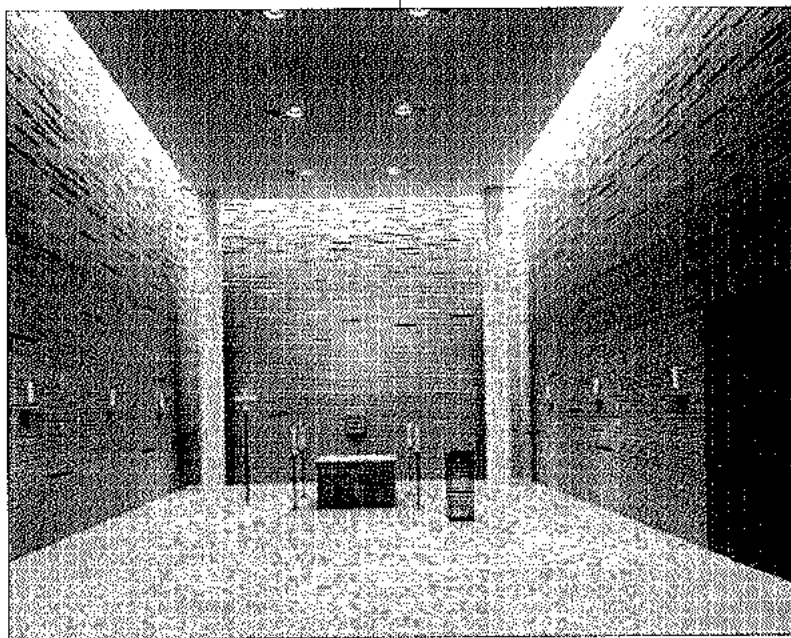
▶UN Studio의 네덜란드 IJsselstein 시청 및 문화회관

'내부적 랜드스케이프 속에서 감싸고 도는 동선'에 대한 일련의 공간적 실험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이전의 Nijmegen Museum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반투명한 외피로 건물을 감싸면서 건물 내부의 활동과 매스들이 어렵듯이 드러나는 것도 그러하다.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하여 협소한 대지 때문에 건물 매스는 대지에 꼭들어차서 마치 연이 꼬리를 감고 있는 형태의 평면을 이룬다. 극장과 시청은 공동의 입구를 가지며, 그곳에서 완만한 경사로로 시립 예식장으로 이어지며 계단으로는 시의회실로 통하게 된다.

UN Studio의 내부적 랜드스케이프는 '건축적 산책로'로 연결되어지는 일련의 우아하고 밝은 장소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Juan Navaro Baldeweg의 알타미라 박물관 및 연구원 ▶Odd Slynghstad Architects의 노르웨이 Ilesund 대학 ▶Nyrens Arkitektkontor의 스웨덴 Linköping 도서관 ▶Henri and Bruno Gaudin의 파리 아시안 아트 뮤지움 ▶Daniel Gomez-Vallejo의 스페인 Andujar 시청 등이 자세히 다루졌다.

■ 인테리어 디자인

▶단순한 오피스빌딩을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 개조한 Walters&Cohen의 런던 Islington Health Club ▶UDA의 로마 성형외과 ▶Benson+Foryth의 런던 Islington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번역: 전신영)



Höger Hare Architects의 베를린 카톨릭 학교

협회소식 / 87

건축계소식 / 89

신기술 신자재 / 96

협회소식 KIRA news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8월 16, 17일

계획부문 9월 10일 접수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2001한국건축문화대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준공건축물 부문은 2000년 5월부터 2001년 8월 사이에 준공된 국내 건축물의 건축사·시공자·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건축물 부문은 건축분야 및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와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준공 부문이 8월 16, 17일이며, 계획부문은 9월 10일로 우리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주택협회가 후원한다. (본지 표3 참조)

문의: 우리협회 홍보편찬팀(02-581-5711~4) <http://www.kira.or.kr>

■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2000년 5월 ~ 2001년 8월 사이에 준공된 국내 건축물
- 응모자격: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 응모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 (건축개요, 작품설명, 8"×10"크기의 건축물사진 10장 내외, 설계도면,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소개서, 건축물대장 수록)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패널제출 시일은 별도 통보

- 입상 건축물이 공동설계 또는 공동시공 작품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시상함
- 법인 또는 사무소 명의로 출품 가능

▶ 계획건축물부문

- 패널(가로90cm×세로120cm) 1매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세로 75cm×90cm 또는 90cm×75cm, 높이 75cm이하) 1점 제출
- 공동작품은 출품인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함

※ 작품주제: 미세지역성의 건축적 해석과 표현

■ 작품접수

▶ 접수기간

- 준공건축물부문 : 2001. 8. 16(목) ~ 8. 17(금) 09:00~18:00
- 계획건축물부문 : 2001. 9. 10(월) 09:00~18:00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 출품원서는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출품료는 없음)

■ 심사위원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추후 명단발표)

■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 발표 : 2001년 10월중 (입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 (일정 및 장소 추후 공고)
-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추후공고)

■ 기타출품규정

- 계획건축물부문은 패널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패널 및 모형 제작작업을 금함
- 준공건축물부분 제출 사진첨증 1부는 사후보존용으로 반환하지 않음
- 준공건축물부분 대상 및 본상 수상작 패널은 사후 상설전시를 위해 반출이 불가함

■ 작품반출 (계획건축물부분에 한함)

- 일시 및 장소: 2001. 9. 17(월) ~ 9. 18(화) 09:00~18:00 (단, 입선이상 수상작은 전시회 종료후 반출)
- 지정된 반출일에 찾아가지 않은 작품은 주최측에서 임의 폐기처리하게 되니 유의바람

이사회

제7회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7회 이사회가 지난 6월 12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인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회

〈부의인건〉

- 제1호의안 : 분회설치및운용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분회설치및운용규정 개정(안)중 '해당지역 건축사회를 폐쇄한 경우, 본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 일부 문구를 수정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인천건축사회 등반대회

- 제2호의안 : 광주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민원사무처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원서류의 발송 및 통제, 확인, 점검을 강화함)
- 제4호의안 : 추대회원 적용기준 변경 승인의 건
- 부결기로 함.
- 제5호의안 : 법인세 업무관련 용역 시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정부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신고사항 조사강화방침에 따라 본협회의 법인세 신고 납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각 시도건축사회에 대한 업무지도를 통해 협회의 회계, 세무업무의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관련업무 용역외뢰 - 황용현/공인회계사, 세무사)

인천건축사회, 등반대회

회원 친목 도모 청계산 등반

우리협회 인천건축사회(회장 김영배)에서는 지난 5월 26일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도 포천군 소재 청계산에 올랐다. 김영배 회장 외 43명이 함께 한 이번 등반 आय회를 통해 어려운 건축경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인천 건축사뿐만 아니라 전 회원의 건투를 기원했다.

2001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및 건축사 자격특별전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00073 김기근 00091 김남석
00237 양현숙 00261 이태봉
00353 최명만 00508 김근태
00524 김석대 00631 추경돈
00706 최창현 00817 김상기
00927 조재성 00997 최금호
01023 최선자 01183 이유정
01234 남웅호 01444 이승훈
01575 오상현 01581 이종서
01697 노진홍 01786 문병인
01998 박철민 02376 배문기
02445 이진우 02458 조시연
02489 양지현 02535 노은희
02589 정순원 02699 최연수
02733 김종관 02930 박영환
02955 김창동 02974 최동희
03067 방익성 03089 차유성
03095 김승주 03135 여석구
03293 이정지 03640 김태균
03732 김수생 03780 홍재영
03807 박 철 03889 박동국
03899 김진성 04080 이흥준
04229 박진홍 04432 정근수
04534 임채환 04539 최용승
04613 박상현 04762 이재형
04879 이 호 04927 이연우
05051 남석우 05174 김소영
05209 문재호 05244 유금열
05268 황준식 05324 이종식
05369 박영보 05390 남희우
05558 이선경 05637 한호진
05640 박규상 05748 이종수
05799 강정원 05921 아광훈
05944 백명현 05946 한용진

건축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6월 8일 우리협회 강당에서



규제완화의 부작용 및 시대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가 후원하고 건축학회에서 주최한 건축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월 8일 우리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교통부가 건축제도 개선 용역을 건축학회에 발주한 내용으로 용역에 대한 중간발표 형식으로서 제도개선 방향설정에 목적을 두고 개최됐다. 제도개선방안 최종안에 대한 토론회는 오는 9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령의 절차, 기준 등의 개선 방안

-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건축전문공무원제 도입(특정직 5급/건축사, 구조기술사, 사공기술자격 소지자/공무원과 동일한 처벌)
- 일정규모 이상 용도변경 허가제로 전환: 현행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세분화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대상 범위를 새롭게 마련

- 공사감리제도의 개선: 관련법 통합 일원화 방향, 건축공사감리법(가칭) 제정(건축과 소방, 전기, 통신도 통합)
- 사용승인 검사제도 개선: 사용승인 과정에서 공공(허가권자)의 역할 수행 필요(사용승인 업무범위 설정)
- 건축허가수수료 현실화: 비현실적인 구조에서 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를 위한 조사검사업무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없다.
- 주민 공동체 의식 강화(건축협정제도) 도입: 해당지역주민이 공동으로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지원 및 법적 지위 보장, 개발행위허가 자문회의 구성(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하여 허가함)
- 차면시설의 설치 의무화: 주택 등에서 창문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며, 건축주가 협의시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함.
- 재래시장의 환경정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래시장 지역을 공고하고 별도의 호나경정비 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법상 건축물 완화조항 근거 있음.(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계획법상에서 구역지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피난 및 소화를 위한 통로의 설치: 대지 안에는 재실자의 피난, 인명구조, 소화활동에 필요한 통로가 필요하다. 소요너비 및 길이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는 연구가 필요하다.
-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 및 지구와 건축법령상의 적용과 연계성: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용도지역관리를 위한 행위제한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율,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도시계획법에서 이러한 개념은 삭제한다.

◇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등의 개선 방안

-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의 개선: 건축물의 높이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제시, 건축물의 용도, 지역, 도로의 너비, 대지면적, 대지형상 등을 고려한 사례
-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 규정의 개선: 일본과 영국의 일조 및 일영 기준 사례 제시
-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의 설정: 일조기준(동지 때 4시간 일조/ 동지 때 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일조)을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설정 기준 제시
-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설정: 대지안의 공지 규정 필요. 지역지구제에 따른 공지규정을 마련(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기준설정이 되도록 함)
- 주택의 용도분류 합리적 개선: 법적 행정적 분류가 아닌 거주성에 근거한 분류, 주택생산 및 관리와 소유시스템이 일치하는 분류, 주거환경개선 및 보호에 바탕을 둔 분류

2001년도 건축가축제 및 대한민국건축대전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일반공모전 주제는
「미래 도시건축의 공공성」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최하는 2001

년도 건축가 축제 및 대한민국 건축대전이 오는 11월 19일(월)부터 11월 28일(수)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제20회 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해 초대작가 전시회, 2001년도 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제6회 건축사 진전 수상작이 전시되며, 후원업체 홍보전이 함께 열린다.

문의: 02-744-8050

<http://www.kia.or.kr>

■ 2001 건축가 축제 주요 일정

- ▶ 개막식: 2001. 11. 19(월) 오후 2시
- ▶ 시상식: 2000. 11. 28(수) 오후 3시
- ▶ 전시기간: 2000. 11. 19(월)~11. 28(수)
- ▶ 행사내용:
 - 제20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 (일반/초대작가부문)전시회
 - 제6회 건축사진전 수상작 전시회
 - 2001년도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전시회
 - 후원업체 홍보전

〈일반공모전 일정〉

- 주제: 미래 도시건축의 공공성
- 1차 접수: 2001.9.11(화), 오후 5시까지 협회 사무국
- 2차 접수: 2001.11.16(금), 정오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
- 1차 예비심사: 2001.9.17(월)~9.19(수)
- 2차 본심사: 2001.11.16(금), 오후 3시부터
- 3차 공개심사: 2001.11.17(토), 오전 10시
- 1차 심사발표: 2001.9.21(금), 협회 홈페이지
- 2차 심사발표: 2001.11.19(월), 협회 홈페이지
- 수상작 설명회: 2001.11.28(수), 오전 10시, 예술의전당
- 작품 반출: 2001. 11. 28(수)~11. 29(목)

제17회 부산건축대전

일상성·부산성(日常性·釜山性)
-일상적 가치를 통한 지역성의 탐구-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제17회 부산건축대전의 개최요강이 발표됐다. 「일상성·부산성(日常性·釜山性) - 일상적 가치를 통한 지역성의 탐구」란 주제로 열리는 제17회 부산건축대전은 일반공모부문과 초대작가전으로 이루어진다.

작품전시는 2001. 10. 25(목)~30(화) 부산 학생교육 문화회관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전화 051-469-7637)

홈페이지 <http://archiblue.com>

〈일반공모부문〉

- 응모일자 : 2001. 6. 19(화)~21(목) AM 10:00~PM 5:00
- 응모처 :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9-11 아키빌딩 7층
- 작품제출 : 2001. 10. 20(토) AM 10:00~PM 5:00 (초대작가전 동일)
- 작품심사 : 2001. 10. 22(월)~2001. 10. 23(화)
- 공개심사 2001. 10. 23(화) AM 10:00
부산 학생교육 문화회관 1층 전시장
- 작품전시 : 2001. 10. 25(목)~10. 30(화) 단 29(월)은 휴관.
- 시상식 : 2001. 10. 25(목) PM 2:00
- 본 상 : 10점 이내
- 특 선 : 10점 이내
- (특선이상 입상자 해외건축기행 참가 특전부여)
- 입 선 : 다수
-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제2차 POAR 건축 트레킹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해미읍성-개심사-문수사-덕산온천

초등학교 5년생 이상 건축인 가족이 참여하는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축인 POAR는 2001년 여름, 이 땅의 산하를 한 뚝 한 뚝 밟아가는 건축 트레킹의 뜻을 올린다. 이는 지난 1999년 8월 14, 15 양일간에 펼쳐졌던 "창덕궁 돈화문에서 화성행궁까지" 약 34km에 걸친 도시문화체험코스 개발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로서 3~4개월에 한 차례, 정례적인 건축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몸으로 만나는 우리 땅, 우리 산하, 그 안에서의 건축을 만나보는 행위를 함께 나누고자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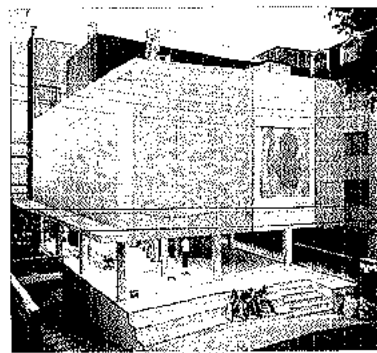
- 행사일시: 2001. 8. 12~14 (2박 3일)
- 대상지: 해미읍성-개심사-문수사-덕산온천(총 보행거리 약 30km)
- 최초의 집합장소 및 시간: 해미읍성 (8월 12일 오전 11시 성문 앞 집합)
- 참가비(예정): 5만 5천원 (숙소 2박 및 6끼 식사비, 온천욕, 기념품 및 자료 비용 포함, 집결지 도착·해산에 따른 교통비는 개인 부담임, 간단한 취사 도구 자참 요함)
- 최대 참가인원: 100인 이하로 제한 예정임
- 프로그램 주제: 문화의 시대, 건축과 건축인의 존재감 찾기(초종교생 프로그램 별도 준비)
- 특강: 충남권 고건축에 관한 강의(현지 건축사가 초빙 예정)
- 참가신청: 2001년 7월 31일 한 (선착순)마감,
- 초종교생이 포함된 가족(2인 이상)단위 신청시 총 금액의 10% DC예정
- 문의: 담당자 박재현 연구원
02-519-6528
poar@chollian.net,
www.poar.co.kr 게시판 참조

제12회 김수근 문화상

김종규의 CAIS갤러리

공간 설립자인 고 김수근씨의 건축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김수근문화상의 제12회 수상자로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CAIS갤러리」가

선정돼 지난 6월 14일 공간사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많은 건축인과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해 수상자를 축하했으며, 아울러 제11회 김수근 문화상을 수상한 송효상의 「웰컴시티」에 대한 전시회를 관람했다. 전시는 7월 14일까지 공간사옥 지하 전시장에서 계속된다. 심사는 김병현, 민현식, 박길룡, 조성룡씨가 맡았다.



CAIS 갤러리

심사후기

올 해로 12회를 맞는 「김수근 문화상」 후보로 김영준, 김봉열, 김준성, 이종호씨 등으로 구성된 김수근 문화재단 건축전문위원회에서 추천해온 작품에는 현암사/ 권문성, 고성군보건소/ 김승희, 카이스 갤러리/ 김종규, 영월 구인원/ 정기웅, 담양 한빛고등학교/ 조건영, 백선 바오로의 집/ 최두남, 어유지 동산마을의 2 작품/ 조병수, 동은재/ 헬렌 박 등 10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수근 문화상의 심사기준으로 대상건물이 가진 창의성, 시대성, 한국성, 완성도, 기술적 성취 등이 열거되고 있다. 매년 우리 모두의 관심 속에서 선정되는 한 점의 건축은 이들 기준에 의한 개별적 평가에 의하기 보다 이를 통틀어서 현 시점에서 어떤 획기적인 건축적 성취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축의 담론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데에 심사위원은 의견을 같이 하였다. 추천작품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 교환 끝에 그 중 두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이 둘은 사십대 초의 젊은 작가에 의한 중소규모의 도시건축물로 오늘의 도시현실에서 당면한 건축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해결은 매우 대조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건축에 대한 의식의 넓은 폭을 보여주는 것 같아 주의를 끌게 한다.

현암사는 넓은 주택을 개조한 기존출판사 사옥을 다시 개조 증축한 건물이다. 서울 아현동의 주거지역 가장자리에 위치한 기업체의 사옥으로 내외부에서 전개되는 질 높은 공간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그 후면의

주택가와의 관계를 뛰어넘게 처리하고 있다. 주택구조를 살린 데서 온 적절한 건축 스케일, 조적조 기준건물에 이와 다른 건축 어휘로 된 목조간물이 첨가되면서 만들어진 세 덩어리의 건물군, 외벽에 첨가된 발코니와 차양이 만들고 있는 밝은 표정 등으로 동네입구에 자리잡은 기업체 건물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작가의 밝고 따뜻한 감성이 그대로 건축에 반영된 듯 활기찬 건물 외관과 내외부 공간은 퇴화하고 있는 동네에 활력을 넣어 주고 있어 보인다.

카이스 갤러리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 뒷길에 위치한 전시장과 근린생활시설 공간을 주요한 건물로서, 자 모양으로 극히 제한된 정면성만을 허용할 뿐 전면에서 후퇴한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사면이 인접건물 후면에 감추어져 버리는 대지의 형상을 그대로 채우고 있다. 이 건물에서 받는 첫 인상은 여기에서 어떤 조형적 의미를 가진 외형을 만들기 보다 철저하게 외피가 만드는 이차원적인 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것이 주변 건물들의 좋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얇은 종이 장처럼 무게를 잃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무표정한 콘크리트 벽을 건물의 전면으로 시작하고있는 자형의 건물은 그 후면에 가셔도 의도적으로 재료의 중량감을 배제한 외피로 구성되고 있다. 콘크리트, 유리의 판과 내후성 강판을 주재료 하는 외벽이 마치 막으로 된 스크린을 보는 것 같고 어두운 강판의 색상과 질감과 함께 이 지점에서 매우 적절해 보인다. 건물 후면 압구정로 쪽에서 루이뷔통과 켈

빈클라인 건물사이로도 배경으로서의 풍경을 훌륭히 만들어 주고 있어 건물의 역할이 그만큼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이 태도는 건물의 내부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배경으로서의 건축으로 그대로 지속된다. 선정된 재료와 이를 구축하는 공법이 솔직하게 만들어낸 냉정하고 무표정한 공간이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과 건축의 관계는 매우 직접적이고 그만큼 이 공간은 더욱 감동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

카이스 갤러리는 도시 건물에서 보편적으로 찾는 정면성의 중요성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가 익숙해 있는 보기 좋은 디자인의 건축도 아니다. 작가는 이 장소에서 구현해야 할 건축의 실체를 건축과 도시, 한 건물과 그 주변의 건물, 그 내부에 수용되는 프로그램과 공간과의 상호관계 등 상대적인 관계라고 보고, 외형의 의미나 공간의 형태적인 질 또는 공간구조의 formality 같은 일반적인 건축의 가치개념에서 단호하게 벗어난 건축에의 접근을 보여 주고있다. 작가가 그 동안 집념을 가지고 추구해온 랜스페이스의 건축이 어려웠던 과정을 거쳐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진 건물로 완성되었음을 본다.

심사위원은 전원 알치로 금년의 수상작으로 김종규의 카이스 갤러리를 선정하였다. 도시와 건축이 가진 문제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도전적인 시험을 하는 데서 출발된 건축을 보여준 작가에게 축하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의 기대 또한 큼을 알린다.

(주)코스펙, 2001하계 ADT 교수교육

7월 2일부터

(주)코스펙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대학 및 고교의 건축 CAD 교육 활성화를 위해 겨울, 여름방학을 이용해 당사의 관련학과 프로그램을 연수 교육해 오고 있다. 연수 교육과정은 CAD를 처음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과 현재 CAD를 사용하시거나 교육을 담당하시는 그룹으로 분할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CAD S/W로는 autodesk사의 건축전용 AutoCAD인 Architecture Desktop (ADT)와 일반 CG S/W인 3DS Max를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 전문화한 3DS VIZ를 이용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홈페이지(www.cospec.co.kr, www.autodesk.co.kr)참조.

◇ 교육일정

1) 기초 CAD 교육 과정

- 참가대상 : CAD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초보적인 수준의 사용자
- 교육기간 : 1차 2001년 7월 2일 ~ 4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 2차 2001년 7월 5일 ~ 7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2) 응용 CAD 교육 과정

- 참가대상 : 현재 CAD를 교육하거나 1년 이상의 사용자
- 교육기간 : 3차 2001년 7월 9일 ~ 11일 (오전 10시 00분 ~ 오후 5시)
- 4차 2001년 7월 12일 ~ 14일 (오전 10시 00분 ~ 오후 5시)

◇ 교육내용 : ADT R3.0, 3DS VIZ R3i, Cadpower 21s 외

◇ 문의 : (주)코스펙 정보시스템사업부 담당 강호주

(전화 02-584-6480)

E-mail : friend@cospec.co.kr

승효상회원,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2002 올해의 작가」

건축인이 선정되기는 처음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



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제) 회원이 건축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하는 '올해의 작가' 중 건축가 부문에 선정됐다. 2002년도 '올해의 작가' 원로작가 부문에는 전혁림씨가 선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1995년도부터 '올해의 작가'를 선정하고 작가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에 크게 기여하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향후 한국미술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하여 그 작품을 집중 전시함으로써 작가들에게는 창작의지를,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가능성과 그간의 성과를 서로 확인하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술관 측은 "승효상은 건축의 공간적 배경을 이루는 자연조건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인문사회적 환경, 시대적 환경까지 탐구해 도심 속에서 건축의 참된 의미를 가지도록 한다"며, "이번에 중견, 중진부문 작가로 승효상을 선정한 것이 한국건축에 대한 이해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덕수궁미술관과 함께 올해의 작가전을 마련하여 이원체제로 운용하며, 승효상 회원의 전시는 본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리고 원로작가 전혁림씨의 전시는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5회 대학생 공동주택 설계 공모전

주택공사에서 8월 24일까지 접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대학(원)생들에게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친화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대한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제안과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5회 대학생 공동주택 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내용

▷ 공모대상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단위Block의 공동주택 설계
- 단지배치, 주동계획, 단위평면 개발 등

▷ 공모주제 :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친화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 방안

▷ 착안사항 :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변지형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단지내 주민간의 교류와 공동체의식이 향상될 수 있는 주택단지 모델 제시

◇ 공모일정

- 참가신청기간 : '01. 6.18(월)~6.22(금) 17:00까지

- 작품접수기간 : '01. 8.22(수)~8.24(금) 17:00까지

- 작품 심사일 : '01. 8.28(화)~8.29(수)

- 당선작 발표 : '01. 8.31(금) 10시 이후 주택공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시상식 : '01. 9. 3(월) (예정)

- 당선작 전시 : '01. 9. 3(월)~9. 7(금) (5일간)

◇ 공모절차

▷ 응모자격 : 신청일 현재 전국의 전문대,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이내 공동작품으로 응모가능

▷ 참가신청

- 신청 일시 : '01. 6.18(월)~6.22(금) 17시까지 공사에서 배부

- 한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방문, E-mail, Fax, 우편)
- 신청서 배부 : 각대학 송부(복사사용 가능), 공사 홈페이지 (www.jugong.co.kr)에서 Download받아 사용, 또는 신청장소에서 직접교부
 - 신청장소 : (우편번호 463-7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본관8층) 대학생설계공모전 담당자
팩스 031-738-4139, E-mail (heyjoe@jugong.co.kr)
 - 신청번호 확인 : 방문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6월25일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번호를 개별적으로 확인
- ▷ 작품접수
- 접수기간 : '01. 8.22(수)~8.24(금) 17:00까지 (시간초과시 접수받지 않음)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작품의 파손우려가 있으므로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대한주택공사 본관 3층 대회의실
 - 제출물
 - * 도판 : A1 Size(841mm×594mm) 2매 (규격, 매수 위반시 접수 안됨)
 - * 단지모형 : 외곽크기 600mm×600mm이하 (축척은 임의, 높이제한 없음)
 - * 설계설명서 : 3부 (A4용지 5매이내)
 - * 응모자 전원 재확증명서 각1부 및 작품접수서
 - ◇ 심사
 - ▷ 심사위원 : 사회의 권위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주공 홈페이지에 공개
 -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
 - ▷ 결과발표 : '01.8.31(금) 10시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 시상
 - 당선작은 주공사장상 및 상금지급(입선작 수는 작품수준에 따라 조정가능)

- 최우수상 1작품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수상 2작품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장려상 10작품 :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입선 20작품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 작품전시
 - 전시대상 : 입선작 이상 작품.
 - 전시장소 및 기간 : '01. 9.3~9.7 까지 대한주택공사 본관2층 홀에 전시.
- ◇ 작품반환
 - 낙선작은 '01. 9.3~9.7 까지, 당선작은 '01. 9.10~9.14 까지 회수하여야 하며 반환기한내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공사에서 임의처리
 - ◇ 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전화031-738-4132~3,
팩스 738-4139

정림포럼

정림건축에서 매월 1회

(주)정림건축은 그동안 사내에서 열어 오던 토요세미나를 공개세미나로 확대하여 6월 23일부터 매월 한차례씩 개최기로 했다. 올 해 주제는 '크로스 오버(Cross-over)' (부제: 탈장르적 문화환경에 대하여)이며, 건축을 보는 타문화계의 시각을 알아보고, 분야별 시대적 흐름과 주요 관심사, 예상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행사는 정림건축 사옥내 나들목 사랑의 교회강당에서 매회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의: 02-708-8748

www.junglim.com

- ◇ 일정
 - 6월 23일: 타예술의 시각으로써 분석하는 건축/김원식(한양대 건축공

학부 겸임교수)

- 7월 21일: 어반 보이드/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 8월 18일: 설치미술, 경계로부터의 자유/서현주(조각스튜디오 Pine Pole)
- 9월 29일: 현대미술과 비디오아트/문주(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 10월 27일: 건축에 있어서 사고의 흔적들/서해림(건축사사무소 힘마)
- 11월 24일: 도시, 영화, 근대성/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12월 22일: 작가론-상황론/이성관(한울건축)

신간안내

새로운 교회 건축, 이렇게 하라
종심이탈의 나르시시즘-이종건 건축비평집
전진삼의 비평시대 : 건축의 불꽃
건축물 오염사태와 대책

▷ 새로운 교회 건축, 이렇게 하라

어느 건축물이나 혼자서 힘으로 건축이 완성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종교건축물인 교회당의 경우 이를 추진하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 및 상황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나가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저자 이은석의 새로운 교회건축, 이렇게 하라는 "설계의뢰에서 준공검사까지"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관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좋은 교회당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다.

첫 장 모범적인 교회건축을 위하여에서는 △실용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라 △좋은 설계도를 구하라 △교회건축에서 이런 점은 유의하라 △이런 교회가 아름답다 등 쉬운 언어로 교회건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적시하고 있으며, 두번째 장에서는 모범적인 한국 교회건축의 예를 △아담한 도시형

교회 △도시형 중형교회 △전원형 교회 △복합시설로서의 기독교 문화센터 교회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함으로써 교회건축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 마지막 장에서는 교회건축설계 프로그램제작의 응례와 건축진행 과정 등의 지침을 소개함으로써 설계실무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교회당이 본당 중심으로 지어졌고 항상 대규모의 집회만 이뤄지는 폐쇄적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본당의 기능도 다양해져야하고 본당 이외의 부속시설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현대적인 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복합공간의 배려가 오늘날 교회에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개신교 교회당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는 이 책은 현재 도시와 농촌에 지어지고 있는 교회당에 대한 아쉬움과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건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은석 지음/235쪽/2만2천원/국배판/두란노 펴냄(02-794-5100)

▷ 중심이탈의 나르시시즘 - 이종건 건축비평집

“한 사회의 건축수준은 그 사회에서 수행되는 건축비평의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 이 시대 건축사회를 이끄는 리딩 아키텍트들에게 거침없이 미학적, 철학적, 예술적 잣대를 들이대는 성역없는 비평서가 출간됐다. 비평부재의 건축계에 풍부하고 해박한 인문학적 사유와 다양한 경험을 엮어낸 ‘중심이탈의 나르시시즘’은 건축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연 화제의 신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성숙한 비평문화가 없는 우리건축의 현실과 이를 타파하기 위한 비판적 지식인의 역량에 대한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중심이탈의 나르시시즘 - 20세기말 우리 건축을 위한 송사’에서 저자는 21세기를 맞는 한국의 건축이 20세기 우리건축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정리없이 지나가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으며, 다시 중심을 찾는 노력을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건축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건 지음/356쪽/1만3천원/도서출판 옛오늘 펴냄(02-756-8956)

▷ 전진삼비평시대:건축의 불꽃

건축전문도서 출판사인 시공문화사에서 신간으로 전진삼의 비평시대: 건축의 불꽃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1990년대 후반부의 한국건축판과 건축물에 대한 비평문을 모은 건축비평집으로 저자가 지칭하는 이 땅의 ‘건축이웃들’인 일반사회 구성원들에게 건축의 존재를 폭넓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시선이며,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그것의 실체를 ‘건축주권론’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압축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만화 42컷, 흑백 사진 31컷, 도면 48점과 글을 어울리어 독자들의 보고 읽기에 수월함을 기했다. 모름지기 비평집이 갖는 무게를 한껏 떨어내고자 하는 편집자의 의도와 저자가 평소 행동하는 건축의 대중화라는 사유와 맞아떨어지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이 책 이전에 ‘건축의 발견’ (1994, 도서출판 미건사)이라는 비평집을 낸 바 있다. 이번 ‘건축의 불꽃’과 함께 이 두 권의 책으로 1990년대 전반과 후반의 한국 건축을 증거하는 비평가 전진삼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진삼 지음/376쪽/9천5백원/도서출판 시공문화사 펴냄(02-737-3930)

▷ 건축물 오염사례와 대책

지구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건물의 긴 수명화·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저감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맞춰 이 책에서는 일본 간사이 지방에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너럴 콘트랙터 6개사가 수년에 걸쳐 수집한 건축물 오염 사례와 대책, 체크리스트 등을 실어 건축물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본건축협회출판위원회 펴냄/ 심우석 옮김/
167쪽/ 1만2천원/ 도서출판 시공문화사 펴냄

2001년도 상반기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 안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건설관련업체)는 소속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소재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수탁기관인 우리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되어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기간 : 2001. 7. 1~7. 31.

◇ 보고내용

- 2001. 1. 1~6. 30일 사이에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의 입·퇴사 현황 (입·퇴사가 발생한 사무소에 한함)
-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변경내용(해당 사무소에 한함)

◇ 접수처 : 소속 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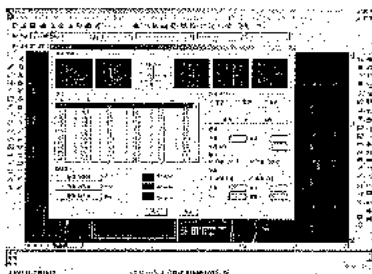
◇ 보고양식 : 별지17호 서식

-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메인화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건축사회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1999년도 상·하반기, 2000년도 상·하반기 취업 및 퇴직상황을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도 2001. 7. 31.까지 보고하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보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감감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미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LT

부림캐드네트워크



건축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들의 정품 사용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오토캐드와 캐디안 그리고 오토캐드 LT에서 모두 구동하는 「피라미드 LT」는 오토캐드용과 캐디안(인텔리캐드)에서 동일한 명령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 사용자와 캐디안 사용자 모두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급 사용자도 이용이 쉽도록 단축키와 메뉴구성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다. 효율적인 스타트업과 카멜레온형 환경설정, 강화된 평면작업, 편리한 치수작업, 자동화된 단면요소, 다양한 입면작업, 자동화된 실내재료 마감표 작업, 전문화된 배치도 작업, 모듈화된 창호일람표 작업, 빠른 구조 평면 작업, 원전자동 배근리스트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의 특징은 Lisp와 DCL, ADS, ARX를 모두 지원하고, 명령창에서도 Lisp 명령이 구현 가능하게 되어 있다. 피라미드 LT는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프로젝트 개념을 도입해 한번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 원클릭으로 이전에 정의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내보낼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버그 및 업그레이드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건축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명령과 세부옵션을 정의해 놓아 건축도면을 손쉽게 작성해 줄 수 있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080-060-2638(수신자 부담)
www.purim.co.kr

피트(Pit)가 필요없는 지상설치형 주차기용 텐테이블

창공주차산업

미니로타리식(수직순환식) 주차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창공주차산업(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271번지, 대표 이상업)에서는 기존의 주차기용 텐테이블에서 필수적으로 파야했던 피트(Pit)가 필요없이 슬라브 상부에 바로 얹을 수 있는 텐테이블을 개발하여 시판중이다.

이 장치는 실용신안등록 제2001-0000881호로 등록되었으며, 장치의 직경은 4,000mm이며, 본체 높이는 75mm이고 0.2kw 구동모터로 구동되며 구동속도는 1회전에 약 1분이 소요되고, 설치시간은 4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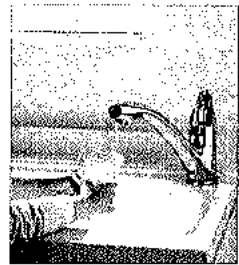
따라서 이 장치는 기존의 주차기용 텐테이블을 설치할 때 피트(Pit)를 깊이 500mm/m 직경 4,500mm/m 파야했던 번거로움이 없으므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슬라브 위에 이 장치를 설치하고 75mm/m 높이로 마감하면 평면상태로 완성되므로, 설치가 매우 용이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에 획기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080-567-7788(수신자 부담)
www.car-park.co.kr

디지털 정수기 Clear-Tap

아메리칸스탠다드

100여년 전
통의 세계 최
대 욕실 제품
전 문 회 사 인
아 메 리 칸 스
탠 다 드 에서
수도꼭지-정
수기 Clear-Tap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최첨단 액정 디지털 필터 수명 표시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일일이 필터교체 시기를 체크해야 하는 불편을 덜었으며, 특히 미국 국립위생국(NSF International)의 까다로운 성능 인증을 획득한 특수필터는 교체 방법이 간단하며 번거로운 A/S없이 사용자가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디지털 정수기 Clear-Tap은 물을 마시기 바로 직전의 단계인 수도꼭지에서 정수가 이루어지므로 수도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함으로써 2차 오염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물에 녹아 있는 살균능력이 있는 염소성분이 정수기를 통하여 제거되고, 냄새·염소·중금속·세균은 물론 화학물질 등 유해성분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제거되는 반면 몸에 유익한 각종 미네랄과 불소는 그대로 물에 남겨둔다. 사용법 또한 간단해서 수도꼭지 겸용 정수기로 정수한 물, 수도물을 선택해서 핸들을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점이 돋보인다. 비용면에서도 전화로 주문한 필터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인 제품이며, 정수까지 해결하는 편의성이 돋보이고, 전문 WebSite인 www.cleartap.com을 통해 기술적 의문사항까지 해소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한 제품이다.

080-542-3311(수신자 부담)
www.amstd.co.kr